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

2012년 6월 4일(월) 오후 2시~6시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

주최 :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후원 : 국가보훈처

신흥무관학교 101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

순서

1부 기념식

사회 : 방학진(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국민의례

개회사 : 윤경로(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상임대표)

축사 : 박유철(광복회장)

교가 합창

2부 학술회의 _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

사회 : 김삼웅(전 독립기념관 관장)

제1주제 신흥무관학교 주요 간부와 졸업생의 민족운동 2

발표 : 박환(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토론 : 황민호(숭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24

발표 : 한용원(한국교원대 명예교수)

토론 : 노영기(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

제3주제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40

발표 : 강윤정(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토론 : 박민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제4주제 상동파의 구국운동과 신흥무관학교-기독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을 중심으로 62

발표 : 서영석(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토론 : 이은선(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종합토론

신흥무관학교,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요 줄기

박유철 광복회장

올해는 우리 독립운동사상 최초의 항일 독립군의 산실이었던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된 지 10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였던 지난해에는 기념식과 함께 시민문화축제를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하였는데, 올해는 행사의 질과 격을 더욱 높여 학술회의를 준비하였다고 하니, 기념사업회의 큰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흥무관학교, 어떤 인물들이 참여했나”라는 오늘의 학술회의의 주제에서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 운동사를 꿰뚫은 거대한 계보를 엿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간도 유하현 삼원보에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우당 이회영 선생 일가를 위시하여 구한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가산을 모두 털어 재정적인 뒷받침을 함으로써 전형적인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10여 년 동안 3,500여 명이 넘는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어 여러 방면의 독립투쟁 전선에서 한결같이 나라 잃은 백성들의 밤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과 청산리·봉오동 대첩의 주축이기도 하였고, 조선혁명군을 비롯하여 의열단, 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등의 핵심 인력도 모두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셨습니다.

신흥무관학교는 특히 독립운동의 주요 방략이었던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을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한말 의병,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군맥(軍脈)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통찰해 볼 때, 신흥무관학교야말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요, 줄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우리 모두는 신흥무관학교 선열들을 비롯한 독립항쟁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이어받아 진정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워 금세기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통일문제 해결에도 맡은바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술회의를 통하여 역사 속에 묻혀 있는 신흥무관학교의 진면목과 신흥무관학교가 지향했던 설립정신을 깊이 헤아려 민족사의 미래를 내다보고, 통일 민족국가 건설을 꿈꾸어 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회의에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학계의 석학들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학술회의를 기획하신 기념사업회 윤경로 상임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나날이 번창하는 기념사업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주제

신흥무관학교 주요 간부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박환 수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서언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6월 만주 유하현 삼원보에서 신흥강습소로 출발한 이후 유하현, 통화현 등 여러 지역에서 학교를 개교하여 독립군 양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결과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인 원병상이 1911년 추가가 제1회 졸업생에서부터 1919년 11월에 이르기까지 본교 분교 지교를 통틀어 그 졸업생수가 3천 5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할 정도로 많은 수의 독립군을 배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졸업생들은 그 이후 국내외 항일운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1930년대 중국 지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인 韓國國民黨의 기관지 『韓民』 3호(1936. 5. 25)에 실려 있는 「西間島 初期 移住와 新興學校時代 回顧記」에,

만주 기타 각 방면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던 투사 중 이 학교 출신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본에서도 이 학교를 질시했다.

라고 있듯이, 신흥무관학교의 출신들은 日帝를 물리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학계에서도 일찍부터 신흥무관학교에 주목하여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¹⁾ 특히 2011년에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그 연구성과들이 집대성되기도 하였다.²⁾ 그렇다고 하여 신흥무관학교의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닌 것 같다. 신흥무관학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회영, 이상룡, 김대락, 윤기섭, 여준, 이시영, 이동녕 등에 대하여는 최근까지 몇몇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이세영, 김창환, 이장녕 등 주요 간부들에 대하여는 아직

1)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2011.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2011. 12. 한시준, 김태국, 김주용의 논문이 실려 있다.

도 연구가 미진한 편이다. 또한 김학규 등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활동에 대하여도 깊은 천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주요 인물 가운데 그동안 등한시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주목하고자 하였다. 임필동, 김창환 등이 그들이다. 임필동은 신흥무관학교로 추정되는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김창환은 대한제국 출신 군인으로서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한, 실질적으로 독립군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한 지도자이다. 아울러 일본육사 출신인 김정천의 회고록인 『擎天兒日錄』과 지청천의 일기인 『자유일기』를 통하여 신흥무관학교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 활동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전의 경우는 중국에서 활동한 인물, 국내에서 활동한 인물, 공산주의 활동을 한 인물 등으로 나누어 밝혀보고자 한다. 해방 후의 경우는 대한민국이나 북한에서 활동한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였다. 가능하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인물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잊혀진 신흥무관학교의 중심 인물들

신흥무관학교 연구자들은 이회영을³⁾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 인물, 이상룡, 김동삼, 김대락 등⁴⁾ 경북 안동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최근에 여준,⁵⁾ 윤기섭⁶⁾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신흥무관학교에 관여한 중심인물들은 많다. 우선 우당 이회영 6형제 가운데 이시영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는 조선의 거물 정치인이었으므로 만주지역에서 일본 측의 주된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이동녕에 대하여도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신한민보 등에서는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하여 이동녕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다.⁷⁾ 그 외에 이세영, 김창환, 채찬, 이장녕⁸⁾, 장도순 장한순

3) 이회영에 대하여는 박환, 이덕일 등에 의하여 다수의 연구가 있다. 최근에는 우당 이회영 일가 망명 10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학술회의가 있었다. 『우당 이회영일가의 망명과 독립운동』(2010, 우당기념관)

4) 안동독립기념관에서 최근 이상룡과 김대락의 문집인 『석주유고』와 『백하일기』가 번역 간행되어 이 분야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안동출신들에 대하여는 김희곤의 집중적인 연구가 있으며, 김대락을 중심으로 강운정의 연구가 돋보인다. 김희곤, 『안동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 7, 2009

5) 김태근, 「여준의 구국교육운동」, 『용인향토문화연구』 6, 2005

6)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선생 학술회의, 2011

7) 신한민보 이동녕사략(홍언찬) 1940년 5.30, 6.6, 6.13, 6.27, 7.4, 7.18, 7.25

형제⁹⁾ 등에 대하여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그동안 주목되지 못한 신흥무관학교 중심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알려진 임필동, 무관양성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 김창환 등이 그들이다. 아울러 김경천과 지청천의 수기를 통하여 신흥무관학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성중학교 교장 林必東(林勉洙)

姜德相이 편한 『현대사자료』 27 조선3 160-161면에는 <재외조선인경영 각 학교 서당일람 표> 1916년 12월 조사, 조선주차헌병대사령부 압록강대안지방의 부 2라는 항목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養成中學校 哈泥河 南溝 四岔 排日主意 1915년 4월 양성이라고 개칭

교장 임필동, 校首 李世英, 교사 車貞九 金長五 史仁植 李文學 申基禹 尹振玉, 재무감독 李東寧
기숙생21, 통학생 41 학생 연령 15세부터 28세까지

중등교과산술, 國語文典, 高等小學讀本, 新訂산술, 最新高等學理科書 교육학 大韓新地誌 초등윤리과, 新選박물학, 중등산술 新選理化學, 幼年必讀, 보통경제학, 윤리학교과서 대한국사, 사범교육학 新編화학 등 종래의 유지법을 일변해서 생도의 공비 등은 각자 지불하게 하고 단지 수업료는 없은 처음에 대동중학교라고 칭하다가 후에 신흥학교라고 고쳤다가 다시 양성중학교라고 개칭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있는 인물은 위의 기록에 양성중학교 교장으로 언급되고 있는 임필동이다. 임필동의 경우 필동은 호이고, 이름은 면수이다. 국내에서는 임면수라고 불리었다. 그는 1874년 6월 13일 수원군 수원면 梅香里에서 출생하였다.¹⁰⁾ 부친은 林鎮擘(洙)이고 어머니 宋씨 사이에 2남이다.¹¹⁾

8) 이장녕에 대하여는 기초적인 연구들이 있다. 이덕선 최동원, 「백우 이장녕장군 부자-독립운동약진」; 이석희(이장녕의 손자), 「백우 장녕선생 독립투쟁사」. 이장녕은 김대락의 백하일기에 자주 등장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 이상룡의 손부 허은여사 회고록인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정음사, 1995)에도 간단한 언급이 있다. 이장녕은 만주로 처음 이주할 때 도운 이병삼의 아들이다. 이장녕의 아들 이의복도 신흥무관학교 출신이다. 이동녕과는 4촌간이다.

9) 장도순 장한순 형제는 개성 남산 출신들이다. 만주 이주 초기에 유하현 삼원보로 이주하여 합니하에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 장한순의 경우는 1922년 1월 봉천성 무순현에서 대한독립군비단에서도 활동하였다. 『한민』 1936. 5.25,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국외용의전조선인명부)

10) 『광복선열 고티동임면수선생약사』. 1963년 2월 25일 許英伯

11) 임면수 호적등본 참조

임면수는 향리에서 전통교육을 받았다.¹²⁾ 그 후 그는 개항이후 조선이 근대화되자 누구보다도 발 빠르게 근대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1903년 6월 18일자에는 그가 양잠학교를 졸업한 기록이 보여 우리의 관심을 끈다.

황성신문 1903년 11월 06일 (1513호) 잡보 ○華校蠶業

水原養蠶學校秋期卒業榜이 如左니 優等은 梁載純 崔錫圭 二人이오 及第年 林勉洙 洪璟裕 等 六人 이오 進級生은 李容默 等 四人이더라

위의 기록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임면수는 1903년 수원양잠학교 추기 졸업 명단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우등은 양재순과 최석규였으며, 임면수는 홍경유 등 5명과 함께 졸업하였다.

한편 양잠학교를 졸업한 임면수는 당시 시세를 보아 일어공부를 위하여 화성학원에 진학한 것 같다. 황성신문 1905년 05월 09일 華校卒業에,

華校卒業

水原華城學校에서 去月二十六日에 第一回卒業式을 舉行卒業生은 林勉洙 等 七人이오 三學年進級證書를 受者李容勳 等 十餘人이오 二學年은 羅弘錫 等 二十餘人이오 一學年은 羅景錫 等 二十餘人이오 豫科生은 池閔喜 等 三十餘人인습 八十餘名이라더라

이라 있는 바와 같이, 임필동은 1905년 4월 26일 수원화성학교를 6명의 동료들과 함께 졸업하였다. 그런데 임필동은 일어에 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동청년학원에서 민족교육을 받고, 수원에 남아 구국운동을, 그리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인물됨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임필동의 상동청년학원에서의 공부에 대한 기록은 허영백이 작성한 그의 비문에만 등장한다. 비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구한말 선생은 뜻한 바 있어, 수원에서 서울로 상경하였다. 상동감리교회 안에 설립되어 있는 청년학원에서 영어와 일어와 측량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상동청년학원은 상동교회의 담임목사 전덕기 목사가 설립하였다. 당시 이곳은 기독교 중견인물들의 집합소이며 애국자들의 총

12) 『광복선열 고필동임면수선생약사』

집합소였다. 임면수는 서울에 유학하면서 교회와 독립협회가 주최하는 강연회나 토론회나 정부탄핵 연설장이나 강습회나 빠짐없이 따라다니며 식견을 넓히고 인격 향상에도 노력하였다. 특히 강회에서 사학을 30여처나 설립하고 독립교육에 매진하고 있는 이동휘씨의 감화를 많이 받았다. 그리하여 선생은 국가민족의 항로를 계몽하고 선도하는 지침이 오직 교육부터 라는 것을 절감하고 행리로 돌아와 신교육을 개척하고자 하였다.¹³⁾

1907년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상동청년학원에서 민족의식을 고취한 임필동은 김제구, 이하영 등과 함께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9일자 3면 잡보

奮發意氣

수원사는 이하영 임면수 金台濟 3씨가 國債報償事에 대하여 先爲倡論하여 使府內人民으로 咸有愛國經財之心케 하고 국한문 취지를 자비발간하여 逢人輒給에 以啓其奮發之心하여하였다더라.

라고 하여 이하영, 임필동, 김태제 3인이 국한문 취지서를 자비로 발간하여 주민들의 동참을 호소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1907년 3월 26일 3면 잡보 <三氏奮義>에서는 취지서 수백장을 발간하여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 각 군에 배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구, 이하영, 임필동 등이 배포한 국채보상 취지서는 대한매일신보 1907년 3월 29일자에 잡보 <국채보상취지서>에 실려 있다.

한편, 1903년 임필동은 즉시 젊은 동지들과 함께 수원에 삼일학교를 설립하였다. 1909년 에는 삼일학교 교장으로서 관내 사립학교 설립운동을 주도하거나 후원하는 등 교육가로서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주민들 칭송은 그를 이곳 계몽운동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부각시켰다.¹⁴⁾ 대한매일신보 1909년 1월 9일자 <학계헌신>이란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수원부 내 삼일학교 교장 임면수씨는 本以名望才藝로 多士心腹하는 바 이어나와 수년전부터 교육계에 전심전력하여 학교가 處處設立하고 일일확장한다 하니 유지인사의 대모범이 되리라고 물불칭송한다고 한다.

13) 『삼일학원 65년사』, pp. 79-80

14) 기호흥학회, 「학계위문, 學界獻身」, 『기호흥학회월보』 7, p.39

아울러 기호흥학회월보 제7호(1909년 02월 25일발행), 〈學界彙問〉에서도 임필동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 學界獻身 水原府內 三一學校校長 林勉洙氏는 素以德望才藝로 多士가 心服하는 바어니와 數年前부터 教育界에 專心積力하여 學校를 處處設立하고 日日擴張한다더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필동은 삼일학교에서 활동하는 한편 1908년 기호흥학회 수원 지부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임필동은 1910년 나라가 망하자 1911년 2월 가족을 이끌고 만주 서간도로 망명하였다.¹⁵⁾ 이에 그는 삼일학교를 나홍석에게 위탁하였다. 극비리에 가족을 이끌고 1910년 10월초 봉천성 회인현 황도촌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였다.¹⁶⁾ 그의 부인 전현석은 수시로 닥치는 별동대 특과대 각양 인원의 식사를 하루에 5~6차례씩 밥을 지어야 했고, 각인각색의 보파리와 충기를 맡으며, 챙겨주어야 하는 혁명투사의 아내로서 그 고역은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¹⁷⁾

한편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1914년 12월 28일 〈불령자처분〉자료의 별첨자료 〈서간도재주 불령선인조사〉 총 54명 중에 보면 임필동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在住地 : 통화현

원적지 : 경기 수원

성명 : 林弼東

연령추정 : 50

비고 : 객주업을 하는 유력자¹⁸⁾

표에는 통화현, 유하현, 회인현, 해룡현 등지에 총 54명의 독립운동가가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¹⁹⁾ 그 중 통화현 합니하에 거주하는 인물이 다수이나, 임필동은 통화현에 거주하

15) 임면수 호적 참조

16) 임면수 선생 약사

17) 삼일학원65년사, p.82 비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독립운동자로 선생택에서 잠은 안 잔 이가 별로 없고, 그 부인 전현석 여사의 손수 지은 밥을 안 먹은 이가 없었으니 실로 선생택은 독리군 본영의 중계 연락소이며, 독립운동 객의 휴식처요, 무기보관소요, 회의실이며 참모실이며 기밀 산실이었으니”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중국동북지역편 1, 2003, p. 481

1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독립운동사 자료 39』 중국동북지역편 1, 2003, pp. 480-482

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 54명 중 대부분이 신홍학교 관련 학자 및 교사들이다. 임필동처럼 객주업에 종사하는 인물은 모두 4명이다. 통화현의 경우 李啓東(충청도인, 50세, 객주업으로서 유지자), 임필동, 통화현 추가가의 경우 李時中(평안도인 36-7세, 객주업유지자), 통화현 快當帽子的 경우 崔時明(평안도인 42-3세, 객주로서 유지자) 등이다. 이중 임필동만을 “유력자”로 표현하고 있다.

임필동이 독립운동가로서 여관업에 종사하였음을 일본외무성문서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1916년 8월 5일자 배일선인 비밀단체 상황취조의 건>을 통하여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부민단에서는 1916년 3월 16일 회의결과 독립운동가들의 근거지가 날로 위협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부민단 총장은 許燮, 서무장 李沍, 경무장 任範鎬, 실업장 李喆, 외교장 廓文, 학무장 李相龍, 강습소장 李喆, 교육회장 呂準, 교육회 부회장 李鐸 등이었다. 그 결과 200명으로 구성된 결사대(일명 山獵隊)를 편성해서 통화현에 영사관 분관 등을 설치하는 것에 강력히 저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 이미 7-8명은 통화현 시가에 잠입하였다. 일본 측 자료에서는 일찍이 통화현 東關大街 거주의 여관영업자 경기도 수원부생 林必東은 이러한 종류의 무리라고 기록하고 있다.

불령단관계잡건 재만주부 1916년 9월 9일자 재안동영사가 일본외무대신에게 보낸 <재만조선인비밀결사취조의 건에 대한 회답>에도 임필동이 언급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당지(통화현)의 배일자 중 유력자인 결사대원 林必東(또는 林弼東이라고 쓰기도 한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 1916년 당시 임필동이 통화현 지역의 유력 항일운동가임을 살펴볼 수 있다.

임필동은 1920년 10월 일본군의 간도출병이후 해룡현 北山城子에서 일본군 토벌대에 체포되었다. 그는 鐵嶺으로 압송 도중 밤에 중국인 여관에서 번잡한 틈을 타서 한국인 경찰 柳泰哲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였다. 낮에 숨고 밤에는 걸어서 14일 만에 길림성 伊通縣 孤榆樹 한인 농촌 박모의 집에 은둔하였다가 장춘을 거쳐 부여현에서 겨울을 보냈다. 1921년 2월경에 길림시내에 잠입하여 남북연락과 활동을 하다가 밀정의 고발로 길림영사관에 체포되었다.²⁰⁾ 일제의 체포 사유 등은 일본 측의 다음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재류금지명령의 건 보고

본적 朝鮮鏡城府泥洞一統四戶

20) 임면수선생약사

當時 奉天省海龍縣北山城子中衛住
宿屋業 林必東
當四十八年

재류를 금지하는 이유

鄭鼎澤, 林必東, 韓元基, 李用道 등은 다른 조선인 3명과 공모하여 다른 不逞鮮人과도 연락을 취하여 大正9년 6월 12일 밤 海龍縣北山城子三道街에 재주하는 金剛의 집에서 金剛의 부재중에 同地領事館出張所의 日本警察官 및 그 부근에 거주하는 친일 조선인 등을 암살하고 南滿鐵道沿線에 거주하는 同志者와 기맥을 통하여 아편의 밀수입을 행하여 그 이익으로써 독립운동을 하고 여유가 있으면 上海假政府에 송금하려는 것을 기획하였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 이를 취조하던 중 우자 등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중략) 林必東은 자기가 숙박영업을 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不逞鮮人과 기맥을 통하고 있다는 혐의가 있으며

임필동은 체포된 후 평양감옥으로 압송 당하였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늦게 알고 1년 후에 수원으로 귀향하였다. 병보석으로 가족에 의해 수원에 돌아왔으나 거처할 방이 없었다. 1930년 11월 29일 56세의 나이로 순국하였다.²¹⁾

2) 독립군 양성의 책임자 金昌煥

김창환은 대한제국의 군인으로 출발하여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자 신민회의 해외 독립군 기지 건설을 위하여 만주로 망명한 후 끊임없이 만주 벌판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무장투쟁론자이다. 그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서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군정서, 대한통군부, 대한통의부, 정의부, 생육사, 한국독립군 등 만주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그는 신흥무관학교에서 윤기섭 등과 함께 가장 어려운 시절 10년 가까이 신흥무관학교를 유지하며 독립군 양성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많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가 이후 서로군정서와 대한통의부의 총사령으로서 1920년대 만주지역 항일무장 투쟁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정의부의 재무위원, 한국독립군의 부사령 등 독립군 지도자로서 큰 기여를 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는 지청천과 함께 한국독립군으로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던 그는 더 이상 만주에 머물 수 없게 되자 중국본토로 이동하여

21) 『삼일학원65년사』, 1968, p.83

신한독립당, 민족혁명당, 조선혁명당 등에서 항일투쟁을 지속하다 순국하였다.²²⁾

김창환은 대한제국 군인에서 출발하여 참 군인으로서 만주와 중국본토에서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였다. 그가 순국한 후 1935년 11월에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결성된 민족주의적인 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정당인 한국국민당의 기관지 『한민』 12호(1937년 3월 1일자)에서는 그의 죽음을 추도하여 「秋堂 金昌煥(김창환) 先生 別世」라는 글을 실고 있다.

이월 십이일 남경 객장에서 뇌일혈 병으로 불행히 별세.

저간 남경에 와서 계시던 추당 김창환 선생은 二月 十二日 상오 구시 반에 뇌일혈로 혼도되어 인사불성이 된 채로 당지의 모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 치료를 하였으나 효험이 없이 그날 하오 십시 십오분에 불행히 별세하여 十五日 하오 일시에 당지 모 묘지에 장례하였는데 향년이 육십오 세이다.

추당 선생은 본시 경성 출생으로 이십오 세 때에 장교가 되어 시위대에서 십년간 복무하다가 을사년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곧 군대에서 나와 이동영 전덕기 이상설 씨들과 결탁하여 구국 운동에 참가하고 당시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과도 연락하여 활동하다가 경술년 함방까지 된 후에는 서간도로 가서 신흥학교에서 군사교육사업에 종사하였고 삼일운동 이후에는 군사 운동에 진력하여 서로군정서의 요임을 띠고 군대를 영솔하고 백두산과 압록강 일대에서 맹렬히 활동하다가 일인의 직접 출병으로 인하여 서북간도에 있던 군대들이 모두 중동선 연안에 집합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김규식 김좌진 홍범도 이청천의 각 군대가 연합하여 다시 독립군을 편성할 때에도 선생이 역시 요임을 띠고 자유시까지 갔다가 러시아 군대에게 무장해제를 당한 뒤에는 다시 서간도로 돌아와 통의부 군대의 총 사령이 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동족 간에 알력이 생겨서 살육까지 생기게 되매 드디어 직임을 사면하고 북만에 가서 홍진 이청천 씨들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조직하였던 바 九一八 만주사변 이후 무장동지를 영솔하고 이청천과 함께 중국의용군과 연합하여 각지에서 항일운동에 종사하며 고생을 많이 하였다 한다. 그러다가 선생은 수년전 모지에 와서 활동하고 있다가 불행히 병마에 걸려 한 많은 최후를 맞았는데 본국에는 그의 부인과 두 아들이 간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한다.(사진은 고 김창환 씨)

이처럼 만주지역 및 중국 본토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한 김창환은 남경에서 1937년 2월 12일 하오 10시 15분 향년 65세로 장사지냈다. 그의 죽음은 『한민』과 더불어 『신한민보』 1937년 5월 20일자 「고 추당 김창환 선생을」라는 기사에서도 추도하고 있다.

22) 박환, 「잊혀진 만주지역 독립운동가 김창환의 민족운동」(미발표논문) 참조

김창환(1872년(고종 9)~1937년)은 별명은 錫柱, 호는 秋堂. 서울 청진동 출신이다. 정2품 군인이었던 啓鉉의 둘째아들이다.²³⁾ 어려서부터 한문을 배웠다.²⁴⁾ 김창환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인 것 같다.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의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서간도시종기』(정음사, 1983)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²⁵⁾

이장녕씨, 이관직씨, 김창환씨 세분은 고종 황제 당시에 무관학교의 특별 우등생으로 승급을 최고로 하던 분이다. 만주 와서 체조선생으로 근무하는데, 대소한 추위에도 새벽 3시만 되면 훈령을 내려 만주서 제일 큰 산을 한 시간에 돌고 오는지라, 세분 선생을 <범 같은 선생이라>하더라.

김창환은 1899년(광무 3) 대한제국 육군에 입대하여 1905년에는 副尉로 복무하다가 그해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신민회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에 노력하였다.²⁶⁾

『한민』 12호(1937년 3월 1일자)에 「秋堂 金昌煥(김창환) 先生 別世」에,

추당 선생은 본시 경성 출생으로 이십오 세 때에 장교가 되어 시위대에서 십년간 복무하다가 을사년 보호조약이 체결되어 나라가 장차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곧 군대에서 나와 이동영 전덕기 이상설 씨들과 결탁하여 구국 운동에 참가하고 당시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과도 연락하여 활동하다가

라고 있는 바와 같이, 김창환은 25세시 장교가 되어 시위대에 10년간 복무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중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 군대에서 나와 이동녕, 전덕기, 이상설 등과 함께 구국운동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김창환은 이들과 함께 상동청년회에서 활동한 것이 아닌 가 추정된다. 상동청년회에서는 1904년 10월 15일 상동청년학원을 개교하였다.²⁷⁾ 이 학교는 신민회의 부설학교 같은 성격을 띤 것으로 민족학교라고 할 수 있을 듯하다. 김창환은 상동청년학원에서 전덕기 목사가 교장으로 있던 시절 체조교사로 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언제부터 교사로 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는 항상 이동녕, 이회영, 曹成煥 등과 함께 활동하였으므로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으로 보인다.²⁸⁾ 한편

23) 김창환의 11번째 자식인 金竣浩의 부인 黃明秀(1929년생)의 증언. 김계현의 첫째 아들은 金明煥이며, 김창환의 부인은 채씨라고 한다.

24)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김창환

25) 이은숙의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서간도시종기』, 정음사, 1983, p.24

26)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 김창환

27)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 126, 1990, p.88

김창환은 신민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⁹⁾.

신민회 및 상동청년회에 참여했던 김창환은 1909년 12월 일진회가 고종과 統監, 그리고 총리에 合邦上奏文과 韓日合邦請願書를 제출하는 등 매국행위를 자행하자, 裴東鉉·李昇圭·吳祥根 등과 함께 일진회를 성토했다는 글을 발표하여 국민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이는 통감부 문서 8권 문서제목 (42) 合邦 문제에 관한 기독교도의 행동, 문서번호 警秘第二四八號, 발송일 隆熙三年十二月八日(1909-12-08), 발송자 警視總監 若林資藏, 수신자 統監 子爵 曾荒助에 잘 나타나 있다.³⁰⁾

김창환의 이 신흥무관학교에서 얼마나 큰 기여를 하였는지는 신한민보 1940년 5월 30일자 <윤기섭과 추당 김창환-신흥학교를 유지>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1919년 10월 16일 관동군 참모부 普通報 제2호³¹⁾에 따르면,

<독립군 무기연습>

통화현내 한족회에서서는 목하 유하현 삼원포 恩陽학교와 합니하 新興支학교 생도로부터 신체건강한 학생 400명을 뽑아서 합니하에 있는 김창환이 주임이 되어 수명의 교사와 함께 군사교련 훈련에 임하고 있다. 이들 훈련생은 국제연맹회의 전후를 기해서 홍범도 등의 습격대와 상호응해서 도강하여 조선내지로 침입할 생각을 하고 있다.

고 보고하고 있다. 이를 통해 3.1운동 이후에도 김창환은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3) 『경천아일록』에 보이는 신흥무관학교와 김경천

김경천은 지청천과 함께 3.1운동 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³²⁾ 최근 발굴된 김경천의 『擎天兒日錄』에³³⁾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8) 위의 논문, p.105

29) 위의 논문, p.99

30) 통감부 문서 3,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31) 1919년 10월 16일 관동군 참모부 普通報 제2호

32) 박환, 「시베리아의 항일운동가 김경천」, 『대륙으로 간 혁명가들』, 국학자료원, 2003

33) 김경천, 『경천아일록』, 학고방, 2012

(3.1운동 당시-필자주) 청년회관에 있을 때도 知友들이 나에게 칼을 빼시오, 이제는 별수 없으나 칼을 빼시오하며 여럿이 권한다. 여러 봉우의 말대로 내가 칼을 빼자면, 서간도 북간도 아령 3곳으로 出奔하는 문제다. 나 자신도 국외에 臥薪 한지 15년에 오늘날을 기다렸다. 또 나의 책임인가 한다. 天賦의 識分이다. 나를 빼고 적당한 자가 없음을 나도 안다. 연일 회의가 나의 정원에서 있었다. 마침 李應俊, 池大亨 二君이 來到하였다. 더욱 일이 결행을 요구하게 된다. 池君은 本意로 응낙하며, 外地로 出奔하게 되나, 李君은 마지 못하여 대답하는 것이다.

즉, 김경천은 지청천과 함께 망명하기 전 사직동에 있던 자신의 집 정원에서 망명 논의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김경천의 『경천아일록』의 기록을 통하여 1919년 6월 당시 신홍무관학교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지청천 김경천 등-필자주)의 고난이 끝이 있어 약 15일만에 봉천성 유하현 고산자 대두자에 있는 서간도 무관학교에 도착하여 南一湖君家에 정착하였다. 본 무관학교는 본년 3월까지 보통교육을 실시하였다가 독립선언이후로 그것을 전폐하고 군사학을 시작함이니 매우 모든 일에 유약하더라. 胡人家에 차입하였고, 방 건축도 하는 중이더라. 학생은 내지로서 독립선언 한 이래로 일인의 압박으로 인하여 出境한 청년과 서간도 각지에서 온 사람이 모두 200명이 될락말락하다. 이것으로 세계강국의 하나가 되는 일본을 대적코자 함은 너무도 小하더라. 그러나 남만주에 있는 우리 힘이 原弱하다. 그러므로 적을 대적하는 것은 불가능이다. 더구나 지방 주민이 가난하므로 이에 더 요구할 도리가 없다.

나보다 몇일 먼저 도착한 申英均씨가 있다. 씨는 경성 무관학교 2회 출신이요, 사람됨이 군인적 군인이므로 우리 국가에 難得之人이니드라. 새로 온 사람이 우리 3인(지청천, 김경천, 신영균-필자주)이 되자 옛날부터 교육하던 사람들이 자연 우리를 실어하여 그 사이에 자연 학생까지도 신구의 구분이 생기니 우리 民性이 실로 가련하다. 이러하므로 충분한 교육도 못하고 사고에 사고로 인하여 분파가 많이 생겼다. 남일호씨는 오직 공평하게 사무에 헌신하드라. 오호라 내가 동포를 위하여 일점의 사사로움도 없이 자기의 安平을 불구하고 처자의 哀訴를 돌아보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가지고 북쪽 땅으로 왔더니, 금일에 이르러 보니 너무도 世人은 냉냉하도다.

본 학교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은 지식도 없고 主心도 없으면서, 명예와 주권(변변치도 않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일종의 기계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기들의 능력이 능히 나를 기용할만 하면 모르겠다. 하지만은 그들은 군사학은 물론 보통학도 모르는 愚夫요, 인격도 없나니라. 소인배의 행동으로 옛날에 온 학생들을 우리에게 반항토록 추키는 일도 있다. 이와 같이 우매한 지방, 인민을 아지 못하고 나는 너무 중요시함이 나의 부족이다. 나는 생각한다. 이 모양으로는 도저히 최후최대한 목적을 못실행하리라 한다. 이상과 같으므로 학과며, 기타 모든 것이 無爲하게 세월을 보냄도 있다.

즉, 김경천 등 일본 무관학교 및 일본군에서 활동하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청운의 꿈을 갖고 만주로 망명한 이들에게 신흥무관학교의 당시 모습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을 것은 자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마적의 출몰 등은 군사교육을 실시하는데 또한 큰 장애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천아일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거기다가 마적의 襲來가 많다. 만주의 賊이 부대를 지여가지고 각 도시라도 백주에 습래하여 여러 萬金을 奪去하며, 혹 人子人女를 수용하여 산중에 傭거하여 大金을 징수하며 인가에 들어가면 豚牛의 종자도 아니 남긴다. 그 무리는 작으면 수십이며, 크게는 기천이라. 소위 官兵이란 것은 방관적 이요, 오히려 월급이 지체되면, 총을 가지고 도적이 된다. 올 여름에 고산자 무관학교에 2번이나 야간에 내습하여 학생, 교사 몇 명을 잡아갔다. 어떤 학생은 그 적과 格투하여 다치기도 하였다. 이러하므로 군사교육은 자연히 충실치 못하였다.

한편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김경천은 한민족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다. 바로 신흥무관학교 근처에 고구려 무덤들이 있어 우리의 역사에 대한 인식들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공부한 김경천, 지청천 등에게 있어서 고구려 유적들은 큰 감동으로 다가 왔을 것으로 보인다. 『경천아일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孤山子에는 孤山이라는 一獨山이 있어 그 산 남쪽 경사에 우리나라 사람의 古冢이 많다. 이는 틀림 없이 고구려왕조의 유적이거나 하노라. 田野에서 石造한 방아확, 古器 등이 근년에는 얻은 것이 많다. 大韓民이 다수가 移入한 이래로 사적이 분명하다 한다. 또한 만주인도 말하기를 한인이 만주를 回有하지는 吉兆라고 한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 이 만주는 본시 우리의 영토가 분명하다. 漢唐이후로 점차로 요동 만주를 빼앗겼다. 현재 우리가 이땅에서 활동함에 우리 선조가 이미 傭거하던 그 後蹟을 밟고 있다. 枯木이 生花하는 격이라고 한다. 그런데 나의 의문이 많다. 아눈 분에게 고하니, 이 넓은 만주지방에 살던 우리 부여족이 었지 되고, 현재는 그 분묘만 남았는가, 압록강을 넘었나?, 胡族에 동화하였나, 다른 지방으로 이주하였나, 우리 역사가의 연구를 기대하노라.

6월에 만주로 망명한 김경천 등은 가을이 되기 전에 압록강을 넘어 국내로 진격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를 기대하여 신흥무관학교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것 같다. 『경천아일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여름이 다가고 초가을이 올리고 한다. 여러 유지들은 낙엽이 떨어지면 군사행동이 불리하니 무기를

준비하여 가지고 압록강을 한번 넘기가 소원이라 한다. 나도 그러하게 생각하나 현재의 형편으로는 압록강은 고사하고 개천도 못건너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무기문제가 생겨 혹은 무송현으로 가자하며, 혹은 러시아령으로 가자고 한다. 회의한 결과로 러시아령 니코리스크로 가기로 하였다. 위원을 정하니 나와 신영균 두사람이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흥무관학교가 독립전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무기의 구입이 급선무였다. 그러므로 무기에 정통한 김경천과 신영균을 러시아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다. 다만 지청천은 신흥무관학교에 계속 남아 학교와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지청천이 신흥무관학교에 계속 남게 된 것은 신식 군사훈련을 받은 두 사람 이 모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상황과, 학생들에 대한 애착과 현지 독립운동가들과의 적응문제 등이 언급될 수 있을 것 같다.

4) 『자유일기』에 보이는 지청천과 신흥무관학교

지청천은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서 일본군을 탈출하여 식민지시대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대표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³⁴⁾ 그의 항일운동의 전체적인 모습은 광복군총사령부 정훈처에서 발행한 『광복』 제1권 제1기(1941)에 잘 나타나 있다.

이청천(李青天) 장군의 약력

자는 백산(白山), 경성인, 현재 53세, 25세 일본 육군 사관학교 보병과를 졸업, 일본군에서 복무했다. 대위의 신분으로 청도(靑島)의 역에 참가하였으며, 후에 군대를 나와 요녕성(遼寧省) 유하현(柳河縣)에 이르러, 한인이 설립한 신흥군사학교에 교직원으로 일했다. 34세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교장에 임명되었으며, 정의부 중앙 집행위원회에 임명되었으며, 군사부장 겸 조선의용군 사령을 겸하였다.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 연안 각지에서 전투하였으며 9.18후 한국 독립군 군사령으로 임명되었다. 동북의 항일군을 연합하여 공동 작전을 벌였으며, 길림성(吉林省) 왕청현(汪淸縣)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무덤을 도굴하려는 일본군을 전멸시켰다. 1933년 낙양 군사학교의 초빙에 응하여 한국인 군관들을 훈련시키고, 아울러 조선혁명당 군사부장과 임시정부 군무부장, 한국독립당 중앙 집행위원 겸 훈련부 주임을 맡았다.

34) 박환,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과 지청천」(미발표논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청천은 만주로 망명한 이후 신흥무관학교 교관, 자유시 참변 이후에는 고려혁명군 사관학교 교장, 1920년대 중반에는 정의부 중앙집행위원, 군사부장, 의용군 사령관, 1930년대 전반기에는 한국독립군 사령관, 조선민족혁명당 군사부장, 1940년대에는 임시정부 군무부장,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즉, 그는 중국 지역에서 1920년대부터 40년대에 이르기까지 20여년에 걸쳐 중국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의 대표적인 지도자이다.³⁵⁾

1935년 11월에 중국 杭州에서 결성된 민족주의진영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정당인 한국국민당의 기관지인 『한민』 15호 (1937.7.30)에서는 지청천의 망명과 신흥무관학교에서의 활동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본래 조국광복에 높은 뜻을 갖은 선생은 삼일독립선언 당년 오월에 현역군관을 내버리고 만주에 망명하여 신흥학교의 군사교관이 되었다가 이듬해에 학교를 교성대로 개편하고 대장이 되어 장교 양성에 전력하던 중

지청천 장군의 망명이전 상황과 망명과정 등에 대하여는 지청천 장군이 쓴 『자유일기』³⁶⁾ 1951년 3월 1일자, 1952년 3월 1일자, 1953년 2월 16일자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 중 1952년 3월 1일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이때에(3.1운동시-필자 주) 천도교의 손병희씨와 연락하고 재일 우리 유학생을 지도하고 있었다. 자3월 1일 이후로 일본당국의 나에 대한 감시는 더욱 심하여졌다. 4월 중순 경 현역장교의 직을 帶한 채로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망명할 때까지도 혁명의 길을 찾노라고苦心慘愴하였다.

지금까지 자료들에는 지청천의 망명 후 신흥무관학교 도착과 그곳에서 느낀 점들, 활동 등에 대하여는 기록들이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1951년 11월 1일자 『자유일기』에서 훈련당시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어 국제구락 오후 6시 쾌락한 가운데 창가 등 여흥이 있을 새, 나는 이십여년전 백두산 북록에 신흥

35) 지청천장군의 개인 이력에 대하여는 신한민보에서도 2회에 걸쳐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홍언찬, 「이청천사략」, 신한민보, 1940년 10월 24일자 및 1940년 11월 7일자

36) 자유일기 원본은 현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생 훈련시 作歌한 시조를 吟詠한다. 여차
 백두산 천지변에 칼을 잡고 우뚝서서
 조국강산을 바라보니 기쁨보다 눈물겨워
 언제나 千兵萬馬 거느리고 짓쳐볼까 하노라.

3.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향배

신흥무관학교 폐교 후의 졸업생들의 활동상에 대하여 주목해 보자. 졸업생들의 활동 지역을 보면 주로 만주·중국본토, 러시아, 국내 등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학교의 위치가 만주였으므로 이들의 대부분은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활동했던 대표적인 무장 독립 운동 단체로서는 서로군정서와 북간도 지역의 北路軍政署를 들 수 있다. 서로군정서는 한족회의 군사조직으로서 權啓煥·金東植·金重漢·金字權·金鐵·金河成·金學奎·朴明鎭·白狂雲·白基煥·辛容寬·吳光鮮·李德秀·李秉鐵·玄基甸 등이 여기에 가담하여 일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신흥무관학교가 서로군정서의 소속 무관학교였기 때문일 것이다.³⁷⁾ 그중 이병철의 경우를 판결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본적 평안북도 자성군 자하면 청동(淸洞)
 주소 중국 봉천성 임강현 홍토작(紅土雀)
 무직 이병철(李秉鐵) 25세

대정 8년 음력 4월 27일 이미 사 놓았던 조(粟)를 운반하려고 중국 간도 통화현에 갔던 바 동지방의 한족회(韓族會) 총관 권병무(權秉武)의 권유에 따라 부득이 동년 음력 5월 6일 통화현 합니하(哈泥河) 신흥학교(新興學校)에 입학하고 동년 8월 20일경에 이를 졸업하고 그 후 동년 음력 9월 10일경 중국 유하현 삼원포에서 학우단(學友團)에 가입하고 동년 10월 4일경 만주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명에 따라 제2연대 제2대대 제4중대에 편입되어 중대장 신광재(申光在)의 부하가 되어 그의 명령에 따라 중국 집안현 대청구, 추피구, 석호구 지방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고 또 중대의 사무에 종사 중, 소집에 응하여 대정 9년 음력 1월 5일경 통화현 합니하에서 특별 강습을 받고 동년 음력 3월 5일경 교성대장(敎成隊長) 이청천의 명에 의하여 중국 통화현 통동 지방에 주재하는 중대장 신광재

37) 박환, 「서로군정서」,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일조각, 1991 참조

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동지에 체제중 발병하여 1개월간 체류 중,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말을 듣고 중국 임강현 홍토 애통구의 이병수(李秉洙)의 집으로 옮겨 피난하는 한편 병을 치료하고 대정 10년 음력 2월 15일까지 그 집에 체재하였다. 동년 음력 2월 16일 중대원의 임시회의에서 피고는 중대부 내무반장에 선임되어 그 사무에 종사하였다.³⁸⁾

라고 있는 바와 같이, 이병철은 신흥무관학교 졸업 후 신흥학우단에 가입, 다음에 서로군정서에서 활동하였던 것이다. 이병철의 경우는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졸업 후의 일반적인 행로가 아닌가 추정된다. 이 학교를 졸업한 원병상은 그의 회고록에서 본교 졸업생들은 교칙에 따라 모교가 지정해주는 임무에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그밖에 교포학교의 훈도로 근무하기도 하였다³⁹⁾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로군정서에는 姜化麟·金春植·朴寧熙·白鍾烈·吳祥世·李雲崗·崔海 등이 교관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들이 훈련시킨 독립군들이 靑山里獨立戰爭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었던 것이다. 아울러 金京俊·金重漢 등 많은 수의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 밖에 만주 지역의 大韓統義府·正義府·新民府·國民府 등 주요 무장 독립 운동 단체에서 활동하였다.

중국 본토 지역에서 주목되는 단체는 義烈團과 임시정부 산하의 光復軍이다. 의열단은 의열 투쟁을 전개한 대표적인 무장 단체로서 여기서 활동한 인물로는 단장인 金元鳳을 비롯하여 姜世宇·權峻·金玉·朴泰烈·裴重世·徐相洛·申喆休·尹輔漢·李成宇·李鍾岩·崔允東·韓鳳根·韓鳳仁 등을 들 수 있다. 光復軍에 참가한 인물로는 權峻·金學奎·申東烈·吳光鮮 등을 들 수 있다.⁴⁰⁾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들로는 우선 黃一淸을 들 수 있다.⁴¹⁾ 그는 안중근의 딸인 安賢生의 남편이다.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1919년 6월 상해에서 구국모험단을 조직하였고,⁴²⁾ 1920년 2월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군무부 참사에 임명되어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활동하였다.⁴³⁾ 1921년 1월에는 만주 봉천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35년에는 상해에서 한국독립당원으로 활동하였다.⁴⁴⁾ 1941년 중국 소주

38) 『독립운동사자료집』 10, pp. 1036-1038

3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10, p.242

40)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만주한인민족운동사연구』, 참조

41) 『독립운동사자료집』 10, p.33

42) 『독립운동사자료집』 7, p.1180

43)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 p.151. 『한국독립운동사자료』2(국사편찬위원회), p.176

에서 교민단 단장으로 일하였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신흥무관학교를 중퇴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 특파모금원으로 활동한 인물도 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嚴俊과 劉得信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파모금원 嚴俊은 군자금 모금 중 동대문경찰서에 체포되었고,⁴⁵⁾ 劉得信도 다음날 세브란스병원 내에 피신 중 체포되었다. 嚴俊은 新興郡 私立永春學校를 卒業 후 역시 신흥무관학교에 입학 중퇴하였고, 劉得信은 培材學堂 졸업 후 柳河縣 孤山子 新興武官學校에 입학하였다가 중퇴하였다.⁴⁶⁾ 엄준(엄우룡)은 王基西, 金鳳源, 尹世柱 등과 함께 1919년 9월 10월에 걸쳐 평양에 잠입하여 독립운동 자금 및 독립군을 모집하기도 하였다.⁴⁷⁾

한편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중국공산당에서 활동한 인물들도 있다. 김훈(양림)과 김산 등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하얼빈에 위치하고 있는 동북열사기념관에서는 김훈을 양림이라는 이름하에 그의 사진을 크게 전시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부인 李秋岳의 항일역사와 그녀가 작곡한 음악도 역시 전시하고 있다. 양림에 대한 역사는 우리 측 기록과⁴⁸⁾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생몰연도를 1898-1936년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운남 강무당 입학시기를 1921년 6월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1925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하여 황포군관학교 교관이 되었으며, 1927년에는 소련에 파견되어 공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1930년에는 중국공산당 만주성위 군사위 서기로 일하였으며, 1932년에는 요녕성 반석현에 이르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고, 1937년 7월에는 江西 중앙변구에서 활동하였으며, 1934년 10월에는 장정 개시 때, 홍군간부단 참모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36년 2월 황하를 건너는 전투를 하던 중 순국하였다고 한다.⁴⁹⁾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만주와 인접한 러시아 연해주지역에서도 활발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許承煥(1893-1938)을 들 수 있다.⁵⁰⁾ 그는 경남 통

44) 『사상정세시찰보고서』1, p.249

45) 엄준 즉, 嚴雨龍의 경우는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6(獨立軍資金募集 5) 김사신문소서(國漢文) 문서제목 嚴雨龍 신문소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46)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36(獨立軍資金募集 5)에 실려 있는 경찰신문소서(國漢文) 문서제목 劉得信 신문소서(1921.1.17)에서 유득신에 살펴볼 수 있다.

47) 『독립운동사자료집』 9, pp.366-367

48) 『大韓民國 獨立有功者 功勳錄』第 12卷, 國家報勳處, 1996年, pp.519~521

49)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양림(楊林)〉이라는 항목하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출생-사망 1901년~1936년, 중국공산당원. 평북 출신. 본명은 김훈이며 양녕, 피스더라고도 불렸다. 1932년 가을, 강서성 중앙소비에트 구역으로 전임된 뒤 1934년 1월에 열린 소비에트 제2차 대표회의에 참가하였다. 그 해 10월 홍군이 장정을 시작할 때 중앙군사위원회 간부단 참모장이 되었고, 1936년 2월 15군단 75사 참모장이 되었다. 1936년 2월 22일 황하를 건너는 작전을 진행하다 북부에 총상을 입고 죽었다.

영 항복 출신으로 1910년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1922년 10월 러시아 군대에 의해 무장해제당한 독립군 부대들을 수습해 고려혁명군을 조직하고 특립대장으로 활동하였으며,⁵¹⁾ 1923년 4월경에는 고려혁명당 결사대장으로 활동하였다.⁵²⁾ 1937년 6월 17일 스탈린에 의해 일본 밀정혐의로 체포되어 동년 6월 29일 총살당하였다.⁵³⁾

신흥무관학교 학생들의 활동으로는 국내에서의 활동도 들 수 있다. 文相直은 신흥학교 군사과를 졸업후 안동현에서 表面 穀物商을 영위하면서 독립운동에 정진하였다. 그는 1919년 8월 곡물상을 폐점하고 신흥학교 학우단에 가입하여 국내 주요 관공서를 폭파하여 독립목적을 달성하려고 1919년 9월18일 대구에 도착하여 동지인 同地 徐榮均 宋貞得과 협의하고 폭탄을 제조하려다 체포되었다.⁵⁴⁾

다음으로는 申亨燮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만주에서 활동 후 국내에 파견된 대한통의부 특파원들을 지원하였다.⁵⁵⁾ 고등경찰요사에는 <24. 申亨燮 사건>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본적 : 경북 영천군 영천면 교촌동 18

주소 : 중국 奉天省 開原 역전

신형섭(28세)

위의 자는 前 폭도들의 수괴 申東曄의 장남인데, 항상 조국의 광복을 몽상하여 1918년 3월 가족동반으로 중국 奉天 開原縣 清河溝에 이주하였다. 때마침 그곳 지방의 불령조선인 등에 의해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가 설립되자, 거기에 입학하여 1919년 12월에 졸업하자 곧 북만주군정서 소속으로 불령운동에 종사하던 중 그 단체가 해산됨에 따라, 1923년 5월경 조선에 돌아와 대구부 시장 북쪽 거리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다. 그 후 다시 만주로 건너갔다가 그해 10월경 또다시 조선에 돌아온 것을, 본도 경찰부에서 발견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그자는 그해 5월 조선에 와있을 당시에, 군자금 모집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대한통의부 특파원 李東健으로부터 자동권총 3정·실탄 100발과 군자금수령서 등의 은닉을 부탁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택의 한 방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다. 다음달 6

50) 허승환에 대하여는 불령단관계잡건 재시베리아부와 이인섭수기류(독립기념관 소장)에 다수 언급되고 있다.

51) 불령단관계잡건-재시베리아부, 서노령에서 고려혁명군의 해산에 관한 건(하일빈 총영사관, 1924.11.9)

52) 동아일보, 1923년 4월 25일자

53) 러시아 삼일문화원, 『스탈린시대(1934-1938년) 정치탄압 고려인 희생자들』9, p.241

54) 『고등경찰요사』<44. 암살음모단 사건>

55) 『고등경찰요사』 신형섭사건

월 상순경, 역시 대한통의부 특파원이고 전에 무관학교 재학 중의 동창생이며 본적이 본도 안동군 남후면 수상동인 李宜雨 곧 李德淑(이동건의 부하이교 영덕군 창수蒼水사건의 범인으로 1923년 9월에 체포되어 신병은 이미 송치하였다)이 찾아왔다. 그리하여 이동건이 몰래 맡겨둔 권총과 실탄을 이덕숙에게 주고 그들의 자금모집 모의에 관여하는 등 여러 가지 편익을 도모한 것이 판명되어, 1924년 12월 19일 총포·화약류 단속령 위반으로 이 사건을 검사국에 송치하였다.

金成國은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다 대구에서 체포되었다. 평양에서 출생한 김성국은 5살 때부터 서간도에 거주하던 중 19세에 신흥강습소를 졸업하였다. 그 후 그는 만주와 러시아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중 1920년 10월 일제의 간도 토벌로 신흥무관학교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1921년 11월 말일 경 평양에 도착하여 동지로부터 미국식 권총을 마련하였다. 이후 그는 서울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대구로 가 활동 영역을 넓히고자 하다가 대구검사국에 체포되어 징역 3년에 처해졌다.⁵⁶⁾

이외에도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국내에 잠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권원하, 김종엽 등은 신흥학교 출신으로 경북 칠곡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⁵⁷⁾ 이시영, 지청천, 이범석 등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및 교관으로 활동한 인물들은 대한민국정부의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였다. 이들 외에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로서 해방 후 대한민국정부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金勳은 1901년 경기도 富川郡 蘇萊面 桂壽里 출생이다. 그의 학력을 보면, 평안북도 乾中農蠶學校 졸업, 柳河縣 신흥무관학교 졸업, 켄터키주 애스베리대학 예과 졸업, 시카고시 크레인그대학 경제학과 졸업, 桑港市 南美監理教役者 지도강습 수료로 되어 있다. 해방 전 중국·인도·프랑스를 경유 도미, 시카고西北大學 토지경제연구실에서 도시 및 농촌토지이용학을 연구하고, 시카고 한인학생회 회장, 시카고市에서 무역회사 중역, 桑港市 東洋茶都賣會社 전무를 역임하였다. 1934년 귀국, 1934년 만주 안동에서 곡물가공회사 상무, 제2차 세계대전 후 고향에서 과수원을 하였으며, 해방 후 상공부 장관, 대한석탄공사 총재를 역임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방 후 農商部 행정과장, 韓美協會 이사 및 英語學校 교장, 美 軍정청 農務部 차장, 遣美教育使節團으로 6개월간 농업상업방면 기술원·공장·시험장 등을 견학하였다. 1947년 軍政長官 輔佐官, 1948년 8월 기획처 차장, 1949년 기획처장, 1950년 상공부 장관(국무위원), 1952년 대한석탄공사 총재, 1953년 시드니 총령사, 1957년 필리핀주재 전권대

56) 김성국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1921년 7월 18일 <간도사관학교를 출한 김성국은 濔逮捕>

57) 『고등경찰요사』<무관학교 학생모집사건>

사, 1958년 필리핀주재 특명전권대사를 역임하였다.⁵⁸⁾

裴憲은 1896년 전라북도 裡里府 珠峴洞 출생이다. 그는 1913년 만주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였다. 다년 상업에 종사하였으며, 商工會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부회장, 裡里府廳 고문, 裡里中學院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1948년 제헌의원(지역구 전라북도 裡里市, 소속정당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 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국민당으로 입후보했으나 낙선되었다.⁵⁹⁾

해방 후 북한에서 활동한 인물도 있다. 미군정에서 조사한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요 지도자들의 간단한 개인 이력>에 보면 성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름 : 성주식(JOO-SIK SUNG, JOO-SIK SIRNG, Söng Chu-Sik, Söng Chusik)

나이 : 56세

원 주소 : 온양, 충청남도

교육 : 만주에 있는 한국독립군 양성기관인 신흥무관학교를 1910년 졸업

정치이력 : 1919년 한국의 자유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 위해 상해 남부로 이주. 1935년 조선민족혁명당을 조직하고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이 됨

현재 지위 :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회 위원⁶⁰⁾

즉, 성주식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것이다. 그는 8·15해방 후 귀국하여 1945년 8월 반일운동지원회 위원장이 되었다. 김원봉과 함께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 노력했으나 결렬되자 임시정부 중심의 비상국민대회에서 탈퇴하여 1946년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가했다.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직부 책임자를 지냈으며, 1947년 5월 조선민족혁명당의 후신인 인민공화당의 중앙부위원장이 되었다. 그 뒤 북한으로 가서 1948년 8월 실시된 선거에서 제1기 최고인민회의의 남한대표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으며, 9월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1949년 6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이 되었으며, 1957년 8월에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함남 신창), 9월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에 재선되었다. 1959년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¹⁾

5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김훈

5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배헌

60) 국사편찬위원회, 『대한민국임시정부자료집』 26, 2008

6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근현대인물자료, 성주식

결어

신흥무관학교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중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표적인 인물들은 알려져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있다. 필자는 이에 주목하여 임필동, 김창환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았다. 임필동은 수원지역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만주로 망명하여 부민단, 양성중학교 등에서 활동하였고, 김창환은 1910년대 어려운 가운데 윤기섭과 함께 신흥무관학교를 이끌어간 대표적인 군사지도자였다. 한편 김경천의 수기인 『경천아일록』을 통하여 3.1운동이후 신흥무관학교의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고구려 무덤 등이 있던 주변 환경, 일본육사출신인 김경천이 보고 느낀 한국독립운동의 산실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감회 등이 그것이다.

신흥무관학교는 3천여 명이나 되는 독립군과 학교 교사 등 다양한 민족독립운동가를 배출하였다. 이들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만주지역이었다. 졸업 후 신흥학우단, 서로군정서 등이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서간도지역에만 그치지 않고 북간도에 있는 북로군정서에서도 활동하였다. 특히 북로군정서에는 교관으로 다수의 인물이 파견되어 독립군 양성에 기여하였다. 중국본토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광복군, 의열단 등에서 활동하였으며, 러시아 연해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하였고, 국내에 파견되어 군자금 모금 활동도 전개하였다. 한편 이념적으로는 사회주의 계열에 참여한 인물들도 있었다.

제2주제

신흥무관학교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한용원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1. 서론

신민회(新民會)는 1907년 4월 20일경 양기탁, 이동휘, 전덕기, 이동녕, 이갑, 유동열, 안창호 등 7명이 극비리에 회합하여 비밀결사로서 성립을 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민회를 창립한 세력들은 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한 집단(양기탁, 박은식, 신채호, 임채정 등), ② 상동교회와 그 부설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전덕기, 이동녕, 이회영, 이준, 김병헌, 김구, 김진호, 이용태 등), ③ 무관출신집단(이동휘, 이갑, 유동열, 노백린, 조성환, 김희선 등), ④ 평안도 일대의 상인·실업인 집단(이승훈, 안태국 등), ⑤ 미국에서 활동하던 공립협회집단(안창호, 이강, 정재관, 임준기, 김성무 등) 등으로 분류하는 경향이다.¹⁾

신민회는 1909년 봄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 장교를 양성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기 전인 1909년 10월 16일 안중근의 이토 격살사건이 일어나 안창호를 비롯한 다수의 신민회 간부들이 일제의 헌병대에 구금되었다가 1910년 2월 석방되었다. 이에 석방된 신민회의 간부들은 1910년 3월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첫째, ‘독립전쟁전략’을 최고전략으로 채택하였고, 둘째, 국외에 ‘독립운동기지’와 그 핵심체로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셋째, 일제헌병대에 구속되었던 간부들은 원칙적으로 국외에 망명하여 이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넷째, 국내에 남은 간부들과 회원들은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종래의 구국계몽운동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²⁾

신민회는 ‘독립전쟁전략’을 실시하기 위한 최적지로서 유하현 삼원보(三源堡)를 선정하여 이

1) 국가보훈처, 「100년만의 만남 신흥무관학교」(2011), P.9

2) 같은 책, P.13

회영, 이상룡, 이동녕 등 민족지도자들과 각도에서 자원한 100여 호가 1910년 12월부터 1911년 초에 이르기까지 이곳으로 이주하여 신한촌(新韓村)을 건설토록 하였다. 그 결과 1911년 4월 교민자치단체인 경학사(耕學社)가 조직되고, 6월에는 그 산하에 사관양성기관인 신흥강습소가 창설되었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와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벌여 그 역량을 소진시키기보다는 독립군으로서 기본역량을 배양하는 데 치중하는 독립전쟁전략을 구체화시켰을 뿐 아니라 1920년 8월 폐교될 때까지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무관을 양성하여 3,500여 명을 배출하였다. 그러면 이제 무관출신집단에서 어떤 인물들이 신흥무관학교에 참여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민회가 결성될 때 독립전쟁전략을 최고의 전략으로 채택하여 무관의 양성에 진력해 왔기 때문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며 신민회의 핵심 회원이었던 노백린, 이갑, 이동휘, 유동열, 조성환, 김희선 등이 독립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하게 된 것은 당연지사야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독립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했던 이들은 대체로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장교 내지 생도로서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자들인 것이다.

이에 반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의 경우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정규군과 같은 독립군을 양성하고, 이들을 지휘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진력하였다. 그리고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의 지도하에 성장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1920년 10월 청산리전투 후로부터 독립군을 관장하고 독립전쟁을 주도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은 독립군을 있게 한 원동력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독립전쟁을 주도한 원동력을 제공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군의 연원을 반독립투쟁전선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욱이 우리 선대의 국군은 50년간에 걸친 지속적인 무장투쟁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즉 일제가 대한제국 국군을 해산시키려고 하자 우리 선대의 국군은 이를 거부하고 군권(軍權)을 보유한 채 의병으로 변신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50년간에 걸친 무장투쟁과정에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활동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물론 중국의 군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도 포함시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계화에 제기되는 문제의 극복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한다. 그러나 국군의 정통성이 역사의 단절론이나 경비대 모체론에 휘둘러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매우 유감된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극복 노력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2. 대한제국의 무관양성

조선왕조는 신식군대의 육성을 위해 1887년 12월에 최초의 장교양성소라고 할 연무공원(鍊武公院)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연무교관(鍊武教官)은 청·일·러의 교관을 배제시키고 제3국인인 미국인 다이준장, 커민스대령, 닐스벳트대령, 리소령 등을 1888년 2월에 초빙하여 활용하였다. 그러나 일본이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군제개혁을 주문함에 따라 김홍집의 친일내각은 일본공사관 무관 구스노세중좌를 교관으로 초빙하여 1895년 신식군대인 훈련대를 조직하였다. 이에 명성왕후 측은 훈련대를 견제하기 위해 왕궁을 호위할 시위대를 창설하면서 미국인 교관을 활용하였다.

고종은 열강의 위협으로 국기(國基)가 위협받게 되면서 1896년 1월 11일 무관양성기관의 설치를 위한 ‘무관학교관제’(칙령 제2호)를 반포하였다. 무관학교의 설치 목적, 구성, 운영방법 등을 명시한 무관학교관제에 의하면 교장은 군부대신에 예속케 하여 지휘체계를 갖추고, 18명의 직원과 약간 명의 통역관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관제를 반포한지 1개월 뒤인 2월 11일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으로 옮긴 아관파천의 정변이 발생하여 무관학교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 채 유명무실해졌다. 이처럼 초기에 무관학교가 정변으로 인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가 1898년 4월 1일 군부대신 이종건이 무관학교 부활문제를 고종에게 건의하여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 개정된 무관학교관제가 5월 14일 칙령 제11호로 반포됨으로써 무관학교는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안은 전에 반포한 무관학교관제와 비교하여 응시연령이 하향조정되고, 교관과 조교를 약간 명씩 증가시켜 교장이 20명의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안에 의해 학도의 모집이 시행되어 1898년 6월에 200명 모집인원에 1,700여명이 지원하여 8.5대 1의 경쟁률을 시현하였으며, 선발된 200명의 학도들은 7월 초에 입학시켜 1년 6개월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³⁾ 이렇게 교육·훈련을 수료한 무관학교 생도들은 1900년 1월 19일 장연창(張然昌) 등 128명이 무관학교 제1회 졸업시험을 통과하여 참위(參尉)로 임관하였다. 무관학교 제1회 졸업생이 배출되자 정부는 1900년 3월 27일 칙령 제12호로 「무관 및 사법관 임용규칙」을 발표하여 제도적 뒷받침을 했는데, 동 규칙에 의하면 대한제국의 무관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무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원수부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가능하였다.

당시 육군무관학교는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나 재정의 부족으로 인해서 50여 명의

3) 김삼웅,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와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2011), P.14

사비교육생을 입교시키는 등 편법을 동원하였다. 이처럼 무관학교는 존폐의 곡절을 거듭하면서 이후 500여명의 장교를 배출하여 대한제국의 군사력 향상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변모되자 일부는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에 투신하여 그 선봉이 되었다.⁴⁾ 한편 갑오경장을 계기로 군부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성근, 성창기 등 조선무관 11명을 일본육군사관학교 특별과정에 입학할 허용했던 일본정부는 육사정규과정에도 1898년부터 조선무관들의 입학할 허용하였다.

일본육사 정규과정에는 1898년 12월 1일 어담(魚潭), 노백린(盧伯麟) 등 21명이 제11기생으로, 1902년 12월 1일 김응선(金應善), 이갑(李甲) 등 8명이 제15기생으로 각각 입교하였다⁵⁾. 제11기생은 어담, 노백린, 윤치성, 강용구, 김교선, 조택현, 장호익, 권승록, 김규복, 김상설, 권호선, 김관현, 김성은, 김희선, 방영주, 이기옥, 김형섭, 김홍남, 김홍진, 임재덕, 장인근 등이 입학하여 1899년 11월에 졸업하였으며, 졸업과 동시 일본의 각 연대에 배속되어 6개월간의 견습사관 생활을 하고 귀국하여 참위 임관장을 받았다. 그 중 노백린, 김형섭 참위는 1901년 4월 무관학교의 보병과 교관에, 어담, 김교선 참위는 포병과 교관에, 김성은은 공병과 교관에, 김희선은 기병과 교관에 각각 임명되어 근대화된 선진국의 군사기술을 전수하였다.⁶⁾

제15기생은 김응선, 이갑, 유동열, 박영철, 박두영, 남기창, 김기원, 전영현 등이 입학하여 1903년 11월에 졸업했으며, 일본에서 6개월간의 견습사관 수업 중 러·일 전쟁이 돌발하자 동경 근위사단을 따라 종군하게 되었다. 그들은 근위사단이 대한제국을 통과할 때 본국 정부로부터 ‘원수부 관전장교’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얻었고, 전선이 만주로 확대되자 여순요새 공방전도 관전하여 근대전에 관한 식견도 넓혔다. 그들은 임관하자 모두 장교양성소인 무관학교에 보직되었는데, 박두영과 박영철은 교관으로, 유동열, 김기원, 김응선, 이갑 등은 학도대구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무관학교로부터 신설된 연성학교와 유년학교에 진출하여 한말 3대 군사교육 기관을 장악하였다.⁷⁾

이러한 상황에서 1904년 9월 일제 측의 강요로 군비축소가 단행될 때 근대교육을 받지 못한 무관들이 군직을 떠남으로써 향후 일본육사출신이 군의 요직에 등용될 전망이 밝아졌는데, 이는 근위사단장이던 하세가와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여 조선주둔군사령관으로 부임해 옴

4) 같은 글, P.16

5)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일조각, 1882), PP.12~17

6) 같은 책, PP.12~13

7) 같은 책, PP.26~27

로써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다. 일본육사출신들은 1904년 군제개혁 때부터 일본군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이는 대부분의 일본육사출신 장교들이 '대세'에 순응하는 길을 택한 데다가 조선주둔 일본군사령부와 일제총독부에서는 일본육사출신들을 군부와 관계(官界)에 중용·활용하였고, 그 결과 조선보병대의 경우 이병무, 조성근, 어담 등은 중장까지, 이희두, 왕유식, 김응선 등은 소장까지 각각 승진했으며, 김관현, 박영철 등은 1920년대에 도지사를 각각 2번씩이나 역임하였다.

그러나 일제에 저항하여 구국활동에 투신한 자들도 있었다. 노백린은 군대해산 직후 무관학교장에 임명되었으나 곧 군직을 박차고 고향인 황해도에 은거하면서 비밀결사 신민회에 관여,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갑과 유동열도 신민회에 관여하였고, 군복을 벗은 다음에는 서북학회(西北學會)를 중심으로 정치·사회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김희선은 한·일간 병합직전 국외로 망명하여 광복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육군 무관학교는 1898년 6월 설치되어 1909년 7월 3일 폐교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면서 630여명의 무관을 양성하였다. 그리고 1907년 8월 1일 군대해산 후에는 일본인 교관과 조교가 군사훈련을 전담하였다. 하지만 역대 무관학교장은 이학균(李學均), 이병무(李秉武), 조성근(趙性根), 노백린, 이희두(李熙斗) 등이었으며, 1907년 8월 군대해산 때 무관학교는 그대로 존속했지만 1909년 7월 명목상의 존재였던 군부가 폐지될 때 무관학교도 폐지되었다.

이 때 대한제국정부와 통감부 사이에는 무관양성을 일본정부 당국에 위임하기로 합의를 보아 폐교 당시의 1·2학년 생도들 가운데 일부를 국비생으로 일본에 유학시키기로 하였고, 이들이 일본육사에 유학하여 제26기생과 제27기생으로 졸업하였다. 이들 유학생들은 일본에 도착하자 동경중앙유년학교 예과 2·3학년생으로 입학하여 상급생은 1912년 5월에, 하급생은 1913년 5월에 각각 동교를 졸업하고, 6개월간의 대부(隊附) 근무를 수료한 연후 사관학교에 진학하였다. 1912년 유년학교를 졸업한 권영한, 김준원, 민덕호, 박승훈, 신태영, 안병범, 염창섭, 유승열, 이대영, 이응준, 조철호, 지석규(지청천), 홍사익 등은 사관후보생으로서 6개월간의 대부근무를 마치고 육사 제26기생으로 진학하여 6개월간 군사학을 공부한 다음 1914년 5월에 졸업하였다.⁸⁾

1913년 유년학교를 졸업한 김석원, 김인옥, 김종식, 김중규, 남우현, 박창하, 백홍석, 서정필, 원용국, 유관희, 윤상필, 이강우, 이동운, 이종혁, 이희검, 장기형, 장석운, 장성식, 장유근, 정훈 등은 사관후보생으로서 6개월간의 대부근무를 수료하고 육사 제27기생으로 진학하

8) 같은 책, PP.22~27

여 1915년 5월 졸업하였다. 그런데 일본육사 제26기와 제27기 유학생들은 ‘한일강제병합’(1910년)에 비분강개하여 전원퇴학하여 귀국하거나 집단자결하여 울분을 표출시키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지식규가 주장한대로 “이왕 군사교육을 배우러 온 것이니 배울 것은 끝까지 배운 다음 장차 중위가 되는 날 일제히 군복을 벗어 던지고 조국 광복을 위해 총필기하자”고 맹세했다고 한다.

‘한일강제병합’에 비분강개한 데다가 3·1운동이 일어나 충격을 줌으로써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장교 중에는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자들이 나왔다. 박승환(朴昇煥) 참령이 군대해산에 대해 자결로 항거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김재흡(金在洽) 정위(正尉)가 의병장으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고, 국외로 망명한 신파군(申八均)은 만주에서 무장독립군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신규식(申奎植)은 임시정부의 법무총장과 외무총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리고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 장교 내지 생도로서 일본육사를 졸업한 제11기 노백린, 김희선, 제15기 이갑, 유동열 등은 항일운동 대열에 참여하여 임정이 수립되자 노백린과 김희선은 군무총장과 군무차장에 추대되고 유동열은 참모총장에 추대되었다. 또한 제26기 지청천, 제27기 이종혁도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약하다가 지청천은 광복군초대사령관을 역임하고, 이종혁은 육군주만참의부 군사위원장으로 활약하였다.

3. 육군무관학교출신 독립운동가들

국내에서 을미·을사·정미 의병을 주도했던 유인석(柳麟錫)은 1908년 약 60명에 달하는 문하생 의병장들을 대동하고 간도로 망명함으로써 국내의병들은 소멸해 가고 간도로 이동한 국외의병들이 새로운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 이들 60여명 가운데는 박정빈, 박장호, 이진룡, 백삼규, 조맹선, 전덕원 등 쟁쟁한 국내의병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이 노령 연해주에 도착하자 연해주의 의병장인 이범윤(李範允), 이상설, 이남기 등의 추천으로 1910년 6월 21일 유인석은 13도창의군 도총재가 되었다. 의병이 독립군의 무장투쟁에 미친 영향은⁹⁾ 첫째, 새로운 활동기지를 만주와 연해주에서 찾았다는 점이다. 1910년을 전후하여 국경을 넘어 만주와 연해주로 이동한 의병부대는 유인석, 이진룡, 조맹선, 차도선 등의 부대였는데, 이들 부대들은 활동기지를 물색하여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9) 한용원, “대한민국국군의 창설과 신흥무관학교의 정통성 계승”, 「신흥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신흥무관학교100주년 기념사업회, 2011), PP.64~66

둘째, 무장투쟁기지의 경영모델을 제시한 점이다. 의병부대는 만주와 연해주 등지에 토지를 개간하여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면서 무기를 구입, 부대를 재정비하여 항일전을 전개하는 기지 경영모델을 만들어 내었다. 셋째, 서간도지방에 민족의 부흥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최초의 주장을 제기한 점이다. 유인석의 의병진에서 서간도지방이 “토지가 풍요로워 한사람이 경작하면 열사람이 먹을 수 있고, 1년을 경작하면 3~4년을 먹을 수 있는 곳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넷째, 신흥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교관들은 대부분 의병활동을 통해 전투경험을 한 바 있기 때문에 무관후보생들에게 독립투쟁정신의 진수를 전수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신흥무관학교출신들은 학교가 지정한 임무에 따라 2년간 독립군에 복무하면서 전투 유경험 지도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독립투쟁정신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

다섯째, 북천대장정을 통해 국내의병으로부터 연해주와 간도지방으로 이전한 국외의병들은 국내의 비밀결사 신민회가 1910년을 전후하여 서간도로 집단망명, 독립군기지를 설치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뒷받침해주었다. 우리 민족은 1895년 을미사변으로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의병 20년, 독립군 25년, 광복군 5년 등 50년간에 걸쳐 독립운동을 전개했는데, 이 같은 반세기에 걸친 독립운동사가 그 운동형태와 지도이념은 다양했으나 운동 속에는 일관된 정신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선대들의 자주독립주의와 독립전쟁주의에 바탕을 둔 독립투쟁정신이었던 것이다.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국군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민군만이 항일의병전쟁을 수행하였고, 따라서 일본과 한국의 국제간 전쟁이었다기보다는 일종의 국민전쟁의 성격도 있었다. 그러나 정미의병은 대한제국의 국군병사들이 일제의 군대해산에 반대하고 의병으로 변신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국가와 국가, 일본군과 한국군의 전쟁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이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우리 민족은 일제에 저항하는 국권회복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고, 이 운동은 의병활동과 구국계몽운동의 양면에서 추진하되,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다시 말하면 독립운동기지 건설전략은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독립군을 양성했다가 일본제국주의가 더욱 팽창하여 중국, 러시아, 미국 등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들과 함께 대일전쟁을 감행하여 우리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방략(方略)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 회영은 1908년 여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상설을 만나 독립운동의 방략으로 ① 지사들을 규합하여 국민교육을 장려하고, ② 만주에서 광복군을 양성하며, ③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④ 운동자금을 준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군기지 건설전략은 1908

년 경 부터 이상설·이회영 등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이회영은 1908년부터 대한제국의 육군장교인 김형선, 이관직, 윤태훈 등과 만주에서 독립군을 양성할 문제에 관해 수차에 걸쳐 논의하였고, 1910년 봄에는 박노호 및 윤태호와 의병장인 이기영, 성재구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장유순, 이관직, 이관식 등과 동지를 모우는 일에 관해 상의하였다. 그리고 그는 신민회의 비밀간부회의에서 1910년 말 독립운동방략의 결정에 이어 독립군기지를 유하현 삼원포에 설치키로 함에 따라 김형선, 이장녕, 이관직 등 대한제국 육군장교들과 함께 서간도에 왔고, 그들은 무관양성을 위해 처음에 교관으로서 신흥무관학교에서 생도들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신흥무관학교와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교관들은 대부분 의병활동을 통해 전투경험을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무관후보생들에게 독립투쟁정신의 진수를 전수하는데 적격자들이었다. 이장녕, 김창환, 이관직 등은 전투유경험자로서 군사교육 교관으로 적임자였으며, 이세영(李世榮 또는 李天民)은 홍주의병을 일으킨 장본인인 데다가 관찰사 이승우의 계략에 의해 실패를 경험하고 재기한 바 있어 신흥무관학교 교장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의병활동과 더불어 독립군의 주요 간부로 활약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은 많았다. 이들 중에서 일본육군사관학교 출신 노백린(11기), 김희선(11기), 이갑(15기), 유동열(15기), 김정천(23기), 지청천(26기), 이종혁(27기) 등을 제외시킨 현황은 도표1과 같다.

도표1 :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독립군 주요간부

| 성명 | 계급 | 성명 | 계급 | 성명 | 계급 |
|-----|----|-----|----|-----|----|
| 이동휘 | 참령 | 김창환 | 부위 | 조성환 | 참위 |
| 박영희 | 정위 | 황학수 | 부위 | 김찬수 | 참위 |
| 신팔균 | 정위 | 박형식 | 부위 | 신규식 | 참위 |
| 안 무 | 정위 | 이 탁 | 부위 | 김규식 | 참위 |
| 윤기섭 | 부위 | 여 준 | 부위 | 김좌진 | 참위 |

한편 1920년 이후 무장독립투쟁은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의병활동으로 전투경험을 쌓은 대한제국 육군장교 출신이나 중국에서 사관교육을 받은 군사경력자들의 지도를 받았다. 신흥무관학교 출신 오상세, 백종열 등의 경우 신흥무관학교에서 교관으로 복무하다가 김좌진장군이 대한군정서를 편성할 때에 중군장교 내지 중대장으로 발탁되었고, 그 후 1920년대에는 중대장급으로서, 1925년대에는 대대장급으로서, 1930년

10)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역사비평사, 1988), P.41

대에는 연대장급으로서 복무하였다. 그리고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광복군을 창설하자 독립군은 광복군에 편입되어 임정 산하의 통합된 국군이 되었는데, 독립군 출신 광복군 주요간부의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계성은 도표2와 같다.

도표2 : 독립군 출신 광복군 주요간부의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계성

| 성명 | 광복군에서의 직책 | 신흥무관학교와의 연계성 | 비고 |
|-----|---------------|--------------|--------|
| 유동열 | 참모총장 겸 통수부원 | 임정국무위원 | 임정군사위원 |
| 지칭천 | 총사령관 겸 군사외교단장 | 신흥무관학교 교성대장 | 임정군사위원 |
| 이법석 | 참모장, 제2지대장 | 신흥무관학교 교관 | 임정군사위원 |
| 김원봉 | 부사령관, 제1지대장 | 신흥무관학교 졸업 | |
| 권 준 | 제1지대장, 고급참모 | 신흥무관학교 졸업 | |
| 채원개 | 작전처장, 제1지대장 | 낙양강무당출신 | |
| 이준식 | 제1지대장, 고급참모 | 운남강무당출신 | |
| 조경한 | 정훈처장, 주계장 | | 임정군사위원 |
| 김학규 | 고급참모, 제3지대장 | 신흥무관학교 졸업 | 임정군사위원 |
| 황학수 | 참모장대리, 부관처장 | 신민부 외교부 위원장 | |
| 김홍일 | 참모장 | 귀주강무당출신 | |
| 송호성 | 편련처장, 제1지대장 | 신흥무관학교 졸업 | |
| 윤기섭 | 고급참모, 부관처장 | 신흥무관학교 교감 | |
| 오광선 | 국내지대사령관 | 신흥무관학교 교관 | |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는 1898년 6월 설치되어 1909년 7월 폐교될 때까지 11년간 존속하면서 630여명의 무관을 양성하였다. 이들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중 이세영, 이관직, 이장녕, 김창환, 양성환(梁性煥) 등은 신흥무관학교와 연계성이 매우 깊었을 뿐만 아니라 독립군의 주요간부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이광조(李光祖)와 함께 서웅(徐雄), 성준용, 김흥(金興), 이극(李勣) 등도 신흥무관학교 군사과(속성과)를 이수하고 신흥무관학교 교관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신흥강습소의 기본교육과정은 이세영, 이관직, 이장녕, 김창환 등 주무교관이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의 그것에 준하는 것이었다.

4. 신흥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신흥강습소의 초대 교장에는 이동녕, 교감 김달, 학감 윤기섭, 교관 김창환, 이장녕, 이관직, 교사에 이갑수, 장도순, 이규룡 등이 취임하여 교관들은 대체로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형성하였다.¹¹⁾ 따라서 신흥강습소에서 실시한 무관교육은 육군무관학교의 체제를 따랐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학사가 경영난에 봉착하였다. 1911년 가을농사가 대흉작으로 재정난이 겹치고 신민회에서 보내기로 한 자금 75만원도 105인 사건으로 오지 않아 경학사는 모든 사무를 폐지하고 신흥학교만 남겨 교육사업에 전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신흥강습소를 떠나고 김창환, 윤기섭 등이 남아 학교유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인 가운데 1912년 여준, 이탁 등을 중심으로 신흥학교유지회가 조직되면서 어느 정도 재정을 충당할 수 있었다.

이에 망명지사들이 합니하로 이주하여 이곳을 제2의 독립운동기지로 삼으면서 학교명칭을 신흥학교로 바꾸고 1913년 5월 새로운 교사를 신축하였다. 합니하 신흥학교 초대교장에는 서전서숙과 오산학교 교사를 역임한 여준이 추대되었고, 교감에는 보성학교 출신으로 오산학교 교사를 지낸 윤기섭, 학감에는 신흥강습소 출신의 이광조, 군사교관으로 무관학교 출신의 김창환을 비롯하여 신흥강습소 출신의 성준용, 이극 등을 발탁하였다. 그러므로 신흥학교의 교관은 이관직, 이장녕, 김창환, 양성환 등 대한제국 무관학교 출신과 성준용, 김흥, 이극, 서웅, 이규봉 등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유사한 비율로 혼재하게 되었다.¹²⁾

나아가 신흥학교에는 교육과정으로 본과와 특별과를 두었다. 본과는 4년제의 중학교정이고, 특별과는 3개월 혹은 6개월 기간의 무관을 양성하기 위한 속성과였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후 신흥학교에서는 국내에서 대거 망명해오는 청장년들을 수용하기 위해 신흥무관학교를 확대·개편해야 했다. 이에 신흥무관학교 본부(본교)를 고산자 부근의 하동(河東) 대두자로 옮기고, 합니하 신흥무관학교는 분교로 두어 김창환이 교장직을 맡아보게 하였다. 그리고 군정부(軍政府)의 본부도 하동 대두자에 두었으며, 얼마 후 쾌대무자에 신흥무관학교 분교를 두었다. 그 밖의 지방에서도 결사대 조직 등의 목적으로 17~30세 남자들을 모집하여 약 3개월의 속성군사교육을 시키는 교육장도 생겨났다.

유하현 고산자 하동의 대두자 마을의 언덕에 40여 칸의 병사를 짓고 그 아래 평지에 연병장을 설치하고 있을 때 일본군에 중위로 있던 지청천이 김경천(일본육사 제23기 김광서)과 함께 합니하에 있는 서로군정서로 찾아왔다. 이에 힘을 얻은 서로군정서에서는 신흥중학을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고, 1919년 5월 3일(음력) 정식 사관학교로 개교식까지 거행하였다. 이후 신흥무관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1개기의 학생 수가 600여명에 달하는 전성기

11) 국가보훈처, 앞의 책, P.33

12) 같은 책, P.36

를 누리기도 하였다. 이에 신흥무관학교에서는 고산자에 2년제의 고등군사반을 두어 고급간부를 양성코자 하였고, 통화현 합니하, 칠도구 쾌대무자 등에 분교를 두고 초등군사반을 두어 3개월간의 일반훈련과 6개월간의 간부후보훈련을 담당케 하였다.

더욱이 서간도로 모여드는 청장년들은 대체로 무관양성에 제1의 목표를 두었다. 실례로 김학규는 중학과정(4년)을 다 마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6개월 수준의 속성과를 택했다고 한다. 그리고 채찬(白光雲)은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활동을 했던 자로서 현대식 군사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단기교육을 하는 군사과를 택했다고 한다. 이처럼 신흥무관학교에서는 단지 본과와 속성과 또는 군사과를 통해서 인재를 배출한 것만이 아니었다. 신흥무관학교의 인재 배출방식은 ① 본과와 속성과 내지 군사과를 통해서 인재를 배출하는 것과 ② 신흥학우단이 조직되어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는 양대방식이 있었다.¹³⁾

1910년대 및 그 후에 신흥무관학교의 명성이 지속된 것은 신흥학우단이 조직되어 독립운동 인재를 계속 육성했기 때문이었다. 신흥학우단은 신흥학교 졸업생과 재학생으로 조직된 강력한 혁명결사로서 동교 졸업생이 정단원이 되고 재교생이 준단원이 되었다.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은 무관교육을 필한 후 독립을 위하여 즉각 싸울 수 있는 방도가 없다는 것에 고심하고 실의에 빠지기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신흥학우단에서 백서농장(白西農場)이라는 군영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독립을 향한 찌를 듯 한 강열한 의지를 소화(消化)·조절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거기에는 독립전쟁을 벌일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통분과 비운이 서려있기도 했던 것이다. 백서농장사(白西農場史)에 의하면 1915년에 이 농장에 들어온 사람은 385명으로서 대부분이 신흥무관학교 제1회로부터 제4회에 이르기까지의 졸업자이지만 신흥학교 분·지교 졸업자와 노동강습회 이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백서농장은 역할을 분담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교육과 훈련은 훈독의 감독 하에서 시행하고, 작업과 농사일은 장주의 전관 하에 농감(農監)의 지휘를 받았으며, 4년 동안에 걸쳐 간난신고를 겪는 특별한 경험을 하였다. 이는 마치 만리장정을 치러 낸 중국의 홍군(紅軍)처럼 군인집단이 인간으로서 견뎌내기 어려운 극한사항을 경험케 한 것이었다.

백서농장에서는 장주에 김동삼, 훈독에 양규열, 총무에 김정제, 의무감에 김환, 경리에 김자순 등 부민단 계열인사들이 지도부를 담당토록 편성하였고, 그 외 농감 채찬(白光雲), 교관 허식, 김영운, 김동식, 강보형, 교도대장 이근호, 1중대장 안상목, 2중대장 박상훈, 3중대장

13) 서중석, 앞의 책, P.132

김경달, 규율대장 신용관 등은 모두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로 편성하였다. 주지하듯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독립군에 편성되어 무장투쟁을 전개하거나 지방에 파견되어 2년간의 무적으로 교편생활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독립군에서 중견역할을 하기 위해 백서농장이라는 병농학교(兵農學校)에 들어와 부민단 내지 한족회에 적구가 침입하는 것을 막아내는 자위조직으로까지 기능하였다.

더욱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은 무장투쟁 뿐 아니라 의열투쟁에도 참가하였다. 단장 김원봉을 비롯하여 강세구, 권준, 김옥, 박태열, 배중세, 서상락, 신철휴, 윤보한, 이성우, 이종암, 이해영, 최윤동, 한봉근, 한봉인, 윤세주 등이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이다.¹⁴⁾ 그리고 왕기서, 권원하, 김종엽 등은 신흥무관학교 출신들로서 서울·평양 등지에 잠입하여 군자금 모금과 독립군 모집활동을 전개하였다. 나아가 백서농장의 농감 채찬과 규율대장 신용관(신광재) 지휘하의 서로군정서 제1중대 소속 신흥학교 출신들은 1921년 초부터 보민회, 조신인민회 등 친일단체들을 척출하고 독립운동의 기반을 재건하는데 힘썼다.

한편 1919년 3·1운동은 서간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독립을 향한 찌를 듯한 강열한 의지를 소화·조절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백서농장을 폐지하도록 만들었다. 부민단의 뒤를 이어 조직된 한족회 총회에서는 백서농장이 교통이 불편하여 일체 운수(運輸), 내왕하기가 어렵고 수토(水土)가 부적합함으로 폐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고산자의 신흥무관학교는 체계가 잡힌 바탕위에서 1920년 이후 독립전쟁을 수행할 역군들을 양성하였다. 고산자 신흥무관학교의 초대 학장에는 이시영, 교장에는 이세영, 부교장에 양규열, 학감에 윤기섭, 훈련감에 김창환, 교성대장에 지청천, 교관에 오광선, 신팔균, 이범석, 김경천, 성준용, 원병상, 박장섭, 김성로, 계응보 등이 활동하였다.¹⁵⁾ 그리고 합니하 분교의 교장은 이장녕이 맡았으며, 학도대장은 성준용이 맡았다.

5. 일본육사출신 독립운동가들

1895년 개혁정부의 국비생으로 뽑혀 도일한 유학생 중 노백린, 어담 등 21명은 경응의숙 → 성성(成城)학교를 거쳐 1898년 일본육사에 입교하여 이듬해 11월 일본육사 11기생으로 졸업

14) 국가보훈처, 앞의 책, P.47

15) 같은 책, P.42

할 예정이었으나 황제의 아관파천으로 인해 유학생들의 관비(官費) 지급이 중단되었다. 이에 유학생들은 정부와의 교섭 대표 6명을 뽑아 귀국시켰으나 성과가 없는 가운데 일본에 잔류자들이 유길준과 접촉하면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비밀결사 혁명일심회(革命一心會)를 결성하였다. 그러나 일심회 동지들 가운데 밀고자가 있어 정부 측에서는 사형선고를 내렸다.

따라서 조택현, 장호익, 김홍진 등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김형섭, 김희선, 김교선, 방영주 등은 주한 일본군사령부 참모장 사이토중좌의 구명운동으로 처형 일보 직전에서 종신유형으로 감형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귀양생활 1년만인 1905년 5월 한국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대장의 특별사면을 받고 10월에 참위로 복직하였다. 혁명일심회사건 때문인지 대부분의 일본육사출신들은 ‘대세’에 순응하였고, 일제의 총독정치는 일본육사출신에 대해 배려적·비호적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정부의 국비생 또는 사비생으로 독일 유학한 이갑, 김웅선 등은 1903년 11월에 육사15기생으로 졸업하게 됨에 따라 각광받던 8형제배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8형제배들은 그들의 유대와 단결을 한층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일심회의 예를 따라 비밀결사 효충회(效忠會)를 결성하였는데, 마침 일제가 고종으로 하여금 순종에게 양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고종황제의 시종무관이던 어담정령과 군부교육과장이던 이갑참령이 황제양위의 저지를 위한 대신격살음모를 꾸몄다. 이는 이갑이 효충회 동지들과 논의한 결과 양위를 저지시키는 유일한 길은 양위식에 참석할 모든 대신들을 암살하는 길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7월 20일 어전회의를 열어 국왕의 양위에 각 대신이 서명할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효충회에서는 각 대신들을 설득하는 노력부터 해보고 그것이 실패하면 군사적 저항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므로 교육국장인 노백린은 이희두 군무국장과 조성근 참모국장 등 국장들을 설득하여 군부 내의 분위기를 확립하고, 박영철은 송병준과 조중응을 찾아가 양위를 반대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이갑은 이완용과 이병무를 찾아가 설득기로 하였다.¹⁶⁾ 그리고 이러한 설득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임재덕이 지휘하는 제1연대 제3대대가 무력시위를 벌이기로 하였다. 나아가 이갑은 시위대의 전 부대를 동원하기 위해 군무국장 이희두를 설득할 준비도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무력봉기계획은 7월 19일 밤 친일대신들이 일본인가(街)의 왜성(倭城) 구락부나 혹은 통감부 관사로 몸을 피했기 때문에 실패하였고, 군부의 모 간부가 이갑 등의 음모를 헌병대에 밀고한 관계로 이희두, 어담, 이갑, 임재덕은 체포되고 말았기 때문에 실패하였다.

16) 이기동, 앞의 책, P.163

이갑은 육군감옥에서 8월 23일 방면되자 황제양위보다도 엄청난 군대해산 조치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주둔 일본군사령부는 군대해산 과정을 통해 한국군대가 일본의 대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잠재적인 저지세력이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갑은 감옥에서 풀려나 참령에 복직되었으나 1908년 5월 14일 군부를 떠났다. 그러나 그가 군부대신의 부관으로 있던 1906년 10월 平安道와 황해도 지명인사들을 중심으로 서우학회(西友學會)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서우학회는 함경도 인사들로 조직된 한북흥학회(漢北興學會)와 합병 논의가 1907년 5월부터 일기 시작하여 1908년 1월 3일 서북학회(西北學會)로 통합되었다.

서북학회는 한국이 일제에 병합되어 강제로 해산될 때까지 가장 유력한 애국계몽운동단체가 되어 송병준·이용구가 이끄는 친일단체 일진회(一進會)와 맞서는 단체로 부각되었으며, 이는 이갑이 1910년 3월 망명길에 오를 때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국권회복을 위해 신민회 조직을 지도하고, 국민의 정치적 계몽을 위해 서북학회를 조직했으며, 교육구국의 이념 하에 국민교육운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동경의 제1사단에서는 육사26기 홍사의 및 이응준과 27기 윤상필 그리고 23기 김광서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친목단체를 만들고자 합의가 이루어져 1916년 12월 전의회(全誼會)가 조직되었다. 전의회는 일심회와 효충회를 계승하고, 1930년대로부터 1940년대에 이르는 계림회의 전신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생도들의 우상이었던 노백린이 무관학교장직을 사임하고 군부를 떠나자 생도들은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육군사관학교를 지망한 한국인 생도들은 장차 우리나라 군대가 발족할 경우 기술병과 출신자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준비론의 차원에서 기술병과를 지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에 논자는 일본육사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항일활동사항을 도표3과 같이 살펴보았다.

도표3 : 일본육사출신 독립운동가

| 성명 | 항일활동 | 비고 |
|---------------------------------|--|---|
| 노백린 (1875~1926) (육사 제11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장 역임 · 군직을 박차고 고향에 은거하면서 비밀결사 신민회에 관여, 구국활동 전개 ·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총장 및 국무총리 추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0년에 비행사 양성 |
| 김희선 (1879년생) (육사 제11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병합직전 국외로 망명 광복운동 전개 · 임정군무차장으로 추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세가와 대장 특별사면 |

| | | |
|---------------------------------|---|-------------------|
| 이갑 (1877~1917) (육사 제15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 군부과장 역임 (참령 역임) · 한말 애국계몽운동의 일선에서 활약 · 한·일합방 후 노령에서 독립운동 종사 | · 이응준의 岳父 |
| 유동열 (1879년생) (육사 제15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 군부과장 역임 (참령 역임) · 대한민국 임시정부 참모총장에 추대 · 미군정 하에서 통위부장 역임 | · 한국전쟁시 拉北 |
| 김광서 (1887년생) (육사 제23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제국 군기창장 이정우의 아들 · 중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청천과 만주로 망명 · 만주·시베리아에서 독립운동 전개 (해삼위에서 한족군인 구락부조직, 1937년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 | · 김현충 (일명 김경천) |
| 지청천 (1888~1957) (육사 제26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김경천과 만주로 망명 · 만주·시베리아·중국 내지에서 독립운동에 종사 · 1940년 임정의 광복군총사령관에 취임 · 제헌국회의원·초대무임소장관·제2대 국회의원 역임 | · 지식규 지대형 |
| 이종혁 (1892~1935) (육사 제27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위 때 3·1운동이 일어나자 부대를 탈출, 만주로 망명 · 육군 주만참의부 군사위원장으로 독립운동 전개 · 1928년 봉천에서 체포되어 평양형무소로 압송 · 석방 후 선천에서 요양 중 병사 | · 馬德昌으로 알려짐 |

6. 결론

미군정은 일본군출신이 대중을 이룬 경비대를 창설하여 국군이 ‘경비대 모체론’을 신봉하는 상황이 전개되어 가도록 부채질한 책임이 없지 않다. 우리가 우리 국군의 연원을 반독립투쟁 전선에서 찾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민족독립운동의 선상 즉 독립투쟁전선에서 찾아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국군의 연원을 우리의 전통군대와 명맥을 역사적으로 이어온 바가 없는 미군정의 경비대에서 찾아서도 안 될 것이다.

을미사변으로부터 100년이 경과된 현재 우리 군의 정통성을 저해시키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비사 모체론’(警備士 母體論)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사 모체론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대한제국의 붕괴와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해 단절되어 광복 후 신생 대한민국 국군의 창건에는 아무런 연대(連帶)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인식이 전제되고, 한말의

무관학교와 독립전쟁기의 무관학교들이 법제사적 측면에서 광복 후 육군사관학교 창설과는 연대성이 없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역사의 단절론을 내세워 “육군사관학교는 대한제국 무관학교와는 아무런 연대가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법제사적 측면을 내세워 “경비사관학교가 명실상부한 육군사관학교의 모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논의야 여하튼 경비사 모체론은 비판받아 마땅할 것인데, 그 이유는 첫째, 국가와 그 기구인 군대는 정통성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임정의 법통을 계승했다면 국군은 의당 광복군의 정통성을 계승해야 하는 것인데, 육사에서는 부끄럽게도 경비사를 모체로 삼는 우를 범하였고, 둘째, 한국근현대사의 전개를 감안할 때 국군의 전통은 의병 → 독립군 →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민족독립운동의 선상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지 전통군대의 명맥을 역사적으로 이어온 바가 없는 미군정의 경비대에서 찾아서는 안될 것임에도 육사에서는 미군정이 육사창설에 대한 기여도가 높았다는 수단적 차원을 감안하여 경비사를 모체로 삼음으로써 광복군의 정통성 계승을 줌먹었기 때문이었다. 지난 2월 15일 개최된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창립총회에서의 약속에 따라¹⁷⁾ 논자는 육사의 학교사 시정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육사 학교사는 국방부 공간사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 공간사의 변화 없이 학교사의 내용수정은 고려될 수 없다는 답장이 왔다. 이에 논자는 육사의 전통을 잘 보존하기 위해 대외의 민원사항에 대응하는 ‘전통위원회’를 작동시키고 있는데 대해 반격을 가하였다. 전통위원회를 대표한 나종남 교수(군사사학과 과장)에게 논자는 “군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유화·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학교장이 전통위원회에 의해 대외와 차단되는 것이 한심스러울 뿐 아니라 육사와 군의 발전에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고 전화하였다.

더욱이 육사에서는 논자가 기초강연에서 제시한 6가지의 정통성 저해요인 척결과제 중에서 ① 국가와 군의 정통성 불공유 문제, ② 군맥의 체계화를 저해시키는 문제, ③ 정통성의 감정적 차원을 경시하는 문제, ④ 항일활동 경험의 자산 불인정 문제 등 4가지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나교수와 전화대화 시 그는 그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이요 관점이라”고 몰아붙여 회피하는 수법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할 때 육사인들은 독립군사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흥무관학교가 민족독립운동사에 남긴 역사적 의의에 관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7) 한용원,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의 주요과제에 관하여”, 『신흥무관학교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PP.4~5

제3주제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강윤정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학예연구실장

1. 머리말

1911년 6월 서간도에서 설립된 신흥무관학교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 독립군을 양성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때문에 독립운동사 연구와 더불어 신흥무관학교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고, 괄목한 만한 연구성과도 있었다.¹⁾ 특히 2011년에는 학교 설립 100주년을 맞아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²⁾ 또한 흔히 않은 당시의 기록 『백하일기』가 번역되기도 했다.³⁾ 이러한 연구작업을 통해 학교 설립과정을 비롯한 설립주체의 역할, 그리고 학교 운영실태성과영향 등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비교적 소상하게 살펴졌다.⁴⁾

이 글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안동인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권이 무너지자 안동인들은 의리론에 입각한 척왜(斥倭)의 논리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거의(學義)로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그 뒤 1905년 을사늑약이 있자, 을사5적을 참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일본의 침략을 단죄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편에서는 새로운 현실인식을 통해 근대적 개념의 국가민족을 인식하고, 민력양성(民力養

- 1) 천경화, 「만주지역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 《論文集》 3, 부천대학, 1983; 김성신, 「신흥무관학교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史學研究》 40, 한국사학회, 1989; 이현희, 「신흥무관학교 연구」, 《東洋學》 1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9; 김강영, 「신흥무관학교 연구」, 《청신사학》 8, 성신여자대학교사학회, 1990; 서중석, 「청산리전쟁 독립군의 배경」, 《한국사연구》 111, 한국사연구회, 2000;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제169집, 역사학회, 2001; 양춘식, 「西間島 獨立運動과 新興武官學校」,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7
- 2)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김태국, 「신흥무관학교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원과 역할」;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백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2011
- 3) 안동독립운동기념관 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 4) 한시준, 「신흥무관학교와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6쪽

成)을 통한 구국계몽운동을 지향하였다.

1910년 나라가 무너지자 안동유림들은 순국자정과 집단망명이라는 각기 다른 길을 선택하였다. 척사유림은 임금의 신하된 자로 ‘적의 백성’으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철저한 의리론(義理論)에 입각하여 순국자정의 길을 택하였고, 혁신유림은 만주망명이라는 탄력적 선택으로 서간도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전자가 의리론에 입각한 자진으로 제국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면, 후자는 독립에 대한 희망을 품고 새로운 길을 모색함으로써 한국독립운동사에서 큰 몫을 담당하였다.⁵⁾ 그 중심에 바로 협동학교와 이를 계승한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이 글은 이에 주목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활동에 끼친 안동인들의 역할과 그 정신사적 의의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망국에 대한 인식과 만주망명

1) 혁신유림의 등장과 구국계몽운동

위정척사에서 출발한 척사유림의 항거에 이어 1904년을 전후로 의병항쟁을 주도했던 안동유림 가운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혁신유림(革新儒林)이 등장하였다. 류인식(柳寅植)·김동삼(金東三)·이상룡(李相龍)·김대락(金大洛)이 그들이다. 이들은 위정척사에 대한 자기성찰을 통해 구국계몽운동을 지향하였다.

그 출발점에 선 사람이 류인식이다. 류인식은 1904년 무렵부터 국내외 정세를 약육강식(弱肉強食)·우승열패(優勝劣敗)의 형국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서구를 발달된 기술과 풍부한 자원·강력한 병력·명료한 법률 등을 가진 나라로 판단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는 밖으로 외침의 우려가 있고, 학술이 비루하고, 사기(士氣)가 부패하였으며, 재원이 고갈되고, 정치가 문란하여 망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류인식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신학(新學)을 통한 인재양성을 제시하였다.⁶⁾ 그는 신학으로 길러진 선비야말로 나라의 진정한 원기(元氣)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신학이야말로 선비가 국제사정에 통달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어려움을 구제하는 진정한 학문이라고 보았으며, 신학을 통해 배양된 선비야말로 바른 정치를 펼 수 있

5) 강운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25-128쪽; 권오영, 「정재학파의 형성과 위정척사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10집, 한국근현대사연구회, 1999

6) 『동산문고』, 8-13쪽; 강운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4-135쪽

다고 역설하였다. 류인식은 신학의 유용함을 편협한 구학(舊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적의 학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⁷⁾ 이러한 인식에 터하여 그는 안동에 근대식 중등학교인 협동학교(協東學校)를 설립하였다.

류인식이 협동학교를 열었다면 확장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김대락(金大洛)이다. 그가 신학을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한 시점은 정확하지 않지만 《황성신문》을 통해 늦어도 1909년 5월에는 협동학교를 적극 지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내가 신교육에 대하여 그 시무(時務)에 필요됨을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이 큰 한(恨)이라. 이제 비로소 깨달았으니 어찌 현신적 의무를 다하지 않으리오.”라고 하면서 신교육의 확산에 힘을 쏟기 시작하였다.⁸⁾ 즉 김대락의 사상적 전환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자기성찰의 산물이었다. 그의 신학문 수용과 협동학교 확장을 위한 노력은 당시 안동은 물론 영남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⁹⁾

한편 이상룡도 1905년부터 준비한 의병이 실패하자 새로운 지향을 설정하고, 1909년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조직하였다. 이상룡은 만국문명의 근간은 교육기관에 있다고 인식하고, 망국의 원인을 교육의 부재에서 찾았다. 또한 시세(時勢)를 파악하고 신구(新舊)를 참작하여 지덕(知德)을 아울러야 우리 도(道)가 어둠에 묻히지 않을 것이며, 조국 또한 부흥할 것이라고 설파하였다. 이상룡은 을마을사년에 위정척사적인 의병의 무장투쟁이 실패한 원인은 시국에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¹⁰⁾ 새로운 시세(時勢)에 따라 신구를 참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그가 전통의 도(道)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도(道)가 소중하지만 시의(時宜)에 적절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 무렵 이상룡은 ‘조국’·‘대한인’·‘국민’·‘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국가·국민 공동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¹¹⁾ 이러한 인식 아래 그는 교육과 단체만이 대안이 살길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 또한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철저히 배척하는 보수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시에 서양사상과 문명에 경도된 계몽운동가들의 정치적 태도와 교육산업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지적하였다. 즉 그는 신구를 참작하는 교육에 주력할 것을 피력하였다.¹²⁾

7) 『동산문고』, 9쪽

8)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자

9) 강윤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7집, 백범학술원, 2009

10) 『석주유고』 권6, 334쪽

11) 『석주유고』 권5, 207쪽

12) 강윤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44쪽

주목할 점은 이상룡이 이끌었던 대한협회 안동지회의 성격이다. 안동지회는 군사력 양성을 지향하였다. 또 지회는 군사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¹³⁾ 이 점은 안동지회가 본회와 달리, 항일무장투쟁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동지회 결성은 이상룡이 두 차례에 걸친 의병항쟁 이후 선택한 보다 발전된 국권회복운동의 방법이었다. 따라서 의병항쟁에서 구국계몽운동으로 전환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무장항쟁의 포기가 아니었다. 이상룡은 의병투쟁의 전략전술적 측면에서 한계를 목격하고 보다 조직적인 무장항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 실천으로 바로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였던 것이다.¹⁴⁾

이상룡의 이러한 지향은 신민회를 통해 만주에서 그 결실을 맺었다. 경북 북부지역 인사들은 의병에서 경험한 무장투쟁과 구국계몽운동의 이념을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독립전쟁론을 이끌어냈다. 이는 만주지역 독립군기지건설로 귀결되면서, 많은 애국지사들이 만주로 망명하였다. 이들은 만주에서 무수한 독립군 부대를 탄생시켰고, 근대적 항일무장투쟁의 기초를 만들었다.¹⁵⁾

2) 망국인식과 만주망명 선택

1910년 나라의 멸망은 안동의 혁신유림에게도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척사유림들은 의리론과 출처관에 입각하여 순국자정의 길을 선택하였다. 또 한편에서는 만주 독립군기지 건설론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 서울의 신민회에서는 해외망명을 추진하였고, 이 소식은 신민회 회원이자 협동학교 교사였던 이관직(李觀植)과 김동삼을 통해 안동에 전달되었다. 또 주진수(朱鎭洙)·황만영(黃萬英) 등도 김대락과 이상룡에게 신민회의 망명 계획과 망명자 모집을 알렸다.¹⁶⁾

척사유림에서 혁신유림으로 전환한 이상룡은 이 무렵 갈 길을 놓고 고뇌하였다. 망명일지인 「서사록(西徙錄)」에는 망명을 선택하기까지의 고뇌가 잘 담겨 있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가야산 기병과 대한협회 안동지회가 실패하고 나라가 망한 지금 다만 결행하지 못한 것이 죽음이라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이상룡은 자신을 선택할 수 없었다. 그는 어떤 경

13) 안동지회는 의용병 양성계획을 갖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군대식 체조훈련을, 공장과 회사에서는 작대법을,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향촌사회에서는 단련제를 실시함으로써 징병령이 시행될 때 무장한 군인이 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회가 일단 유사시 회원의 군사조직화를 계획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김정미, 「이상룡의 국권회복운동론」, 《한국근현대사연구》1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226~227쪽

15) 강윤정, 『경북독립운동사Ⅱ』, 경상북도, 2011, 222쪽

16) 조동걸, 「향산 이만도의 독립운동과 그의 유지」, 『韓國近現代史의 理解와 論理』, 지식산업사, 1998, 209쪽

우라도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유가의 근본임을 알고 있지만 그 ‘바른 길’이 곧 ‘죽음’이라는 확신이 서질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룡은 “백번 꺾여도 좌절하지 않을 뜻으로 단군성조의 영토, 고구려 강역 만주로 옮겨가 독립운동을 펴겠다.”는 단안을 내렸다.¹⁷⁾

이상룡이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희망을 품고 만주행을 선택했다면, 김대락의 망명은 이상룡에 비해 자정(自靖)과 은둔적(隱遁的) 색채가 짙다. 김대락이 망명지 만주에서 쓴 「분통가」와 「공리회취지서」에는 망국에 대한 인식과 만주망명을 선택한 이유가 잘 드러난다. 김대락은 망국의 상황을 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라는 세계사적 시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본’이라는 ‘적국’의 압제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인식아래 그는 전통의 출처관에 입각하여 대부(大夫)의 길이 아닌 사(士)의 길을 선택하였다. 김대락은 유가의 출처관에 입각하여 대부가 아닌 선비로서 “죽는 것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사(士)의 길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정은문의 성격이 강한 망명을 택하였고, 망명지를 백두산 아래 서간도로 결정하였다. 그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단군의 개국지요, 고구려의 창업지였기 때문이다. 즉 그의 망명에는 자정적·은둔적 성격과 민족의식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¹⁸⁾

안동의 혁신유림이 망명지를 서간도로 선택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적으로는 만주가 우리민족의 옛 영토라는 민족의식이었고, 외적으로는 신민회가 추진하는 독립군기지 건설이 뜻에 맞았기 때문이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이상룡·김대락·김동삼·류인식 즉 안동의 혁신유림이었다. 여기에 이들과 혈연·적·지연적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인물이 대거 망명에 동참하였다.

3. 신흥무관학교 설립과정과 안동인

1) 추가가 신흥강습소 설립과 안동인

추가가의 신흥강습소 설립과정과 관련하여 안동인의 활동을 비교적 소상히 알려주는 자료는 김대락의 『백하일기(白下日記)』(1911~1913)이다. 『백하일기』에 드러난 안동인의 신흥강습소 관련 기록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학교 설립에 드러난 안동인의 지향, 둘째 학교설립 과정의 역할, 셋째 입학자와 운영자에 관련된 정보이다. 이는 신흥무관학교

17) 『석주유고』 권6, 「西徙錄」, 270쪽;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7집, 백범학술원, 2009

18)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7집, 백범학술원, 2009

설립에 기여한 안동인들의 면면을 확인하고, 그들의 정신사적 지향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선 학교 설립에 드러난 안동인의 지향은 김대락의 「권유문(勸諭文)」에 잘 드러난다. 개교 두 달 뒤인 1911년 윤6월 12일 김대락은 학생들을 권면하는 「권유문」을 작성하였다. 학교를 개교하고, 농사를 지으며 직접 교사신축까지 하느라 고생스러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면학을 독려하는 순한문의 글이다.¹⁹⁾

신흥강습소를 열면서 학생들을 경계하고 권유하는 글이 필요했고, 그 역할을 서간도 망명사회의 최고령자인 김대락이 담당할 것이다. 김대락은 이 무렵 교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²⁰⁾ 그러나 그는 늙었다는 이유로 사양하였다. 아들 김형식이 기록한 『선고유고(先考遺稿)』에는 그가 두 차례나 학교장을 사임하는 글이 나온다.²¹⁾

(전략) 이는 대개 6, 7년 이래 여러 번 참혹한 변을 당한 나머지 정신을 다 잃어버려서 아무 일도 요랄할 수 없고 밥술을 들어도 음식을 흘리기 때문이니, 심상(尋常)한 개인의 일도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게 할 하물며 오늘날 학교를 설립하는 중차대한 자리이겠습니까? 가령 허깨비가 나아가 헛되이 직임(職任)과 명예(名譽)를 무릅쓰다면 이야말로 생리에 맞지 않는 과분한 대접이며 원승이에게 의관(衣冠)을 입히는 것과 같으니 이 어찌 여러분들이 억지로 권유할 일이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겠습니까?(후략)

「권유문」은 소박한 썰기문이 아니라 논리가 정연하다.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를 앞세우고 서양문명에 패배한 동양의 처지를 솔직히 인정하면서, 우리도 면학으로 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²²⁾ 그리고 자·탁·체의 인격 함양과 과학기술·정치학·경제학 등 폭넓은 공부를 강조하면서도 우리의 역사를 거울삼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정신을 깨우쳐 국혼(國魂)을 일으킨다면, 신흥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또 서양의 문명과 새로운 조류에 대해 ‘사회진화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강자인 서양이 동양을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김대락은 서구의 문명에 경도된 나약한 계몽주의

19) 『백하일기』, 「서정록」 1911년 윤6월 12일·7월 4일자

20)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5, 안동사학회, 2000, 149~150쪽

21) 김형식, 「辭學校長書」·「再辭學校長書」, 『선고유고』(『선고유고』(원고본)는 김형식이 아버지 김대락의 글을 모아 필사한 것이다. 북경에 거주하는 김형식의 사위 이태형이 보관하고 있던 것을 조동걸이 처음 학계에 소개하였다.)

22) 조동걸, 「백하 김대락의 망명일기(1911~1913)」, 《안동사학》 5, 안동사학회, 2000, 149~150쪽

자가 아닌 독립전쟁을 표방하였다. 서양을 배우되 나라를 빼앗긴 특수한 상황에서 유가의 정신인 ‘사생취의(捨生取義)’의 도리정신으로 국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유교적 본질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자의 모습이다.²³⁾ 또한 김대락을 비롯한 신흥학교 설립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한편 그의 아들 김형식이 남긴 「선고유고」 가운데도 「警告新興學校學生諸君(勸諭新興學校學生文)」이 실려 있다. 상결(上缺)로 시작되는 이 권유문은 앞부분에 다른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앞부분이 일기에 실린 부분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여기에서는 죽기를 맹세코 단결하고 공부하여 우리의 땅을 회복하지는 권고와 더불어 신흥학교가 바로 기초가 되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는 학교 설립과정에서 드러난 안동인의 역할이다. 학교설립과 관련된 첫 기록이 보이는 것은 1911년 4월 23일(음)이다. 이 날 이동녕·장유순이 김대락의 집에 와서 학교 설립에 관한 일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김대락의 집에서 학교 건립에 관한 논의가 한 차례 있었고, 이동녕과 장유순이 이일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이어 추가가 학교가 문을 연 것은 5월 14일(양력 6월 10일)이다. 김대락은 이 날 오후 학교에 직접 들렀고 하였다.²⁴⁾ 그런데 학생들의 실질적인 개학은 5월 25일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김대락은 “오늘이 개학이라 하여 이서방과 어린 손자가 함께 추가가의 신흥학교에서 수학하였다.”²⁵⁾고 기록하였다. 또 윤6월 5일에는 교실을 짓는 일로 모금을 위해 김대락의 집에서 한 차례 모임이 있었다. 이어 11월 18일에는 학교 총회가 열렸고, 12월 18일에는 학교의 연말시험과 진급에 따른 시상식이 있었다. 김대락은 이 시상식에 직접 참여하였다. 본과(本科) 학생의 반장(班長)과 우등생은 다섯 명이고, 소학(小學) 과정 학생의 반장과 우등생은 네 명이였다. 이날 어린 손자와 김정로(金正魯)가 함께 반장과 우등생이 되어 상을 받았다. 시상품은 공책 한 권, 연필 열 자루, 모필 한 자루, 양지(洋紙) 여덟 장과 연필 여섯 자루, 철필 한 자루, 먹 한 개, 고무지우개 하나, 모필 한 자루, 출애급기(出埃及記) 한 권이었다.

학교 건축 및 농사와 관련된 내용도 보인다. 개교전인 5월 10일부터 안동인들은 학교에 딸린 농막에서 콩을 심거나 모내기를 하였다. 김정식(金正植)·이광민(李光民)·김형식(金衡植)·김창로(金昌魯)가 바로 그들이다. 또 개교 뒤 김정식과 김창로가 학교 운동장 축(築) 쌓는 일을 했다는 기록도 보인다.

23) 강운정, 「백하 김대락의 현실인식과 민족운동」,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7, 백범학술원, 2009

24) 『백하일기』, 「서정록」 1911년 5월 14일자

25) 『백하일기』, 「서정록」 1911년 6월 25일자

5월 10일. 조카 정식正植은 학교 밭에 콩을 심는 일 때문에 오후에 윤일尹一과 함께 추가가鄒哥街로 떠났다. 대개 학교에 농막 하나를 사 두고 사방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해서일 것이다. 이야말로 횡거橫渠 선생이 ‘토지를 구획하여 곡식을 모으고, 학문을 일으켜 예를 이루려’하였던 뜻이니 매우 가상하다.²⁶⁾

5월 11일. 사위 이문형李文衡(필자 주 : 이광민)과 정식正植, 윤일尹一이 실이實伊와 함께 학교의 농장으로 가서 콩[種太]을 심고 비에 젖는 것을 무릅쓰고 저녁에 돌아왔다.²⁷⁾

6월 15일. 아이(필자 주 : 김형식)가 학교 콩밭[太田]에 가서 김을 땀다. 호미가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어떻게 풀을 맬지... 바로 이른바 자신의 밭을 내버려두고 남의 밭을 김맨다고 하는 것이니, 우습고 우습다.²⁸⁾

윤6월 1일. 조카 정식正植과 손자 창로昌魯가 학교 운동장 축築 쌓는 일로 도시락을 싸서 함께 가고, 집 아이는 사무 때문에 그대로 자고 돌아오지 않아, 외로운 집을 혼자 지켰다.²⁹⁾

윤6월 16일. 정식正植 조카와 손자 창로昌魯가 학교 모내기한 논에 김 매러 갔다.

마지막으로 운영자와 입학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상룡은 실질적으로 학교 설립을 이끌고, 운영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⁰⁾ “이상룡이 학교 모임을 운영하는데, 사람을 모으려고 애썼으나 채우지 못하자 장차 학교 곁으로 들어가 지낼 거라고 한다.”는 기록이 이를 입증한다. 그 외 김형식과 이준형이 학교 운영을 돕고 있었다.³¹⁾ 학교 입학생으로는 이광민과 김정로(金正魯)가 있었다.³²⁾ 여기에 김대락의 손자로 추정되는 칠손(七孫)³³⁾이라는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다.

26) 『백하일기』, 「서정록」 5월 10일자

27) 『백하일기』, 「서정록」 5월 11일자

28) 『백하일기』, 「서정록」 6월 15일자

29) 『백하일기』, 「서정록」 윤6월 1일자

30) 『백하일기』, 「서정록」 11월 21일자

31) 『백하일기』, 「서정록」 12월 15일. 생질 이준형이 점심 무렵에 왔다가, 그 길로 학교로 갔다.

32) 『백하일기』, 「서정록」 1911년 5월 15일; 1911년 12월 18일자

33) 『백하일기』, 「서정록」 1911년 10월 6일자. 대체로 학교가 제법 멀리 떨어져 있는데, 칠손七孫이 날마다 눈길을 무릅쓰고 다니는지라, 애처롭기가 그지없어 양식을 가져가 기숙寄宿함으로써 왕래하는 수고가 없도록 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안동인들은 신흥강습소 설립과정에서 설립주체로 활약하면서, 「권유문」을 통해 학생들의 민족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특히 망명 2세대는 학교의 인적자원으로 기능하였고, 이는 후일 전개될 독립전쟁에 끼칠 영향을 예견하는 것이었다.

2) 합니하 신흥중학교 설립과정과 안동인

1912년 초, 한인지도자들은 통화현(通化縣) 합니하(哈泥河)로 옮겨갔다. 이곳은 삼원포에서 남쪽으로 90리가량 떨어진 곳이다. 이어 합니하에 새로운 학교를 짓는 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합니하 신흥중학교 설립 논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김대락은 이와 관련하여 1912년 2월 18일(음) “이동녕(李東寧)과 이철영(李喆榮)이 와서 보고, 학교를 짓는 일을 대략 말해주었다”³⁴⁾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그 전부터 학교설립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1912년 2월 말 무렵 학교부지가 확정되었고, 3월부터 터를 닦고 교사 신축에 들어갔다. 김대락은 “3월 18일, 합니하로 가서, 여러 사람과 함께 학교 터를 영건하였다. 강산이 밝으면서 수려하고, 지세가 평탄하고도 넓어서 정녕 유자 학도들이 들어앉아 수양할 곳으로 합당하다. 이로 하여 마음 속 회포가 상쾌해졌는데 이는 이 경내에 들어와 처음 느끼는 것이다.”³⁵⁾고 소회를 밝혔다.

합니하 신흥중학교는 1912년 3월(음) 무렵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6월 7일(양력 7월 20일) 낙성식을 가졌다. 김대락은 이 날의 일을 소상하게 기록하였다. “모인 사람이 100여 인이고, 학생으로 졸업하는 사람이 7인이었는데 모두 상품을 받았다. 취지 연설과 축사가 있는 후에 창가와 만세를 불렀으며, 졸업자 7명이 상품을 받았는데 구경 온 수십 명이 이 광경을 보며 칭송하며 부러웠다.”고 하였다. 학교에는 병영사(兵營舍)가 세워졌다. 각 학년별로 널찍한 강당과 교무실이 마련되었고, 내무반 안에는 사무살숙직살편집살나팔반식당취사장비품실 등이 갖추어졌다. 이로써 신흥학교는 일정한 군사 훈련을 시키고, 중등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갖추게 되었다. 1912년 7월 21일에는 학교 구회(區會)가 처음으로 열렸다. 추가가 신흥강습소에 이어 합니하 신흥중학교 설립에도 안동인들은 인적 자원을 제공하였다. 합니하로 거처를 옮긴 김대락은 67세의 노유로서 학교 영건에 힘을 쏟았다. 이상룡은 초대 교장을 맡았던 것으로 추정된다.³⁶⁾ 또한 김형식이 1912년 11월 무렵 학교장을 맡았다는 기록

34) 『백하일기』, 「임자록」 1912년 2월 18일자

35) 『백하일기』, 「임자록」 1912년 3월 2일자

36) 이은숙, 『회고록』

이 보인다.³⁷⁾ 이 학교가 합니하 학교인지 추가가 학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형식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어 1913년 무렵 이상룡은 교감 윤기섭에 이어 후임 교감을 맡았다는 기록도 보인다.³⁸⁾ 경학사 학무부장 류인식도 학교 설립에 힘을 보탤 것으로 추정된다.

합니하 신흥중학교에 입학한 안동인으로는 김성로(金成魯)·김병대(金秉大)·김병칠(金秉七)·이광민·김정로가 손에 잡힌다. 김성로(金成魯 1896~1936)는 1911년 조부 김대락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중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뒤 1919년 4월 신흥무관학교가 확대·개편할 때 교관으로 발탁·활약하였고, 북간도 왕청현 서대과(西大坡)의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 교관으로 파견되었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독립군단에 편성, 청산리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병대(金秉大 1889~1975)는 안동 임하면 내앞마을 출신으로 협동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노력하였다. 김병칠(金秉七, 1884~1960)은 내앞마을 출신으로 협동학교 교사로 활약하다 만주로 망명하였다.³⁹⁾ 이들은 모두 합니하 신흥중학교 개교 무렵에 입학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로는 김대락의 손자로 1913년 7월 4일 학교에 입학하였다.⁴⁰⁾

그 외 인물로는 이목호(李穆鎬, 1879~1919)와 권중봉(權重鳳, 이명 權重哲, 1891~1967)이 있다. 이목호는 1911년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중학교를 수료한 후 독립운동 기지 건설과 동지 규합에 힘쓰다가, 1919년 1월 유하현에서 순국하였다.⁴¹⁾ 권중봉은 안동 서후면 명리출신으로 1912년 통화현으로 망명하였다가 군자금 모집의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와 수 개월간 활동하였다. 다시 만주로 간 그는 1913년에 신흥중학교를 졸업하고, 부민단에 참가하였다.⁴²⁾

37) 『백하일기』, 「입자록」 1912년 11월 19일; 학교에서 음식을 차려 학생들을 대접했는데, 집의 아이 형식이 교장으로서 주관한 일이다. 경학사耕學社의 여러 회원들도 모두 잘 먹었는데, 이야말로 이른바 ‘백일 동안의 수고에 백단의 은택’이라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제부터 후학이라고 한다.

38)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19쪽

39) 김대락, 『백하일기』 1912년 6월 7일·9월 17일;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40) 김대락, 『백하일기』 1913년 7월 4일;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41)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건』, 도서출판선인, 2011, 331쪽

42)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건』, 도서출판선인, 2011, 54쪽

4. 독립전쟁과 안동인의 역할

1) 백서농장과 안동인

만주지역 독립운동지도자들은 신흥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을 보다 효율적인 독립군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였다. 그것이 바로 신흥학우단이다. 이 단체는 1913년 5월 6일 합니하 신흥강습소에서 창단하였다.⁴³⁾ 신흥학우단은 “혁명대열에 참여하여 대의를 생명으로 삼아 조국광복을 위해 모교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 최후일각까지 투쟁한다.”는 설립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⁴⁴⁾

이어 5월 10일 제1회 임시총회를 신흥강습소 내에서 열었는데, 참석인원은 25인이었다. 그 명단은 창간호에 10명, 제2호에 15명 수록되어 있다. 이형국조병작강남호·김기풍·김노식·최승훈·정동수·엄주관·황병석·이의작·강한년·이병찬·서병화·이강준·강일수가 바로 그들이며, 이영이 임시회장으로 피선되었다.⁴⁵⁾

여기에 보이는 이형국(李衡國, 1883~1931)은 석주 이상룡의 조카로 추정된다. 그는 1911년 1월 백부(伯父) 이상룡과 함께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강습소를 수료하였고, 흥년으로 경학사가 어려움을 겪자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에 파견되었다. 국내에 들어온 그는 경기·충청·경상도 지역에서 자금을 모집하고, 신흥사(新興社)라는 비밀결사단체를 조직·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7월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다시 만주로 건너가 부민단·한족회 등을 이끌며 항일투쟁을 이어갔다.⁴⁶⁾

또 강남호(姜南鎬, 1894~1950)는 이상룡의 사위로 추정된다. 그는 경북 상주출신으로 1911년 만주로 망명하여 이상룡을 보좌하였으며, 1919년 가을 중국 안도현 내도산(內島山)에서 성준용 등과 독립군의 병영지를 물색하였다. 그 뒤 1924년 8월 반석현(盤石縣)에서 개최된 한족노동당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1926년 10월에는 한족노동당 대표회의에서 감사위원으로 활약하였다.⁴⁷⁾

한편 김승학은 신흥학우단의 초대 간부진 가운데 총무부장으로 김동삼을 지목하였다.⁴⁸⁾ 『

43)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64쪽.

44)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1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45) 김주용, 『신흥교우보』를 통해 본 신흥무관학교,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0,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64쪽.

46)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39쪽.

47) 안동독립운동기념관편, 『국역 백하일기』, 경인문화사, 2011, 123쪽.

『신흥교우(학우)보』에서 그의 이름이 확인되지 않아 이를 단정할 수 없지만 김동삼이 신흥학우단과 관계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후일 그가 신흥학우단이 주축이 된 백서농장의 장주가 되었다는 것은 그 연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

신흥학우단에서는 『신흥교우(학우)보』를 발간하여 서간도 주민들의 민족의식을 고취하였고, 계몽운동을 통해 주민들을 결속하였다.⁴⁹⁾ 이 미디어는 독립운동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고,⁵⁰⁾ 신흥학우단의 경험은 독립군영 ‘백서농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수년간 독립운동 및 독립군 기지 건설에 매진해온 신흥무관학교 관계자와 졸업생들은 벽찬 심장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드디어 고대하던 중일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연합국에 가담하였고, 중일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에 혈전준비에 모든 것을 바쳤던 신흥무관학교 관계자들은 독립을 향한 강렬한 의기를 펼치기 위해 제2군영으로 백두산 서쪽 쏘배차에 백서농장을 세웠다.⁵¹⁾ 여기에 안동출신의 김동삼이 장주로, 김동진(金東振)이 3중대 3부관으로 활약하였다.

2) 신흥무관학교의 독립전쟁과 안동인

1919년 2월 만주 길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나라 안팎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는데, 그 흐름을 이끌어낸 것이 이 선언이다. 이 「대한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대표 39인 가운데 8명이 신흥무관학교 관련자이다. 김동삼·여준이·동녕·이상룡·이세영·이시영·이탁·허혁이 바로 그들이다.⁵²⁾ 안동인 이상룡과 김동삼을 포함한 이들은 이후 만주지역 독립운동에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서간도지역 만세운동은 3월 12일에 시작되었다. 이날 통화현 금두복락(金斗伏洛)의 기독교 회에서는 한국인 400여 명이 대회를 개최하였다. 또 유하현 삼원포에서는 200여 명의 한인들이 조국독립을 위한 연설회를 갖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서간도지역 독립선언은 그 뒤 장백

48)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7, 135쪽: 김승학 편저 『한국독립사』에는 초대 단장 이근호, 총무부장 김동삼, 학우보주필 강일수, 동 기자 이동화, 장정근 외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쓰여 있다. 이에 반해 원병상의 수기에는 초대단장 김석, 총무부장 이근호, 편집부장 강일수 외 운동부·토론부·조사부·재정부 등이 있어 모두 여섯 부서를 두었다고 쓰여 있다.

49) 서중석, 「후기 신흥무관학교」, 《역사학보》 제169집, 역사학회, 2001, 76쪽

50)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7, 136-137: 『신흥학우보』는 창간 당시 『신흥교우보』였는데 언제부터가 『신흥학우보』로 이름이 바뀌었다.

51) 서중석, 「민족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신흥무관학교의 위상」,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백서』, 신흥무관학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2011, 57쪽

52) 송우혜, 「대한독립선언서(세칭 무오독립선언서)의 실체」, 『역사비평』, 1998년 여름호, 158쪽

집안·흥경·환인·임강·관전현 등 한인이 거주하는 촌락 곳곳으로 번져나가 4월 하순까지 이어졌다.

이따른 독립선언과 3·1독립만세는 거례의 독립과 자주를 세계만방에 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3·1독립선언 뒤 많은 청년들이 만주로 들어왔다. 이와 같이 고조된 정세아래 군정부가 조직되었고, 군정부를 지탱할 자치단체로 부민단을 계승한 한족회가 조직되었다. 군정부는 남만주 독립운동총본영으로 조직되었다. 총재로 이상룡, 부총재로 여준이 선임되었다. 그런데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소식이 있자 임시정부 산하 조직으로서 방향을 잡았다. 그것이 바로 1919년 4월에 조직된 서로군정서였다.

서로군정서는 독판부(대표부)·정무청(민정담당)·군정청(군정담당)·참모부(군사지휘) 등으로 구성되었다. 최고 대표인 독판에 이상룡, 군사지휘를 총괄하는 참모장에는 김동삼이 선임되었다. 그리고 여기에 김형식·김동만·김규식·김창로(김형식 아들) 등의 안동인사들이 참여하였다.⁵³⁾ 자치단체 한족회에서 안동인들은 요직을 맡았다. 김동삼이 서무사장을 맡았다가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김성로(金聲魯)에게 넘겨주었고, 김대락의 아들 김형식(金衡植)이 학무부장을 맡았다.⁵⁴⁾

이와 더불어 시급한 과제는 신흥무관학교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합니하 신흥학교는 천험의 요새였지만, 독립의 열기를 품고 몰려드는 청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교를 고산자 부근 하동(河東) 대두자로 옮기고, 합니하에는 분교를 두어 김창환으로 하여금 교장을 맡게 하였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919년 5월 정식 사관학교 개교식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로써 신흥무관학교는 추가가와 합니하에 이어 고산자까지 세 개의 교사를 갖게 되었다. 국내에서 탈출해오는 애국청년들, 재만동포청년들, 또 과거 의병항쟁에 참여했던 노년층까지 몰려들어 신흥무관학교는 성황을 이루었다.⁵⁵⁾ 이곳을 통해 1919~1920년 한 해 동안 1,000명이 넘는 졸업생이 배출되었다.⁵⁶⁾

안동인들은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와의 협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는 석주 이상룡이 1920년 봄 북로군정서 김좌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⁵⁷⁾ 이 자료는 이장녕을 보내달라는 김좌진의 편지에 대한 이상룡의 답신이다. 이상룡은 여러 사정이 있지만, 서

53) 김희곤, 『만주별 호랑이 김동삼』, 지식산업사, 2009, 99-104쪽

54)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투쟁』, 지식산업사, 2007; 채영국, 『서간도 독립군의 지도자 이상룡의 독립정신』, 역사공간, 2007; 한국근현대사학회, 『한국독립운동사강의』, 한울아카데미, 2007

55) 서중석 「후기 新興武官學校」, 《역사학보》 제169집, 역사학회, 2001, 91쪽

56) 이상룡, 『석주유고』;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 2001

57) 「答金佐鎮 김좌진에게 답하다, 1920년」, 『석주유고』 상

로군정서와 북로군정서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업무를 거두고 이장녕을 파견한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이상룡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헤아려 진실한 마음으로 연대하여 경계를 두지 말고 일치하여 함께 나아가자는 마음도 전하였다.

(전략) 삼가 봄이 한창인데 객지에서 기체가 나라를 위해 만중하신지요. 군정서의 일이 날로 발전하여 실력을 완전히 갖추셨으니, 저로 하여금 망양지탄望洋之嘆(자신의 부족을 탄식할 때 쓰는 말)을 금할 수 없게 합니다. 더구나 좌우께서는 간성지재干城之材(나라를 지키는 믿음직한 인재)로 사령관司令官의 직책을 맡고 있으니 범위가 작지 않은데다 널리 계책을 연합하여 결집함에 인력도 있고 실력도 있으시니 무슨 일인들 잘하여내지 못하시겠습니까? 다만 관할하는 지역이 매우 넓어 조석으로 서로 만나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할 수 없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중략)

이장녕李章寧 군은 이곳에 있으면서 이미 떠고 있는 직명이 있는데다가 긴요한 일로 심양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만약 마음을 같이하는 사이가 아니라면 요청하신 뜻을 감히 받들지 못하겠지만, 다만 귀서와 본서는 하나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차별해서 달리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부득이 이미 맡은 직무를 낱날이 되돌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일을 철폐하여 말씀하신대로 보내오니 좌우께서는 저의 충심을 생각하시어 진실한 마음으로 연대하시고 경계를 두지 말고 일치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천만 간절히 바랍니다. (〈答金佐鎭 김좌진에게 답하다, 1920년〉, 《석주유고》 상)

1919년 5월 서북간도 여러 지역에 조직된 독립군단의 움직임이 활발해지자 일본은 중국을 회유 협박하여 중일 합동수색대를 편성하였다. 이상룡은 1920년 5월 중일합동수색대가 근거지를 압박해 오자 성준용과 강남호를 보내 비밀 병영 터를 찾게 하였다. 강남호는 그의 하나뿐인 사위이다. 이들이 찾아낸 곳이 바로 안도현 내도산인데 북로군정서 구역에 가까운 밀림 속이다. 이상룡은 이청천에게 1개 대대 병력을 거느리고 그곳에 주둔하게 하였다. 8월에는 김동삼이 직접 왕청현 서대파西大坡에서 북로군정서를 방문하여 작전을 논의하기도 하였다.⁵⁸⁾ 그 뒤 이들은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맞아 전투를 치렀다.

이시기 신흥무관학교와 관련되어 눈에 띠는 안동인으로는 김성로(金成魯, 1896~1936)와 김성로(金聲魯, 1890~1922), 그리고 김철(金鐵, 이명 金泰圭, 1891~1931)·김중한(金重漢, 1897~1952)·이덕숙(李德淑 이명 李宣雨 1894~1894) 등이 있다.⁵⁹⁾

58) 『석주유고』; 김희근, 『안동사람들이 만주에서 펼친 항일투쟁』, 2011; 채영국, 『서간도 독립군의 지도자 이상룡의 독립정신』, 역사공간, 2007

59)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33쪽

김성로(金成魯)는 신흥중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1919년 4월 신흥무관학교로 확대·개편할 때, 교관으로 발탁되어 활약하였다. 3·1운동 뒤 신흥무관학교 교관이 각처의 독립군부대에서 활약할 때, 그는 북간도 왕청현 서대파(西大坡)의 북로군정서 사관연성소에 교관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였다. 이후 그는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독립군단에 편성되어 청산리전투에 참전하여 전투를 벌이다가 부상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김성로(金聲魯)는 1919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김동삼의 후임으로 서무사장에 선임되었다. 또한 서로군정서에서도 서무를 맡아 만주 이주한인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⁶⁰⁾

김철은 길안면 용계리 출신으로 1912년 만주로 망명하여 반석현(盤石縣)에 정착한 후 이상룡의 영향 아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후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후 김좌진(金佐鎭)이 이끄는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였다.⁶¹⁾ 김중환은 풍산읍 상리(上里) 출신으로 1919년 2월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서로군정서 해룡지구(海龍地區) 경비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⁶²⁾ 이덕숙은 안동시 수상동 출신으로 1915년 유하현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다가, 1920년 4월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후 교성대(敎成隊)에 편입·활동하였다.⁶³⁾

한편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전개된 활동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무관학교 생도모집 사건’이다. 이 의거는 1919년 6월경 최재화(崔載華)·김영철(金永哲)·조강제(趙強濟)의 주도로 국내에서 무관학교 생도를 모집한 일이다. 여기에 경북 안동군 풍산면 하리동에 본적을 둔 기독교 성서공회권서 및 기독교조사 배승환(裴昇煥, 35세), 안동군 풍서면 가곡동의 권재중(權在重·권재수權在壽, 39세), 안동출신의 김두칠(金斗七, 30세가량)이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1920년 9월 피체되었다.⁶⁴⁾

4. 청산리전투 이후의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60)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전』, 도서출판선인, 2011, 108~109쪽

61)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33쪽. ;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전』, 도서출판선인, 2011, 169쪽

62) 원병상, 「신흥무관학교」, 『독립운동사자료집』 제10집,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83, 34쪽. ; 김희곤, 『안동독립운동인물사전』, 도서출판선인, 2011, 160쪽

63)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31~232쪽

64)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요사』, 1934, 200~202쪽

청산리전투와 자유시침범 뒤에도 신흥무관학교는 존속되었다. 만주독립군으로, 독립운동자로 계속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신흥무관학교 또한 여러 형태로 계승되었다.⁶⁵⁾ 허은은 1922년 겨울 이상룡의 손자 이병화와 혼인하였는데 “그가 이 무렵 합니하 신흥무관학교에 다녔다.”고 하였다.⁶⁶⁾ 예전의 신흥무관학교와는 여러모로 달라졌겠지만 일제 ‘토벌군’이 물러나자 다시 교육을 시작한 것이다.

허은은 이상룡이 머물렀던 길림성 액목현 교하에 금성중학교가 있었는데, 이 학교는 신흥무관학교를 옮긴 것이며, 여준이 교장이었고 오광선이 교사였다고 증언하였다.⁶⁷⁾ 황학수(黃學秀)의 「몽호해외기(夢乎海外記)」에서도 서로군정서 본부가 유하현에서 액목현으로 이동할 때 서로군정서 부독관 여준이 액목현 황지강자(黃地崗子) 한국인 촌락에서 검성중학원(儉城中學院)을 신설하였다고 기록하였다.⁶⁸⁾ 이해보아 금성중학교는 검성중학원과 동일한 학교로 보인다.

또 한 연구자는 1922년 초 액목현 대갱지(현 교하현 남강자향)에 검성학장이 설립되었는데 이것이 검성중학으로 개칭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설립초기에 여준이 교장직을, 오광선이 체육 교사를 맡았다. 학생들은 70~80명이었는데 많을 때는 1백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학제는 2년이었다. 학생모두가 함께 유숙하고 생활하였으며, 반은 노동하고 반은 학습하였다. 이상룡의 『대동역사』와 조선어문, 영어수학지리 등을 가르치며 군사훈련을 병행하였고, 학교에는 개간한 농장이 있었다.⁶⁹⁾

여준과 이탁 등은 그곳을 서로군정서의 새로운 산실로 생각하고 있었고, 둔전제를 실시하여 장기항일투쟁 전략을 세웠다고 회고하였다. 그에 따라 이 학교는 무장우선주의에서 산업교육 우선주의를 채택하였다고 회고하였다.⁷⁰⁾ 이 학교는 1927년 청년강습소로 개칭된 뒤에 한층 더 맑스레닌주의를 전파하는 산실이 되었다.⁷¹⁾

65) 이하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13쪽에서 참조하였음.

66)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118쪽; 석주선생기념사업회 편, 「연보」, 『小坡遺稿』, 1996, 228쪽에는 이병화가 15세 때인 1921년 신흥무관학교에 입학하여 다니면서 재만 농민운동에 투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기 합니하 신흥무관학교의 학제는 3·1운동 이전과 비슷하였을 것이다.

67) 허은,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85쪽

68) 채근식, 『무장독립운동비사』, 대한민국공보처, 1949, 124쪽

69) 원시희 「교하의 검성중학」,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6~727쪽

70) 박영석, 『일제하 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4, 185~192쪽

71) 원시희 「교하의 검성중학」, 『중국조선민족발자취총서2-불씨』, 중국북경민족출판사, 1995, 727~728쪽

5.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의 정신사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만주로 망명한 안동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흥무관학교와 직간접으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는 안동인의 만주항일투쟁사에서 신흥무관학교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국망을 전후한 시기 안동유림의 처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순국자정과 집단망명이었다. 이 가운데 집단망명은 구국계몽운동으로 전환한 유림들이 주도하였다. 주로 협동학교와 대한협회 안동지회에서 활약하던 인사들이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안동출신 독립운동가⁷²⁾

| 성명 | 본관 | 생몰연도 | 출신지 | 운동계열 | 비고 |
|-----|----|-----------|-----|----------------------|--------|
| 李相龍 | 고성 | 1858~1932 | 법흥 | 대한협회 경학사서로군정서 | |
| 金大洛 | 의성 | 1845~1914 | 임하 | 협동학교 신흥강습소 | |
| 柳寅植 | 전주 | 1865~1928 | 예안 | 협동학교·신민회·경학사 | |
| 李承和 | 고성 | 1876~1937 | 법흥 | 신흥강습소서로군정서 | |
| 金衡植 | 의성 | 1877~1950 | 법흥 | 경학사서로군정서 | |
| 金東三 | 의성 | 1878~1937 | 임하 | 백서농장서로군정서 | |
| 李穆鎬 | 진성 | 1879~1919 | 예안 | 신흥무관학교 | |
| 李衡國 | 고성 | 1883~1931 | 법흥 | 협동학교 경학사부민단·한족회 | |
| 李源一 | 진성 | 1886~1961 | 예안 | 경학사·흥업단 | |
| 金聲魯 | 의성 | 1890~1922 | 의성 | 부민단·서로군정서·한족회 | |
| 權重鳳 | 안동 | 1891~1967 | 서후 | 신흥중학교·부민단·국민부 | 이명 權重哲 |
| 金泰圭 | 안동 | 1891~1931 | 길안 | 신흥무관학교·청산리전투·정의부 | |
| 裴在衡 | 흥해 | 1894~1919 | 예안 | 신흥무관학교 교관 | |
| 李鳳義 | 고성 | 1894~1960 | 법흥 | 경학사서로군정서 | |
| 李德淑 | 경주 | 1894~1960 | 시내 | 신흥무관학교 | |
| 李光民 | 고성 | 1895~1946 | 법흥 | 신흥학교·서로군정서 | |
| 金成魯 | 의성 | 1896~1936 | 임하 | 신흥무관학교·북로군정서 청산리전투참가 | |
| 金重漢 | 안동 | 1897~1952 | 풍산 | 신흥무관학교·서로군정서 청산리전투참가 | |
| 李炳華 | 고성 | 1906~1952 | 법흥 | 신흥무관학교 | 이상룡 손자 |
| 裴永進 | 흥해 | 1864~1919 | 예안 | 한족회 | |
| 金萬植 | 의성 | 1866~1933 | 임하 | 서로군정서 | 김대락 조카 |
| 李濬衡 | 고성 | 1875~1942 | 법흥 | 서로군정서 | 이상룡 아들 |
| 權奇鎰 | 안동 | 1886~1920 | 남후 | 한족회 | |
| 李東廈 | 진성 | 1875~1959 | 예안 | 동창학교 | |
| 金圭植 | 의성 | 1880~1945 | 임하 | 한족회, 서로군정서 | |
| 金東滿 | 의성 | 1880~1920 | 임하 | 한족회 서로군정서 | |
| 金政植 | 의성 | 1888~1941 | 임하 | 서로군정서 | 김대락 조카 |
| 金昌魯 | 의성 | 1889~1943 | 임하 | 서로군정서 | |
| 李運衡 | 고성 | 1892~1972 | 법흥 | 서로군정서 | |

72) 장세운, 『중국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현대사』, 명지사, 2005

| | | | | | |
|-----|----|------------|----|-------|--|
| 金章植 | 의성 | 1898~1949? | 임하 | 서로군정서 | |
| 柳 林 | 전주 | 1894~1961 | 예안 | 서로군정서 | |
| 金萬秀 | 의성 | 1894~1924 | 풍산 | 서로군정서 | |
| 金元植 | 의성 | 1888~1940 | 서후 | 서로군정서 | |
| 金應燮 | 풍산 | 1878~1957 | 풍산 | 서로군정서 | |

순국자정과 집단망명은 모두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강력하고도 분명한 거부였다. 그러나 순국자정이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지킨 것이라면, 집단 망명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국외 망명은 법률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그 생활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³⁾

특히 18세기 밀암(密菴) 이재(李裁) 이후 배청의리론이 강하였던 안동유림으로서서는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었다. 이재의 의리문제는 의(義)·리(利)의 분별과 출(出)·처(處)의 기준이요, 왕(王)·패(霸)의 분별과 배청(排淸)의식에 따른 화이론(華夷論)으로 제시되었다. 즉 이재는 의(義)와 세(勢)를 엄격히 분별하는 의리론(義理論)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던 것이다.⁷⁴⁾ 이는 그 뒤 안동을 비롯한 영남 유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물론 1894년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국내정세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자 이러한 논리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고, 이어 구국계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의 극복되었다.⁷⁵⁾ 그러나 청의 발원지였던 만주로의 망명은 분명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렇다고 안동유림들은 일본의 지배아래 살 수는 없었다. 이는 유교를 중심으로 한 중화주의적 문명관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적(夷狄) 일본에 의한 한민족의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만주망명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했다. 여기에서 안동인들이 선택한 것은 단군신앙과 민족사에 대한 재조명이었다. 이상룡이 나라가 망하자 선재(先齋)에 은거하며 만주 지도를 펴놓고 고심한 것이나, 망명전인 1910년 겨울 『국사(國史)』를 초(抄)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⁷⁶⁾ 또한 만주망명길에 부단히 만주를 연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는 황망한 망명길에서도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와 『만주지리지(滿洲地理誌)』 등 만주의 역사와 지리 서적을 구입하여 읽었으며 만주와 우리나라 지

73) 김기승 「근대사상의 출현과 안동」, 『안동문화의 종합성과 수월성』, 한국국학진흥원, 2007, 392쪽

74) 금장태, 『퇴계학과와 리철학의 전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42쪽; 李裁(1657~1730, 자 幼材, 호 密菴, 居 영양)의 아버지는 李玄逸이며, 어머니는 務安朴氏 朴耐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숙부 李徽逸과 李嵩逸에게서 배웠다. 벼슬은 주부에 이르렀으나 사직하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여 성리학의 대가가 되었다.

75) 『향산집』 1, 附錄, 年譜, 20쪽; 강윤정, 『정재학파의 현실인식과 구국운동』,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76) 「서사록」 2월 22일자, 『국역 石洲遺稿』하,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08, 32쪽

도를 구입해 두었다. 또 간고한 노정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탐독하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⁷⁷⁾

즉 그의 만주 중심의 역사인식은 바로 망국과 망명을 경험하며 정립된 것이다. 과거 유교사관에서는 단군을 종족상의 조상으로, 기자는 문화상의 조상으로 간주되었고, 단군보다는 기자가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단군이 문화의 중심이 되며, 중국으로부터 유교 수용 이전의 민족의 고유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 여기서 단군—부여—고구려 중심의 민족주의적 고대사가 체계화되었다. 이것은 망명지가 바로 민족의 조상들이 살았던 옛 영토라는 만주 고토의식을 형성하였고, 이는 독립운동기지의 역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였다. 즉 안동인의 만주망명은 단군 중심의 민족사적 의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다.⁷⁸⁾

이와 같이 망명 결정 당시 안동인의 대중국 인식은 민족사적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망명자들에게 닥쳐온 난관은 망명 한인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어떠한가라는 실질적인 문제였다. 즉 망명 결정 당시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망명자 자신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라면, 이는 정착과정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1910년대 망명자들이 만주에서 직면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망명지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였고, 하나는 망명 한인들을 어떻게 독립운동의 동량(棟梁)으로 키울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10년대 서간도 한인사회의 지도자였던 석주 이상룡의 대중국(對中國) 인식과 그에 따른 교섭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⁹⁾

망명자들은 일제의 직접적 억압에서는 잠시 벗어났지만 중국인들의 견제와 감시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우선 생업의 근간인 토지획득의 길은 요원하였고, 여기에서 중국은 이주 한인에게 귀화와 체발역복(剃髮易服)을 종용하였다. 이에 대한 이상룡의 고민은 매우 컸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솔선하여 머리를 깎고 복장을 바꾸었다. 이상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이상룡은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중국에 동정을 얻기 위함이지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다. 모발은 몸의 한 부분이요, 의복은 겉모습일 뿐이니 형편에 따라 혹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큰일을 이루려는 사람이 작은 예절에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한 태도를 보였다.⁸⁰⁾

77) 박결순, 「일제강점기 안동인의 민족운동과 역사인식」, 『어천절기념 학술회의 자료집』(2011.4.17)

78) 김기승 「근대사상의 출현과 안동」, 『안동문화의 종합성과 수월성』, 한국국학진흥원, 2007, 393쪽

79) 강윤정, 「정재학파의 만주지역 항일투쟁」, 『개관4주년기념 학술대회 자료집』, 안동독립운동기념관, 2011 참조

80) 『석주유고』, 「答權丁若丙夏」

이어 이상룡은 한발 더 나아가 중국당국에 동화(同化)의 길을 제의하였다. 1913년 유하현의 국민회장을 대신하여 쓴 「중화민국 국회에 제의하는 글」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다.⁸¹⁾ 이상룡은 한국인의 중국망명을 거부하던지, 확실한 ‘동화(同化)’ 정책을 펴든지 보다 명확한 태도를 보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상룡의 이러한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인 동화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이는 변장의 의미가 짙다. 그는 표면적 ‘동화’야말로 재만한인이 법적지위를 획득하여 망명지 중국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즉 한인들의 생활안정은 독립운동을 위한 교두보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중국에 대한 표면적 인식과 이상룡이 품은 내면의 화이관은 분명히 달랐다. 이는 1914년에 쓴 「존화양이변(尊華攘夷辨)」에 잘 드러난다.⁸²⁾ 이상룡은 「존화양이변」을 통해 사대주의에 젖어있는 조선의 유자(儒者)들과 중화사상에 빠져있는 중국인을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다.⁸³⁾ 이상룡은 문화중심적 화이론을 가지고 있었다. 즉 민족적 정체성이란 한반도에 거주하는 것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건 민족문화를 유지하면 확립된다고 인식하였다. 국가를 상실한 민족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은 정신적·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길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덕·문화와 같은 국혼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졌다.⁸⁴⁾ 특히 신흥무관학교는 한인사회 가운데서도 독립운동의 동량(棟梁)이 될 인재를 키우는 일이었기에 이를 특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대락이 신흥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권유문」에서 국혼을 강조한 것이나, 1913년 이상룡이 초록한 『대동역사(大東歷史)』가 국통을 강조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다. 『대동역사』는 1923년경 신흥무관학교의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전한다.⁸⁵⁾ 그런데 김대락이 「대동역사서」를 쓰면서 “이 한 책은 학교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안을 닦아 밖을 물리치는 계책(計策)을 또한 어찌 다른 데서 찾겠는가?”⁸⁶⁾라고 한 것으로 보아, 편찬 당시부터 학생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역사과목을 시험과목으로 하고 있었던 신흥무관학교 생도들의 역사교육에도 그 영향력은 매우 컸으리라 짐작되기에 그의 역사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⁸⁷⁾

81) 『석주유고』, 「中華民國國會提議書 代柳河國民會長作」

82) 『석주유고』, 「尊華攘夷辨」

83) 박영석, 「일제하 재만한국유이민 신촌락형성에 관한 연구 - 특히 석주의 화이관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15·16집, 81쪽

84) 김기승 「근대사상의 출현과 안동」, 『안동문화의 종합성과 수월성』, 한국국학진흥원, 2007, 393쪽

85)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14쪽

86) 김형식, 『선고유고』

87) 님웨일즈, 『아리랑』

“癸丑년에 『大東歷史』를 초록하였다. 예전의 東史들은 나라의 경계는 압록강 이동과 두만강 이남을 四郡으로 삼았고 國統은 箕氏로서 檀君을 잇고, 기자조선이 망하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병립하였으며 고구려와 백제가 망함에 미쳐서는 신라로 정통을 귀속시키고 발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공은 처음으로 중국 동쪽 여러 나라의 地誌와 歷史를 널리 고찰하여 바로 잡아서 滿洲가 조선의 뿌리가 되는 땅임을 밝혔고, 고구려와 발해를 민족의 正統으로 삼았는데, 이는 모두 다 國統(國統)을 높이고 국민정신을 고양하고자 함이다.”⁸⁸⁾

이와 같이 신흥학교 설립을 주도하고 지도했던 안동인들은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으로 고양된 생도들에게 군사훈련을 통해 독립군으로 성장하길 희망하였다. 나아가 이들을 통한 광복을 도모하였다. 안동인들의 항쟁은 독립전쟁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의병항쟁을 경험하고, 체험적 비판을 통해 구국계몽운동으로 나아간 인사들이 만주로 망명하였기 때문이다.

의병과 구국계몽운동이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적인 발전과정에 위치하고 있다. 문화적 자긍심에 기초하여 일본에 맞선 것이 의병이라면, 구국계몽운동은 새로운 시대건설을 위한 진보적 관점이었다.⁸⁹⁾ 만주지역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독립전쟁은 바로 이러한 관점이 결합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안동인들은 복벽주의를 넘어 공화주의를 지향하였다. 이는 유교적 민족주의가 발전적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6. 맺음말

1910년 나라가 멸망하자 안동인들은 독립을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만주로 망명하여 한국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였다.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이들의 1910년대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동포사회의 사회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서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주한인들의 튼실한 생활기반은 필수적이었다. 둘째는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될 자치 기구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그 첫 조직이 경학사(耕學社)였다. 경학사는 공리화·부민단(扶民團)·한족회로 계승되었고, 이는 남만주 지역 독립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셋째는 민족 교육기관 설치와 교육활동이다. 이

88) 「행장」, 『국역 石洲遺稿』 하, 156~157쪽. 이상룡이 저술한 『大東歷史』는 1923년 신흥무관학교 교재로 사용되었다고 한다(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14쪽)

89) 김기승 「근대사상의 출현과 안동」, 『안동문화의 종합성과 수월성』, 한국국학진흥원, 2007, 393쪽

상룡을 비롯한 망명자들은 첫 학교로 1911년 삼원포 추가가에 신흥강습소를 열었다. 신흥강습소는 독립군을 양성할 기반이 되었고, 신흥무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이상룡은 학교야말로 국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국민의 지식을 계발하며, 국민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국민의 기술을 연마하는 곳이라 여겼다. 이에 더하여 학교의 허가를 위해 부단히 중국당국과 교섭하였다. 이는 학교를 급선무로 여기지 않고는 와신상담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⁹⁰⁾ 이와 더불어 병영(兵營)을 설치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신흥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군사훈련이 필요했다. 이에 백서농장(白西農庄)·마록구농장(馬鹿溝農庄)·길남장(吉南庄)과 같은 병영을 세웠다. 이 가운데 백서농장은 김동삼·길남장은 이상룡이 이끌었다.⁹¹⁾

1910년대 안동인들의 이러한 노력으로 동포사회는 독립군을 길러내는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였고, 자치단체는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중심기구로 기능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교와 병영은 실제 독립군을 길러내는 곳이었다. 청년들은 학교와 병영에서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독립군으로 성장했다. 그 가운데 백서농장은 서로군정서로 편제되어 신흥무관학교와 함께 청산리전투를 이끄는 역할을 해냈다. 만주지역 독립군단이 힘을 모아 이루어낸 1920년 청산리전투의 승리는 1910년대 무장투쟁론이 일구어낸 중요한 결실이었다.

그 과정에서 안동인들은 중국에 대한 탄력적 인식과 교섭으로 재만 한인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하였다. 또 독립의 실질적 동량이 될 신흥무관학교 생도에게는 민족혼·국혼을 고취하고, 군사훈련을 통해 독립군으로 성장시켰다. 이는 만주지역에서 안동인들이 펼친 1910년대 독립운동의 큰 특징이었고, 그 중심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다.

90) 『석주유고』, 「答權丁若丙夏」

91) 김정미, 「석주 이상룡의 독립운동과 사상」,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김희곤, 『안동 사람들의 항일 투쟁』, 지식산업사, 2007

제4주제

상동파의 구국운동과 신흥무관학교

기독교 출신 독립운동가들(전덕기, 이회영, 이동녕)을 중심으로

서영석 협성대학교 신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항일민족운동사에 있어서 신흥무관학교의 역할과 위상은 매우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제 침탈기에 항일독립운동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었는데 신흥무관학교는 독립전쟁론에 기반하여 세워졌다.¹⁾ 이러한 독립운동 방략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외의 독립운동기지를 위해 이주한 한인들이 1910년 이후부터는 국내에서 항일 민족운동은 한계가 있었기에 국외에 한인 교민들이 있는 지역에 자리를 잡고 국내외의 청년들을 모아 무관학교를 세워 근대적 교육과 군사교육을 실시하여 독립을 쟁취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사실상 국권이 상실되자 국권회복을 위하여 여러 형태로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은 크게 두 가지의 운동 양태로 나타났는데 전자는 사회 계몽이나 교육을 통한 실력양성론이었고 후자는 무장투쟁론이었다.²⁾ 하지만 1910년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국권이 일제에 완전히 넘어가게 되자 실력양성론을 주장하던 애국계몽계열이나 의병운동을 통한 무장투쟁론계열이나 공히 항일 투쟁을 통한 독립전쟁론, 즉 독립군기지 건설운동론으로 그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다. 신민회의 무장투쟁 노선은 독립운동기지 건설로 실현되었다. 비로소 신민회는 국외에 독립운동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현대적 정규군과 같은 독립군을 창건하려고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상동교회를 중심한 국권회복운동은 교육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을 통해 장기간의 실력양성론

1) 항일독립운동은 외교활동, 실력양성론, 독립전쟁론, 의열투쟁 등이 있는데 독립전쟁론은 독립군을 야양성하여 중국, 소련, 미국 등의 나라가 일제와 전쟁하게 될 때 대일 전쟁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2) 신용하, 『한국근대민족운동사연구』, (서울: 일조각, 1995), 126

의 방향으로 전개되었지만 한편에는 강력한 투쟁을 통한 국권회복의 방안을 가지고 있었다. 그 예가 상동파의 핵심 인물로 미주에서 활동했던 박용만의 사상과 활동, 상동청년학원에서의 교육 중 군사훈련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구국운동을 위해 활동한 인사들이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 창설에 참여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기존 자료와 연구를 토대로 해서 신흥무관학교의 창립과 활동이 상동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밝히려 한다. 그리고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한 전덕기의 활동과 위상에 대해 언급하고, 상동교회가 신민회 근거지로서의 활약한 내용과 상동파 인사 중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을 살펴보고, 신흥무관학교를 태동시킨 상동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신흥무관학교의 연구 범위 가운데 전덕기, 이회영, 이동녕 등을 중심으로 한 상동교회와 관련된 신흥무관학교의 창립과 그 배경에 대해 국한하여 다루려 한다.

2. 전덕기의 목회와 상동청년회의 활동

구한말과 일제치하 가운데 구국운동과 관련한 상동교회의 역할은 다른 일반 기독교회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었다. 독립협회, 상동청년회, 을사늑약 때의 역할, 상동청년학원, 헤이그 밀사사건, 신민회활동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등 당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나타난 일련의 활동들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기 보다는 서로 연결되는 활동들이었다. 상동교회는 초기에 스크랜턴목사의 헌신적인 의료봉사와 복음전파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으며, 전덕기가 상동의 본처 전도사의 직을 맡으면서 당시 조국의 장래를 염려하는 청년들이 상동교회에 몰려들었고 결국 민족운동 및 구국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³⁾ 전덕기는 1902년 전도사의 자격을 얻어 상동교회에서 목회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⁴⁾ 목회 시작 이후 전덕기는 191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민족운동가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구국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당시의 풍전등화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벌인 민족구국운동은 전덕기 자신이 추구하는 신앙과 일치하고 있음을 확신하였기에 상동의 전덕기는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민족운동의 강력히 전개해 나갔다. 선교사들이 상동교회에서 전개하는 민족운동은 순수 신앙운동이 아니니

3) 송길섭, 『상동교회 백십일년사』(서울: 상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9), 68

4) 송길섭, 위의 책, 69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전덕기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결국 교회 내에서 상동청년회가 강제 해산 당하였지만 뜻있는 청년들은 전덕기에게로 계속 모여들었다.

상동청년회는 상동교회에 조직된 엡윗청년회(Epworth League, 懿法青年會)를 말하는데, 1897년 9월 5일 44명의 회원으로 창립되었다.⁵⁾ 초기 엡윗청년회는 담임자인 스크랜턴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조직이 되었다.⁶⁾ 이는 상동교회의 선교활동이 활성화되어 교세가 늘어나는 시기였고, 전덕기가 독립협회에 출석하며 구국활동에 눈을 떠 활약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상동청년회가 해체⁷⁾되었는데 이는 스크랜턴이 처음에는 청년회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한 때문이다. 상동청년회의 성격이 초기에는 종교적 차원에서 머물렀지만 차츰 정치적인 활동을 띄게 되자 스크랜턴이 이를 제재하면서 정치적인 활동을 금지시킨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⁸⁾

전덕기는 1902년 전도사 안수를 받고 1903년부터 상동교회의 실질적인 담임자가 되었다. 그리고 1903년 전덕기가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상동청년회가 재건되었다.⁹⁾ 이 시기에 이동녕, 이준, 이동휘, 최남선 등 독립협회에서 교분관계에 있던 동지들이 모여들어 전덕기 중심의 청년 조직이 결성되어 회원 수가 증가하였다.¹⁰⁾ 23세에 속장이 되어 전덕기는 일찍이 엡윗청년회를 조직하면서 청년운동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였고 1901년 신축 상동교회 예배당이 세워지자 본격적으로 목회활동과 민족운동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써 점차 많은 수의 청년들이 모이게 되고, 활발한 상동청년회의 활동이 진행되었다.¹¹⁾ 이때 독립협회에서 같이 활동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독립협회 해산 후 전덕기가 있는 상동교회로 모여들었고 전덕기를 중

5) 한규무, “상동청년회에 대한 연구: 1897-1914”, 『역사학보』126(서울: 역사학회, 1990); 「조선크리스도인 회보」, 1897년 9월 5일자 “청년회”에 대한 기사에 따르면 장소: 달성교회, 회원자격: 15-35세, 집회: 매주 한번, 회원: 44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6) 『조선감리회연회록』 1898년, 46

7)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회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8), 27-28

8) “청년회와 청년애국회를 분간 할 일”, 『대한크리스도인회보』 1898년, 7월 12일자

9) 노블 부인, 『승리의 생활』 (서울: 기독교창문사, 1927), 51

10) 이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시함”, 『신학월보』 1904, 11, 449

11) “전덕기가 상동교회 속장으로 독립협회에서 이동휘와 같이 사무일을 맡고 있을 때 석오도 간사부에서 노백린, 이갑 등이 전덕기와 교분을 두터이 하면서 기독교에 관해 감명을 받아 마침내 기독교인이 되었다. 특히 전덕기는 1902년 전도사의 자격증을 받고 상동교회에 파송되어 목회를 시작한 이후... 전덕기 주변에는 이동휘 이갑 같은 과격한 무단파가 모여드는가 하면 이동녕 이승만, 안창호, 이승훈 같은 온건 개화파 인사도 모여들었다. 그는 1903년 상동교회 엡윗 청년회를 재조직했는데 청년회원이 수백명이나 모였으며 전덕기가 그 회장이었다.” 李炫熙『臨政과 李東寧 研究』(1989), 72-73

심으로 해서 청년회를 구성하였는데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모여 신앙활동과 애국활동을 병행하였다. 당시 상동청년회에는 전덕기를 비롯하여 박용만, 정순만, 남궁억, 이동휘, 양기탁, 신채호, 최광옥, 안태국, 이준을 비롯한 윤치호, 이상설, 이회영, 이시영, 유일선, 손정도, 장지연, 이종호, 노백린, 이갑, 최남선, 장도빈, 최성모, 이필주, 김진호, 이동녕, 조성환, 김구 등 열혈 애국청년들이 경향각지에서 몰려들어 이른바 ‘상동파’(尙洞派)를 이루게 되었다.¹²⁾ 이렇듯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상동파’라는 인맥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물론 전덕기 목사라는 지도력이 있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¹³⁾ 뿐만 아니라 청년회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교육을 통한 계몽과 구국 인재양성을 위하여 상동청년학원은 1904년 10월 15일에 청년학원을 설립하였다.¹⁴⁾

이때부터 상동청년회는 강력한 민족 구국단체로 부각되어 있었다. 이처럼 상동청년회는 상당한 수의 청년층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까지 포함되어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전덕기의 상동청년회에 대한 활동과 영향력은 계속 확대되어 갔다. 1905년 청년회가 해산되기까지 구국운동과 민족운동의 근거지가 되었음을 일제도 파악하고 있었다.¹⁵⁾ 이후 상동청년회의 활동은 점차 현실 참여적 성격을 띠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전덕기와 정순만이 있었다. 1903년 상동청년회의 재건 이후 전덕기는 계속 회장을 맡았다. 1905년 8월 노예로 팔려간 멕시코 교포 참상을 조사기 위해 상동청년회의 멕시코교민 실태조사단 파견도 주도하였다.¹⁶⁾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발표되자 상동교회에서는 연일 수천명이 모여 구국기도회를 열었고, 조약무효상소운동을 벌였다.¹⁷⁾ 뿐만 아니라 평안도 장사 수십명을 모아 을사5적을 척결하고자 모의하기도 하였다. 1904-5년 어간에 상동청년회의 눈부신 구국운동으로 인해 스크랜턴은 정치·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경고하였다.

결국 1905년 11월 스크랜턴은 상동청년회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는 청년회가

12) 전택부,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서울: 정음사, 1973), 79-84; 장석영, 『華泉回顧錄』, (서울: 익문사, 1976), 51;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목사』, (서울: 상동교회, 1985), 59; 윤춘병, 『전덕기목사와 민족운동』, (서울: 한국감리교회사학회, 1996), 17-21

13) 윤경로, “신민회의 창립과 전덕기”, 『한국근현대사의 성찰과 고백』, (서울: 한성대학교출판부, 2008), 178-185

14) 「신학월보」4권, 384-394

15) 『顧問警察小誌』, (韓國內部警察局, 1910), 96-97

16) 신세라, “정순만의 생애와 민족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5집(2003년 여름), 239-243

17) 鄭喬, 『大韓季年史』(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74), 191

종교적 목적으로 모이기보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모이고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¹⁸⁾ 며칠 만에 이미 밀약으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고수하고 선교사들이 교회가 정치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청년회가 교회의 목적에 벗어나 정치조직으로 변질되었다고 판단하여 청년회를 해산시켰지만 상동청년학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었기에 청년회원 일부는 청년학원에서 일하였고, 또 일부는 국내에서의 항일투쟁의 한계를 느끼고 국외로 떠났다. 전덕기를 중심한 상동청년회의 배일적 민족주의적 성격은 일제 측 문헌에 의해서도 확인될 정도로 분명하였다.¹⁹⁾ 또한 상동청년회와 관련된 전덕기의 활약에 대해 김진호는 증언하고 있다.²⁰⁾ 상동청년회는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원들과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고 구국의 기치를 든 젊은이들이 상동교회로 모여 활동하며 1904-5년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그 후 이승만, 박용만은 미주로 떠났고, 이상설, 정순만, 이동녕 등은 만주로 옮겨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05년 청년회가 해산 당하자 활동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전덕기를 비롯한 청년들은 구국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상동청년학원의 교사 중심의 인사들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이 때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는데 비밀결사단체의 신민회 모임으로 새로운 활동을 찾게 된 것이다.

3. 상동청년학원과 신민회의 관계

18) 스크랜턴은 엡윗청년회를 해산하게 된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선교 본부에 보고하였다. “오늘 저는 전례 없는 결정을 내려야만 했는데, 앞으로 엡윗청년회는 내가 공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모일 수 없다는 사실을 각처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일반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엡윗청년회에 심사를 거치지 않은 신입 회원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정의감에 사로잡힌 무리들이 청년회 이름으로 활동할 뿐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불법 행위를 기도하여 그 목적이 모호해져서 우리가 보기에도 일본정부든 한국 정부든 이 모임에 대해 심각한 오해를 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청년회는 애국심이 강한 단체가 되었는데 이는 곧 반일 정서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 사이에 정치적 분규를 야기시킬 빌미를 주어서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국 정부와 아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W.B. Scranton's letter to Dr. Leonard*, Nov. 1, 1905. 그의 엡윗청년회 해산 명령은 1906년 6월에 열린 미감리회 한국선교연회에서 재확인되었다. *Minutes of Annual Session of the Korea Mission Conference of Methodist Episcopal Church*, 1906, 29-30

19) 『顧問警察小誌』(1910), 96-97

20) “一千九百三年에 本監理會 規則을 依호야 엡윗青年會를 設立호니 會員이 無慮 數千이라. 公이 會長으로 出席호야 每週 木曜 下午 七時에 通常會를 開호고 主의 말씀 傳播호기와 苦痛에 陷溺호는 人民을 救援호는 일 에 出力호고 其中에 特色으로 稱호는 者는 我民 一千十四人이 無賴의 流話를 因호야 墨西哥에 見賣호얏더니 異族의 虐待와 蠻民의 惡行이 無所不至호야 殆히 生命을 支지 못호는故로 此를 視察코자 엡윗會에서 發起 호야 二人을 派送호얏고 또 青年學院을 設立호야 教育에 努力호얏더라.” 김진호, “牧師 全德基 略史”

상동청년회에 이은 상동청년학원은 구국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기관이 되었다. 전덕기를 중시한 ‘상동파’²¹⁾ 애국인사들은 계몽과 교육을 통해 국권을 회복해야겠다고 확신하고 교회 내에 자발적인 학원을 설립 운영하였다.²²⁾ 상동교회 내에 설립한 이 학교의 이름을 ‘청년학원’이라 한 것은 ‘청년을 가르쳐 인재를 배양하자’는 뜻과 함께 ‘상동교회 엠틀청년회에서 설립한 학교’란 뜻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²³⁾ 독립협회 사건으로 투옥되었다가 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석방되자마자 청년학원 교장으로 이승만이 청빙되어 취임했고, 전덕기의 목회적 영향력 하에 청년학원은 상동교회 엠틀청년회를 배경으로 해서 설립되었다.²⁴⁾ 특히 청년학원의 설립에 있어서 선교부에서 지원되는 자금의 도움 없이 국내외를 포함한 원근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조하고 협력하여 개교 및 운영 자금을 충당했다는 점은 민족교육에 있어서 자립정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덕기는 상동청년학원을 세우고 철저한 민족운동의 지도자 양성을 꾀하였다.²⁵⁾ 국권회복을 위하여 전덕기는 일찍이 신민회가 조직되기 전부터 상동청년학원, 청년여학교, 남녀 공옥소학교를 통하여 민족운동을 위한 인재양성에 전력을 기울였다.²⁶⁾ 신민회가 조직된 후로 상동교회 건물과 학교는 신민회의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집행기관이 되었다. 상동청년학원에는 주로 당시 민족독립운동에 뜻을 두고 있던 인사들의 아들들이 많이 몰려 왔다. 『대한매일신보』에 소개된 “공옥소학교 행보기”는 학생들이 행진 중에 군가처럼 불렀던 것으로 추정된

21) 상동파란 상동교회 교인들과 그 교회에 출입하는 독립투사들을 총칭해서 쓰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전덕기와 친분이 있거나 상동교회 교인이면 상동파라 부르지만 신앙여부를 떠나 전덕기의 영향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벌인 애국지사들을 포함한다. 상동교회 교인과 상동교회에서 세운 공옥학교·상동청년학원의 교사·학생, 상동청년회 회원들을 비롯해 상동청년회에서 발간한 『수리학잡지』나 『가정잡지』의 관계자까지 포함한다. 중요한 상동파 인물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민회 창립위원인 이갑·이동령·이동휘·전덕기 등을 비롯해 이승만·김구·김진호·김창환·여준·이관직·이시영·이준·이필주·이회영·정재면·조성환 등도 상동파 회원이다. ‘헤이그밀사’ 이준과 이상설, 을사늑약시 순국자결한 민영환도 상동파였다. 안중근과 함께 이등박문 암살을 계획했던 우덕순과 상동청년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쳤던 주시경과 역사를 가르쳤던 ‘한국독립운동의 은인’인 선교사 험버트(H. B. Hulbert)도 상동파였다. 또 김창환·이갑·이필주·조성환 등 구한국 군대 출신들도 있었다. 상해임시정부 요인 중에도 상동파가 많은데 김구·이동령·이동휘·이시영·현순 등이 있으며, 만주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김창환·여준·윤태훈·이관직·정순만·조성환·정재면 등이 있다. 또 미주에서 활동한 상동파로는 박용만·이승만·현순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전덕기를 측근에서 돕던 김진호·이필주·최성모 이른바 ‘삼총사’가 상동파로 후에 모두 목사가 됐다. 전택부, “상동파-그 역사와 독립꾼들”, 『토박이 신앙산맥』(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22) 이 청년학원은 1904년 10월 미국 교포 청년 강천명이 전덕기에게 5원을 교육사업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崔錫柱, 『내가 본 人生百景』,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1974), 262

23) 이승만, 『신학월보』, Vol. 4, No. 11, 1904, 446-447

24) 위의 책, 449-450

25)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1979), 89

26) 김태현, “상동교당서 학교 정황”, 『신학월보』, 5권 3호, 1907, 116-117

다.²⁷⁾ 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이 투철한 유능한 교사들을 초빙하여 다양한 교사진을 확보하였는데 전덕기의 성경, 스크랜턴 부인(후에는 남궁역)의 영어교육, 헐버트의 세계사, 유일선의 수학교육, 주시경의 국어 교육과 장도빈, 최남선 등의 국사 교육, 김창환의 체육, 이필주의 교련, 조성환의 한문교육 등이 실시되었다. 물론 처음 설립 취지에서는 현세에 필요한 과목을 공부시켜 인간을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교육 도장이 되게 하겠다는 것²⁸⁾이었지만 실제로 구국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송길섭은 상동청년학원이 대성학교보다 오래됐을 뿐 아니라 학생들이 입학 할 때부터 독립운동을 할 생각으로 들어왔던 것이 특징이라고 보았고 장석영의 증언에 의하면 상동청년학원은 하나의 중학교였다기보다는 경향각지에서 애국지사들이 찾아오는 애국자 양성소였다고 평가하고 있다.²⁹⁾

그리고 상동청년학원에서는 정규 과정 외에 노동자와 빈민층을 위한 야학, 그리고 일반인을 위한 다양한 강습회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상동 지역은 민중 계몽과 민족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출판운동의 중심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애국계몽운동은 신민회의 교육과 계몽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모델이 되었다. 신민회가 조직된 후부터는 상동교회 건물과 운영하는 학교도 신민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활용되어졌고 신민회의 집행기관이 되었다.³⁰⁾ 이처럼 서울에는 상동청년학원이 중심이 되어 학생들을 길러 냈고, 신민회에서는 관서 지방에 주로 학교들을 세웠는데 오산, 대성, 보창, 양실, 신안, 가명, 협성안흥, 신흥, 흥아, 명륜, 경성, 양산, 서북형성학교, 면학회사범강습소 등을 설립하였다.³¹⁾ 이렇게 신민회에서 학교를 설립하여 애국계몽 및 민족교육을 실시³²⁾하였던 것은 기존의 상동파의 교육운동과 신민회가 실시한 민족 교육에는 연결점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학교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상동청년학원에서는 각종 구기운동, 체조 뿐 아니라 기초 군사훈련을 담당하였다.³³⁾ 상동청년학원이 세웠던 목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고 양질의 중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년들에게 독립과 애국정신을 고취하는

27) “攻玉小學校行步歌”,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30일자

28) 리승만, “상동청년회의 학교를 설치함”, 『신학월보』, 1904.11, 440-450

29)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1985), 89-90

30) 송길섭, 『상동교회백십일년사』(1999), 124-125

31) 신용하,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1986), 47-58

32) 『황성신문』, 1909년 5월 8일 잡보, “사립학교 인허수”. 신민회의 교육운동이 활성화 되어 1907년부터 1909년 4월까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학교가 무려 3,000여교에 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33) 송길섭, 『상동교회 백십일년사』(1999), 108

데 주목적이 있었다. 결국 청년학원의 교육성격은 지식에 있다기보다 애국정신 교육에 있었다. 민족운동에 헌신할 인재들은 강인한 체력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조와 운동을 통한 체육 교육을 강조하였다. 체육시간을 맡은 이필주³⁴⁾ 선생은 군사훈련을 통해 애국적 정신교육과 신체단련을 훈련하였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이 정복을 입고, 나무 총을 메고, 나팔을 불고 군가를 힘차게 부르고, 북을 두드리면서 군사훈련을 받았다.³⁵⁾ 훗날에 신민회가 만든 신흥무관학교에서 훈련받는 내용들이 상동청년학원의 교과목에 이미 있었던 것이다.

1905년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상실되어 일제의 한국지배가 노골화되는 가운데 종래의 계몽주의적인 온건한 방법으로는 구국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구국 방법으로 만든 비밀결사 조직이 신민회이다.³⁶⁾ 그런데 ‘한말에 나타난 민족 항일운동단체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평가되는 신민회(新民會)가 결성되는 과정에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상동파’의 역할이 매우 컸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상동파는 한말 민족 구국운동을 위해서 전덕기 및 상동교회, 그리고 상동교회에서 세운 학원이나 기관 등에서 모여 활동하던 일단의 사람들이나 세력을 의미한다. 신민회 창립과 활동에 있어서 상동파로 불리는 민족운동세력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은 그동안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³⁷⁾ 신민회 활동

34) 서영석, “이필주의 나라사랑 활동과 기독교 사상”, 『市民文化研究』 제7호, (서울: 월남시민문화연구소, 2007), 99-129. 이필주는 1869년 11월 9일 서울 남창동에서 출생했다. 1890년 군인이 되어 활동했고, 1903년 상동교회로 와서 스크랜턴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전덕기 목사의 지도를 받으며 성경공부를 하며 교회에서 지도력을 키워 나갔다. 이필주는 전덕기와 함께 목회의 조력자로 일하면서 상동청년학원의 체육교사 직을 맡겨 청소년 지도훈련에 힘쓰게 하였다. 후에 YMCA 체육교사직을 맡아 활동하였다. 또한 그는 협성신학교를 졸업하고 1918년에 정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1919년 삼일운동에 기독교 대표로 참여하였고 옥고를 치른 민족운동가이며 목회자이다.

35) 특히 구한국 부대 군인 출신이었던 이필주가 담당한 체조시간은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것으로 학교 바깥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구경거리였다.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1885), 73-74

36) 신용하,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 『韓國學報』 제8,9집(서울: 일지사, 1977), 51
 신용하,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서울: 을유문화사, 1986), 18-19. 신용하는 신민회 조직의 주체세력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5개의 주요 활동 세력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대한매일신보》를 중심으로 언론구국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애국세력, ②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애국세력, ③ 서북지방과 서울의 애국적 신흥시민세력, ④ 무관출신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애국세력, ⑤ 미주 공립협회의 애국세력을 규합하여, 양기탁(梁起鐸)·안창호(安昌浩)·전덕기(全德基)·이동녕(李東寧)·이동휘(李東煇)·이갑(李甲)·유동열(柳東說)·노백린(盧伯麟)·이승훈(李昇薰)·안태국(安泰國)·최광옥(崔光玉)·이회영(李會榮)·조성환(曹成煥)·김구(金九)·이강(李剛)·이상재(李商在)·신채호(申采浩)·임치정(林蚩正)·이종호(李鐘浩)·주진수(朱鎭洙) 등이 중심이 되어 1907년 4월 초에 서울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로서 신민회를 창립하였다. 신민회의 회원은 1910년 약 800명에 달하였다.

37)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서울: 일지사, 1990), 180-182;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서울: 세신문화사, 1985), 86-90; 이현희, 『臨政과 李東寧 研究』(서울: 一潮閣, 1989), 103; 윤춘병,

의 연구에 있어서 먼저 상동청년학원과 신민회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전덕기의 측근에서 상동파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인물로 활동하던 김진호 목사의 “전덕기 목사 소전”에서 상동교회와 신민회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³⁸⁾ 김진호는 신민회 조직의 배경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독립협회 해산 후 그 일부가 전덕기 목사가 있는 상동교회의 청년회로 모여들었고, 독립협회 이후 독립정신은 상동교회에서 함양되었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덕기가 상동교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목회하면서도 청년회 회장직을 맡아가며 청년회를 이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상동청년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7시에 집회를 갖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독립협회 때와 다른없는 격렬한 시사토론과 논평이 있는 청년모임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사회가 잘못 되어가고 국가 위난의 때를 맞아서 청년회의 간부들을 중심으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결사구국’을 목적으로 비밀결사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무형의 모임 곧 신민회란 것이다. 이상의 설명들을 종합하면 상동의 전덕기를 중심으로 모여든 애국청년들이 구국의 목적으로 신민회란 비밀결사의 모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민회를 상동파의 핵심 인물인 이동녕, 전덕기, 양기탁 등이 주도해나갔으며 입회식 및 가입절차가 철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참여자의 각오가 비장하였으며, 비밀결사³⁹⁾로서 애국 동지들이 활동하는 모임이 되었다.⁴⁰⁾ 또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신민회 모임이 진행되었는데 엽윗청년회가 해산당한 후에도 신민회 임원들이 계속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회집하는 등 상동교회 엽윗청년회의 정기 집회 시간과 마찬가지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상동교회의 지하실에서 갖는 모임에 강연을 하고 참여한 인사들을 소개하는데 이들은 독립협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인물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결국 김진호는 신민회를 독립협회의 후신으로 보았다. 이는 일제 측 문건에서도 ‘상동청년회’를 “獨立協會가 耶蘇敎의 假面을 쓴 것”으로 간주하고

『전덕기목사와 민족운동』(서울: 감리교출판사, 1996), 17-88; 조이제, 『한국 감리교청년회 100년사』(서울: 감리교청년회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1997), 70-76

38) 노블 부인, 『승리의 생활』(서울: 기독교장문사, 1927), 51

39) 신민회 결성 후에 신민회 단체를 유지해 나가면서도 일부 회원들에게는 신민회라는 회명도 알려주지 않을 정도로 비밀을 유지하였다. 《姜鳳羽警察訊問調書》, 제1권, 《姜鳳羽京城覆審法院第13公判始末書》(제79권), 국편, 자료집(1), 183-184

40) 윤경로는 신민회가 입회 때부터 비밀성이 유지되고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했음을 105인 사건 당시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신문 조서 분석을 통해 “신민회의 창립 경위와 입회절차”의 글에서 자세히 밝히고 있다.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1990), 188-203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⁴¹⁾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독립협회(1896년) → 상동청년회(1903년) → 상동청년학원(1905년 청년회 해산 이후) → 신민회(1906년)에 이르는 민족운동 흐름을 정리해 볼 수 있다.⁴²⁾ 상동청년회는 1905년 스크랜턴으로부터 해산당하여 이전과 같은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청년학원의 조직체를 통하여 신민회를 태동, 발전시켜 나갔다고 보아야 한다. 신민회의 창립과 관련하여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여사가 쓴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와 해관 이관직의 유고 『우당 이회영 선생 실기』를 통해서 상동교회와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은숙의 수기에 보면 신민회의 발기인으로 전덕기를 비롯한 5인이 상동교회를 통해 비밀리에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우당장(又堂丈, 이회영의 호)은 남대문 상동 청년학원 학감으로 근무하시니, 그 학교 선생은 전덕기, 김진호, 이용태, 이동녕 등 다섯 분이다”라고 전제한 후 “이들은 비밀독립운동(신민회) 최초의 발기인이시니 팔도(八道)의 운동자들에게 상동교회가 기관소(機關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라.”⁴³⁾

이정규는 “신민회(新民會)의 시말(始末)”에 대해 설명하면서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전덕기, 이동녕, 양기탁, 이회영 등 네 사람이 조석으로 만나 비밀회의를 갖고 신민회를 조직, 발전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다.⁴⁴⁾ 또한 『이회영실기』에서 보면 비밀결사단체인 신민회는 그 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엄격하고도 구체적인 세부 규약까지 만들어 회원들을 관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신민회 창립시기와 관련하여 이미 밝혀진 대로 상동의 신민회 조직에 이동녕이 참여하였는데 그 시기에 이동녕은 1906년 4월 노령으로 망명하여 이상설이 개교하는 서전서숙(瑞甸書塾)에 동참하기 위해 용정으로 가는 등 1년여 활동하다가 귀국하였다.⁴⁶⁾ 그렇다면 신

41) “朝鮮獨立運動의起源”, 『齋藤實文書』, 9권, 고려서림, 354

42) 일제가 작성한 「조선독립운동의 기원」이란 자료를 보면, 일제는 한국독립운동의 맥락을 ‘독립협회 → 상동청년회 → 망명자들의 해외독립운동’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즉 독립협회가 해산되자 그 회원들이 대거 상동청년회로 들어왔고, 이들이 다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벌였다는 것이다.

43) 이은숙, 『獨立運動家 아내의 手記』(서울: 정음사, 1975), 143

44)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서울: 乙酉文化史, 1987), 39

45) 세부규약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은 조국 정신을 굳게 지키고 조국 광복에 헌신하여 충성을 다할 것.
- 회원은 조국을 위했던 선현 선열(先賢先烈)을 반드시 사모하고 계술(繼述) 할 것.
- 회원이 만일 본회를 배반하였을 때는 어느 때든지 그 생명을 빼앗길 줄 알 것.
- 회원은 본회의 비밀을 엄수할 것이며 만일 탄로 났을 때는 해당자는 혀를 깨물고 말하지 말 것.
- 회원은 달고 쓴 생활과 힘들고 편한 활동을 다른 회원들과 함께 할 것.

李觀植, 『友堂 李會榮 實記』(서울: 乙酉文化史, 1985), 137-138

민회 조직의 시기는 1906년 4월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만들기 위하여 1906년에 이회영이 간도를 시찰하고 그해 여름에 돌아왔다. 앞에서 언급한 이동녕, 이상설, 이회영 등은 상동파의 핵심인물들이었고, 이들은 벌써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외에 독립군기지를 준비하여 광복운동을 실천해 나가려 했던 것이다. 윤춘병도 “이처럼 신민회 조직은 안창호가 귀국하기 1년 전에 이미 어떤 형태로든 상동파에서 조직되어 있었고 간단할 규칙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 주장”⁴⁷⁾하고 있다.

위에서 밝힌 대로 보면 상동교회는 신민회의 산실이며 그 운동의 핵심본부였으며, 신민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상동교회는 민족주의자들이 모여 그들의 사상을 펼치고 교환하는 장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⁴⁸⁾ 이렇게 상동청년학원에 관련된 인사들은 애국지사들이었고 좀 더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애국 독립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신민회란 조직을 통해 더욱 활발한 운동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이는 후에 상동청년학원이 신민회의 부속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나중에 국외에서 신민회는 독립군 양성을 염두에 둔 병식훈련을 주로 교육하였던 점은 상동파의 활동 내용이 신흥무관학교의 운영과 활동에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상동파들은 일찍이 일제의 주권 침탈 과정을 목도하면서 독립을 위한 방안으로서 무장투쟁이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독립운동 기지, 독립군 양성소가 해외 여러 군데 세워졌다. 이동휘와 그의 동지들은 만주 왕청현 라자구에 비밀군사학교를 세웠다. 박용만은 미국 네브래스카에 소년병학교를, 하와이에도 군사학교를 세워 미래의 독립군을 양성했다. 상동파들이 대거 참여한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 설립되어 10년 동안 인재들을 길러 냈다. 이동휘, 박용만, 이회영, 이동녕 등은 상동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상동파에서는 신흥무관학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무장투쟁을 위한 독립군 양성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학교를 설립, 운영했던 것이다.

4. 신흥무관학교와 설립과 상동파의 역할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있어서 여러 인맥과 그룹들이 함께 협력하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

46)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研究』(1989), 89-90

47) 윤춘병, 「전덕기 목사와 민족운동」(서울: 감리교출판사, 1996), 58

48)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研究』(1989), 71

을 한 그룹은 상동파였다.⁴⁹⁾ 바로 전덕기, 이회영(李會榮)을 중심한 상동청년학원(尙洞靑年學院)과 그 인맥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애국지사들이 총 집결지이자, 민족운동의 요람지였던 상동청년학원에서 전덕기는 실질적인 지도자였고, 이회영은 학감 역할을 맡고 있었다.⁵⁰⁾ 여기에서 상동청년학원의 교사들을 중심한 애국인사들이 모여 신민회가 태동되고 준비되어졌다. 1907년 2월 안창호(安昌浩)가 미국에서 귀국하는 계기를 맞이해 그해 4월 비밀결사체인 신민회(新民會)가 정식으로 결성되었다고 하더라도⁵¹⁾ 귀국 2개월 만에 신민회라는 비밀결사 조직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국내에 ‘상동파’라는 존재하였고 이들을 통한 사상적 준비와 인맥 형성이 이미 되어 있었고, 나아가 이들의 튼튼한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본다.⁵²⁾ 이어 상동청년학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동파 핵심 인사들이 신홍무관학교 설립운동에 나섰는데 이회영, 이시영(李始榮) 등 6형제를 비롯한 이동녕(李東寧) 등이 직접 이 일에 가담하게 되었다.

1) 이회영의 역할

이회영은 전덕기와 함께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李相高), 이위종(李瑋鍾), 이준(李儁) 등 특사 대표를 파견하는 일을 기획하고 준비하여 실행하였다.⁵³⁾ 또한 이회영과 상동파 인물들은 일찍부터 독립운동지기 건설을 모색하였다. 장기적인 구국운동의 방안으로 국외독립운동 기지건설 모색에 나섰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회영 형제, 이상설, 이동녕, 여준(呂準), 장유순(張裕淳), 유완무(柳完懋) 등 이었고 이들은 동지적 관계를 가졌다.⁵⁴⁾ 특히 이들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부터 이미 국외망명을 계획하고 구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준비하고 있었다.⁵⁵⁾ 그러므로 1906년 4월 이상설과 이동녕은 비밀리에 상해를 거쳐 블라디보

49) 윤경로는 신홍무관학교 설립에 있어서 활약한 인적 토대로써 먼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한 상동파 이외에도 이상룡(李相龍, 1858-1932)과 김대락(金大洛, 1845-1914) 황호(黃濤, 1850-1928) 일문과 의성 김씨 김동삼(金東三(肯植), 1878-1937) 등 안동(安東)지역 혁신유림계(革新儒林系) 지사 그룹, 그리고 강화학과 계통의 개신유학과 이건승(李建昇), 정원하(鄭元夏), 홍승헌(洪承憲) 등의 그룹에 의해 거의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윤경로, “1910년대 독립군기지 건설운동과 신홍무관학교”, (신홍무관학교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신홍무관학교와 항일무장독립운동), 2011, 36-40

50) 이은숙, 『민족운동가 아내의 수기』, (서울: 정음사, 1974), 13 ; 이관직, 『우당 이회영 약전』, (서울: 을유문화사, 1985), 147

51) 신민회 창립 날짜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다.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연구』, (서울: 일지사, 1990), 180 ;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85), 25

52) 신용하, 위의 책, 18.; 윤경로, 위의 책, 180-182

53) 서중석, 『신홍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28-30

54) 서중석, 위의 책, 26

스토크로 갔다. 이상설과 이동녕은 그 곳에서 정순만 등 애국지사들과 함께 구국운동을 위한 학교 사업을 협의하고 결정하였다. 이들이 선정한 지역은 북간도 지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길 용정촌이었는데 이는 교포의 규모와 정착 상황, 국내와 왕래가 편리함 그리고 연해주와의 거리 등을 참작한 것이었다.⁵⁶⁾ 여기에 서전서숙을 세웠는데 이상설이 숙장을 이동녕과 정순만이 학교의 운영을 맡았다. 이처럼 서전서숙에 가담한 인물들은 상동파의 핵심 인물들이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서전서숙은 역사, 지리, 수학, 국제공법, 헌법 등의 교과목으로 근대교육을 실시한 북간도 신교육의 요람지 역할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전서숙의 교육에 중점을 둔 부분은 바로 반일민족교육이었기에 실제로는 독립군 양성소와 같은 기능을 하였다.⁵⁷⁾ 그러나 서전서숙은 1907년 9-10월 경에 문을 닫게 된다. 그 해 4월 3일 이상설이 헤이그 특사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녕, 정순만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났기 때문이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특사 파견을 주도한 인물도 상동교회 이회영, 전덕기였다. 이회영은 고종에게 주청하여 특사 파견의 내락을 받고 이상설을 비롯한 상동교회 청년회 대표 이준을 사절로 구성하였다.⁵⁸⁾ 이 후 지도력의 부재와 재정난, 그리고 통감부 간도출장소의 감시와 방해로 학교의 문을 닫게 되었다. 서전서숙이 1년여 만에 문을 닫아 지속되지는 못하였지만 국외의 독립운동기지 건설이라는 독립운동의 방략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후일에 유하현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도 국외에서 먼저 세워진 서전서숙의 민족운동의 인재양성 교육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국외에 일제에 대한 저항의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상은 이회영이 1908년 여름 블라디보스토크에 머물고 있었던 이상설과 만나서 구체화되었다. 두 사람은 지사를 규합하여 국민교육을 장려하고, 광복군을 만주에서 양성하며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운동자금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상동교회가 신민회의 비밀기지가 되어 이회영, 전덕기, 이동녕, 양기탁 등이 조석으로 밀의를 거듭해 온 결과이기도 하다.⁵⁹⁾ 이러한 이들의 계획은 1910년 한국강제병합 이후 구체화 될 수 있었다. 1910년 3월 신민회의 결정을 통해 독립전쟁을 최고의 전략으로 채택하고, 해외에 독립군기지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간부들이 망명하여

55) 윤병석, 『이상설전』, (1984), 50

56)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1987), 30-31

57) 윤병석, 『이상설전』, (1984), 51

58) 송길섭, 『상동교회 백십일년사』(서울: 상동교회역사편찬위원회, 1999), 93-99

59)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1987), 39

이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⁶⁰⁾ 그리하여 이회영은 1910년 8월 하순 이동녕과 함께 장유순, 이관직(李觀植)을 대동하고 종이장수로 가장하여 압록강을 건너 안동(단동)을 거쳐 훗날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되는 곳인 횡도천(橫道川) 등 남만주 일대를 직접 조사하고 귀국하였다.⁶¹⁾

이상의 상황을 파악하고 귀국한 이회영은 국권이 일제에 강점당한 상황에서 망명의 길을 결단하고 국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에 나설 것을 구체적으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이회영은 이러한 자신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을 형제들에게 제의하고 망명의 당위성을 제의하였다.⁶²⁾ 이때 5형제들은 모두 흔쾌히 찬성하였고 각기 가산을 급히 정리하여 온 가족이 함께 망명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⁶³⁾ 드디어 이회영 6형제가 가족 50여명을 이끌고 1910년 12월 30일 압록강 국경을 넘었다.⁶⁴⁾ 결국 이들은 목적지인 회인현(현 환인현) 횡도천(橫道川)에 심한 추위와 고생 끝에 이듬해 1월 말에 도착하였다.⁶⁵⁾ 1911년 1월 만주 유하현 삼원포 추가가에 도착한 이회영 일가는 뒤이어 속속 도착하는 망명 이주민들과 함께 신한촌을 건설하였다. 이들은 1911년 4월 교민 자치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사관 양성기관으로 ‘신흥강습소’(후에 신흥무관학교)가 문을 연 것은 1911년 5월 14일(양력 6월 10일)이다.⁶⁶⁾ 경학사(耕學社)와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은 처음부터 독립군 양성에 있었지만 학교 이름을 바로 ‘독립군 양성’의 설립취지를 드러내는 ‘무관학교’로 출발할 수는 없었다. 신흥강습소는 후에 신흥무관학교로 개칭되었는데 처음부터 신흥무관학교라고 하지 않고 강습소라고 한 것은 중국 토착민들의 의혹과 만주 군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신흥무관학교는 1911년부터 1919년 11월까지 지속하면서 약 3,500여명이라는 대규모의 독립군을 양성하였다.⁶⁷⁾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있어서 이회영과 가족들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회영은 자신과 가

60) 신용하, 『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서울: 을유문화사, 1986), 103

61)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1987), 144

62) 李丁圭·李觀植, 위의 책, 145-146

63) 李丁圭·李觀植, 위의 책, 145-146

64)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 역사비평사, 2001, 37

65) 이은숙, 『가슴에 품은 뜻 하늘에 사무쳐』(西間島始終記), (서울: 인물연구소, 1981), 49-50

66) 김대락, 『西征錄』, 27. 1911년 5월 14일자(음) 일기

67) 서중석, 『신흥무관학교와 망명자들』(2001), 184-186

족들이 망명하여 무관학교를 세워 항일운동을 해야 할 이유와 목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형 이석영은 학교를 세우는데 거액의 금액을 희사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초기인 경학사와 신흥강습소 시절 학교재정은 전적으로 이석영에 의존하였다.⁶⁸⁾ 그가 거액의 전 재산을 내어 놓지 못했다면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어려웠을 것이다.⁶⁹⁾ 또한 이들의 가족들은 쉽지 않은 결정을 하여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국권회복 운동에 투신하였다. 이른바 삼한갑족(三韓甲族)의 명문으로 대대로 내려오던 상당한 사회경제적 기득권을 포기하고 망명길에 나선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과연 이회영을 비롯한 가족들이 이 같은 어려운 결단을 행동에 옮기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회영은 일찍이 관직에 나아가기보다 사회변혁과 변화에 관심을 보였다. 또한 그는 독립을 하자는 것도 자신의 영화를 위한 욕심에서가 아니라 전체 민족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⁷⁰⁾ 그런데 이러한 이회영의 기질과 평소 신념이 상동교회를 다니며 배우고 이해했던 기독교정신과 일치하였다. 그는 상동교회에서 기독교의 인간 사랑과 평등정신, 자유정신을 배웠다. 그리고 상동파들과 깊은 동지애를 가지고 밀회를 하며 국권회복을 위해 구체적 행동을 펼쳐나갔다. 그의 애국 사상은 그가 1910년 국외 망명 전까지 상동에서 꽃피웠다. 결국 그는 상동파로 활동하면서 종교와 사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이덕일은 이회영이 천지만물을 하나로 보는 대동사회 건설에 관심을 기울인 양명학을 젊은 시절에 공부했을 것으로 보고 그가 후에 관심을 가졌던 아나키즘이론이 양명학의 대동사회론과 비슷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아나키즘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⁷¹⁾ 이회영이 1920년대 들어 독립을 이루고 이상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자유·평등사회 구현을 위해 무정부주의라고 불리는 자유연합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러한 생각의 밑바탕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정신이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1900년대 초기 이회영의 사상적 경향은 상동교회에서 배운 기독교 정신을 통해 나타나고 그의 사고와 삶에 강하게 배어 있었다. 이

68) 박환, “만주지역의 신흥무관학교”, 『사학연구』(제40호), 368

69) 『우당 이회영실기』에서 신흥무관학교 설립에서의 이석영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그는(이석영) 만주에서 살게 된 뒤에도 많은 지사들의 여비를 지급하였고 이동녕에게는 집과 땅을 사서 기부함으로써 만주생활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신흥학교 창립 시에도 우당선생의 바라는 바에 따라 학교의 건축과 설립유지 등 제 비용을 희사하였다. 그가 만일 학교설립의 자금을 내놓지 않았다면 우당선생의 오랜 소원이던 군관학교도 설립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1987), 176

70) 李丁圭·李觀植, 위의 책, 24

71) 이덕일, “우당 이회영의 아나키즘 수용 배경에 관한 연구”, (우당 이회영 일가 망명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발표문), 2010, 50-51

것은 당시 이회영이 단순히 기독교를 이용해 독립운동을 하는 부류의 인물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의 자유와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만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기독교의 진리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다. 그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에게서 감화를 받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전덕기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고 1908년 10월 20일에는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의 주례로 이은숙과 결혼식을 올렸다. 전덕기와 함께 애국적 신념은 물론 신앙을 나눈 동지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일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은 고통 받는 민족을 위해 일해야 하는 부름 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나라 사랑은 전덕기와 이회영에게 있어서 동일한 명제가 되었다. 결국 이회영에게 있어서 신앙운동과 민족운동은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이회영은 상동파의 민족정신을 내외에 확산시키는 주역이 되었다.⁷²⁾ 이후 이회영은 전덕기 목사와 동지적인 관계를 가지고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대표적인 활동이 상동청년학원의 개설과 운영이었다. 을사늑약 이후 민족운동의 방법을 민족의 역량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사업으로 맞춘 것이다. 이회영은 전덕기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동청년학원의 학감의 직책을 수행하였고 상동교회 지하실에서 추진된 신민회의 활동에 있어서도 전덕기의 최측근으로 좌(左)회영 우(右)동녕으로 불리만큼 가장 강력한 상동파 핵심인물로서 구국운동에 앞장섰다.⁷³⁾ 후에는 헤이그 특사 파견에 주도적 관여나 국외의 군사학교 설립 준비 등으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2) 이동녕의 역할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깊게 관여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석오(石吾) 이동녕이다. 그는 기울어져 가는 망국의 현장을 목도하고 1896년 독립협회에 가담, 1898년 독립협회 사건으로 이준·이승만 등과 함께 투옥되어 7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02년 이상재·전덕기 등과 함께 YMCA운동을 전개하였고, 1904년 제1차 한일협약 체결 후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결속한 상동청년회에 가입하였다. 이동녕은 이때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동교회를 출석하

72) 임중빈, “이회영권사”,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와 교회를 빛낸 이들』,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88), 192

73) 李丁圭·李觀植, 『友堂 李會榮 略傳』(1987), 137

였다. 결국 이동녕은 전덕기에게서 세례를 받으며 애국 신앙이 깊어졌다.⁷⁴⁾ 이 때 전덕기 목사는 이동녕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사나이의 결심은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겨야 하오. 석오는 이 나라의 구국의 혁명가로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아니되오. 시련과 고통이 뒤따를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고다의 언덕에서 죽어간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용기와 신념이 새롭게 생길 것이오.”⁷⁵⁾ 이동녕은 전덕기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이 나라를 위해 이 몸을 바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이상 내가 무엇이 두렵겠소.”⁷⁶⁾라고 눈물 흘리면서 각오를 다졌다. 이후 이동녕의 국권회복운동은 신앙적 차원에서까지 이해되고 실행해 나간 것이다. 당시 상동청년회는 독립투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상당한 회원들이 모여 가장 강력한 항일 구국집단이 되었다. 이 청년회는 겉으로는 신앙의 증진을 위한 모임이었지만 실제로는 항일구국 단체였던 것이다. 결국 이들은 상동청년학원을 통해서 교육 활동 수행은 물론 신민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상동청년회를 통하여 이동녕은 수많은 인재들과 교류하고 독립운동의 동지들을 규합하였는데 그 중에도 이회영, 이시영, 이상설 등은 목숨을 같이 할 만큼 교분이 두터웠다. 이동녕에게 있어서 상동교회는 독립운동의 근거지였고, 애국사상을 일깨우고 인격을 수양하고 신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그는 북간도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여 이상설(李相高), 여준, 정순만, 박무림 등과 최초의 민족교육기관인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여 교포교육에 전념했다.⁷⁷⁾ 그러나 1907년 이상설이 이회영(李會榮)의 건의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고종특사로 파견되어 가자 그도 여준(呂準) 등에게 이 학교(1907년 10월 폐교)를 맡기고 귀국했다. 귀국한 그는 양기탁·전덕기·이동휘·이갑·유동열·안창호 등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에 가담해 중앙회 총서기로 활동하면서 신민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정책의 수립과 방략을 실시하는 일을 맡았다. 또한 자매단체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 총무로도 활약하였다. 상동청년학원 교사로도 재직하였다.

1909년 봄 양기탁의 집에 모인 신민회 간부들은 국내항일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제2독립운동기지 건설과 독립군 양성을 결의, 이에 이동녕·이회영·주진수·장유순 등이 만주로 건너

74) 김석영, “교육신념을 실천한 교육가”, 『석오 이동녕 연구』, (서울: 서문당, 1989), 82

75) 임중빈, “석오 이동녕”,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나라와 교회를 빛낸 이들』,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상동교회, 1988), 223-224

76) 임중빈, 위의 책, 224

77) 김석영, “교육신념을 실천한 교육가”, 『석오 이동녕 연구』(1989), 100-104

가 독립운동 근거지를 물색하고 돌아왔다. 그 해 10월 안중근의 이등박문 사살 이후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신민회는 해외와 국내로 나뉘어 투쟁하기로 결의, 1910년 말부터 1911년 초까지 그를 비롯한 이회영 6형제·이상룡·김창환·여준 등 1백여 명이 가족들과 더불어 만주 요녕성 유하현 삼원보 추가가에 망명하였다. 그곳에서 이동녕은 이회영, 이시영, 이상룡 등 동지들과 함께 1911년 4월 항일독립단체이자 한인교포들의 자치기관인 경학사(耕學社)를 조직하였다. 이동녕은 경학사의 재무를 맡아 운영을 해 나갔다.⁷⁸⁾ 부속기관으로 신흥강습소(新興講習所)를 열었다. 신흥강습소는 이후 신흥무관학교로 발전하였다. 이동녕은 신흥강습소 초대 소장에 취임하여 독립군 양성과 교포 교육에 매진하였다. 평생 교육운동가로 산 이동녕은 소장(교장)의 직분으로 생도들에게 직접 애국정신을 함양시키는데 열의를 다하였다.⁷⁹⁾ 이동녕은 소장으로서의 책무가 막중하였는데 그가 고국에 있을 때 교육자인 선친의 육영사업에 도운 이력, 상동청년학원에서의 교사로서 얻은 경험, 서전의숙 시절 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왔던 경험 등이 결국 큰 힘이 되었다.⁸⁰⁾ 또한 이동녕은 안동식, 이윤옥, 김창무 등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모여 매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만주 유하현 삼원보교회를 설립하였다.

5. 신흥무관학교를 태동시키게 된 상동파 정신

신민회는 전덕기가 있는 상동의 못자리에서 배양되고 탄생되었다. 또한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의 기본 정신과 방략에 의해 세워졌다. 신흥무관학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동파의 정신 찾아보아야 한다. 상동파의 정신은 그 기저에 흐르는 사상적인 맥을 통하여 상동청년회 및 상동청년학원의 정신, 신민회정신, 나아가 신흥무관학교의 정신으로 연결된다. 특히 신흥무관학교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의 삶과 사상에서 상동파의 공통된 정신이 흐르고 있다.

1)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애국정신

상동교회의 설립자인 스크랜턴은 의료 선교사로서 한국 땅에 섬기는 자가 되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배움과 섬김의 사역을 다하였다. 이러한 스크랜턴의 민중사랑 정신으

78) 김석영, 위의 책, 118

79) 김석영, 위의 책, 82

80) 김석영, 위의 책, 128

로 전해지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접하면서 전덕기와 상동파들은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⁸¹⁾ 스크랜턴으로부터 배운 성서의 메시지는 “가난한 이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해방을, 억눌린 이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건강을, 고통받는 이에게 평안을 준다”⁸²⁾는 것이었고 이 말씀은 결국 전덕기와 상동파들에게 신앙훈이 되었다. 이들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다.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정신은 전덕기의 민중사랑, 애국 애족 정신, 그리고 상동파 인물들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발전되어 갔다. 전덕기가 “신학월보”에서 1904년 기고한 “마땅히 깨울 일”⁸³⁾을 통해 그의 신앙에서 우리나라오는 애국사상을 엿볼 수 있다. 전덕기는 우리 민족이 삼천년이나 깊이 잠들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사지가 묶인 결박을 풀려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이 민족 온 동포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 나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깨어 일어나자고 역설하였다. 성령의 힘, 즉 신앙의 능력으로 청년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로설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처럼 전덕기의 민족운동의 힘은 기독교 정신이었던 것이다.

이에 영향을 받아 전덕기 주위에서 신앙 생활하던 인물들은 모두 애국활동에 힘썼던 인물들이 되었다. 예를 들면 상동파의 핵심인물인 이회영은 기독교신앙에 입각한 애국정신을 갖고 기독교인으로서 그의 나라를 더 사모하는 자의 신앙을 소유하였다. 그는 불의한 땅의 권세에 불복종한다는 정신자세를 가지고 이는 세상의 안일함과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실천해 나갔던 인물이다. 상동교회에 출석하며 신앙 훈련을 받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지행합일을 이룬 사람들이다. 남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나라를 사랑할 줄 알고, 희생을 통해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상동파의 기독교 신앙의 입장은 당시 일반 교회들의 입장과 태도나 선교사들의 정책과 입장은 반대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전덕기는 일제나 내한선교사들이 전덕기 자신과 청년들의 활동을 비판내지는 경계하며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들이 상동교회 안팎에서 종교적 신

81) 노블 부인, 『승리의 생활』 (서울: 기독교창문사, 1927), 51-52. 스크랜턴의 영향을 받은 전덕기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1896년 세례를 받고 1897년에는 상동교회의 입교인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여 상동교회에서 일하는 일꾼이 되었으며, 이후 거듭난 삶이 펼쳐졌다.

82)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1885), 18

83) 「신학월보」 1904. 10월호, 442-444

양운동을 버리고 과격한 정치집단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지 않았다고 본다.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근거하여 이웃 사랑과 민족 사랑을 실천해 나갔다는 점이다. 즉 전덕기는 민족운동이 종교(기독교 신앙)와 일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종교적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구국활동을 할 수 있었다. 결국 구국운동을 하기 위해서 상동으로 모여든 인물들이 있었다는 점은 단순히 장소적 편리성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나라사랑이란 정신이 담겨있음을 말해 준다. 혹 기독교신앙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동에 모여 구국운동을 벌이던 인물들도 상동파의 애국활동의 기본 사상은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사상을 인지하였으리라 판단된다. 이들은 신앙 내지는 신념으로 무장되어 자신들의 희생을 치루면서라도 구국을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이다. 결국 상동파 출신의 신민회 회원들, 특히 이회영과 이동녕 등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신앙 내지는 신념으로 무장되어진 준비되고 선별된 애국투사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민중계몽 및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 구국정신

민중계몽과 교육을 통해 인재 양성을 이룬다는 신념은 전덕기와 상동파의 처음부터 가졌던 기본적 생각이었다. 그의 목회의 주된 임무인 설교와 교회교육도 계몽과 교육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덕기의 목회적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전반적인 부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더 민중계몽에 관심을 가졌다. 성서에서 만민평등사상을 발견해 민중의 자각과 역사참여를 강조하고 양반 상류층의 허례허식 등을 비판하고 반봉건의식을 통해 민중계몽운동에 앞장선다. 전덕기는 기고 및 연설을 통해 애국 계몽운동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주위의 애국지사들과 힘을 합하여 나라의 역량을 기르고 젊은이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국권을 되찾자는 뜻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을사5조약 무효상소와 헤이그 밀사사건에서 무력한 국력을 통감한 그는 장차 나라의 역군이 될 젊은이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글로써 민족을 깨우고 강연회를 통해서도 계몽운동을 일으키고 그가 목회하는 교회 내에서는 공옥학교와 상동청년학원을 통해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일제 때 수많은 민족학교가 세워져 인재들을 양성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덕기는 교회 내의 교육기관을 통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참다운 신앙인을 배출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 당시 청년학원의 교사진은 최고 수준의 지도자들이었고 이곳에서 실제로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해 냈다. 당시 서울 장안에서 상당한 가문의 자제들이 명문 학교인 배재학당에 가기보다 상동청년학원에 입학하기를 원했고, 멀리 지방에 있는 학

생들도 청년학원으로 유학을 오기까지 했다.⁸⁴⁾ 이 학교에서 교육받은 청년들은 신앙으로 무장되어 교회를 위하여 실제로 사회에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힘쓰는 인재들이 되었던 것이다.⁸⁵⁾ 상동파 인물들은 교육운동을 통해 무지한 민중들에게 신문화와 지식을 전파하고, 민족의 정신을 깨우치고, 지적 실력도 배양하여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였다. 이 정신이 신민회의 주요정신으로 채택되어 신민회의 교육활동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에서의 박용만의 소년병학교 설립 및 운영, 이상설, 이동녕 등의 서전의숙 설립 및 운영, 그리고 만주 유하현의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상동파의 교육 구국정신과 맞닿아 있다.

3) 여러 동지를 규합하여 함께 일하는 포용과 연합정신

전덕기 목사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의 포용력 때문이었다. 민중계층이 상동교회로 많이 몰리게 된 것은 단지 지리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위안처로 삼기 위해서보다는 전덕기 목사의 넓은 포용력과 지도력 덕분이었다. 또한 지식인 계층의 인사들이 상동교회로 모여들고 전덕기를 중심으로 구국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역시 전덕기 목사가 모든 애국인사들을 품어줄 수 있는 큰 그릇이었다는 점이다. 각기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중재자 역할을 하던지, 이들의 다른 입장을 전덕기의 신앙과 인격의 용광로에 용해시켜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이 있었을 것이다.

독립협회 활동이나 상동파 인물들의 사상적 경향을 보면 상당히 여러 성향의 인물들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상동에 모여든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신념이나 구국운동의 방략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신민회 활동에서도 온건파와 과격파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⁸⁶⁾ 전덕기에게는 이동휘와 같은 과격파든 이동녕, 안창호와 같은 온건파든 어떤 사상과 민족운동의 방략을 갖고 있던 간에 누구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전덕기는 출신이나 성분을 따져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았고, 지역, 문벌, 학벌, 재력과 배경 등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관계하고 함께 일하게끔 도왔다.⁸⁷⁾ 전덕기도 계몽과 교육활동에 관심을 두었다고 해서 단순히 온건파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전덕기가 상동청년회 활동이나 을

84) 송길섭, 『민족운동의 선구자 전덕기 목사』, 89-90

85) 현순, “고 목스 전덕기군 추도문”, 『나라사랑』 제97집, (서울: 부영문화사, 1998), 360

86) 『상동교회백십일년사』, 124-125

87) 독립운동계에도 ‘서북파’와 ‘기호파’로 나누어지는 큰 두 인맥이 있었다. 그러나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가 중심이 된 ‘상동파’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항일독립운동을 펼쳤으며, 상동교회에는 지역과 노선, 계층을 따지지 않고 서북파와 기호파를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사늑약반대 투쟁⁸⁸⁾, 헤이그밀사파견⁸⁹⁾ 등에서 보듯이 강력하고 투쟁적인 활동을 하였고 이들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급진적인 모습도 찾아 볼 수 있다. 상동청년회에 함께 뜻을 같이했던 임원으로 활동하던 박용만이나 정순만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민족운동을 전개해 나간 것을 보면 전덕기의 사상에 어느 정도 급진성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그가 종교지도자로서 교회를 맡고 있는 상황이며, 공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언제나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들이 그가 드러내놓고 과격한 사상을 펼치거나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러나 전덕기는 상동파나 신민회의 활동 가운데 여러 인물들의 의견이나 민족운동의 정책들을 합리적으로 소화하고 조율하여 효과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덕기는 강은 양면의 선명한 구국운동의 온도의 차이를 그의 포용정신으로 극복하였다.

민족운동 당시 가장 감화가 컸던 인물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자리에서 육당 최남선 선생은 전덕기에게서 감화를 제일 많이 받았다고 전하였다.⁹⁰⁾ 당시 최남선과 같은 지성인이나 민족 지도자들이 전덕기 목사에게로 모여든 것은 그의 신앙심에서 나오는 인품이라 보여 진다. 신민회의 핵심 인물인 이동녕은 전덕기가 있는 상동교회의 일원으로 합류하여 전덕기와 자주 왕래하며 국가의 장래와 민족문제를 긴밀히 논의⁹¹⁾하는 깊은 관계를 맺었고 1907년 8월에는 전덕기 목사로부터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다.⁹²⁾ 전덕기에게 감화를 받은 이회영도 상동의 신앙혼을 기초로 하여 절대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면서 전덕기와 함께 상동정신을 더욱 이념화 하고, 조직화하여 생활로 실천해 나갔다. 이처럼 전덕기를 만났던 사람들은 누구든 그의 신앙심과 인격에 감동을 받고 그를 존경하였던 것이다.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의 창립과 운영도 이러한 포용 및 연합정신에서 출발한다. 신민회에서 수많은 인맥과 민족운동 방략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구국운동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

88) 김구, 『白凡逸志』, (서울: 서문당, 1973), 179. 김구는 을사조약 무효화를 위하여 선교사들의 정치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전덕기가 상동에 모인 청년들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린 후 대한 문으로 몰려가 일제의 만행을 규탄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국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을사조약은 결코 우리의 뜻이 아니옵기로 이를 철폐시켜야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어여삐 여기사 힘을 주시옵소서. 한 걸음도 물러가지 말고 죽기까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전덕기를 비롯한 이동녕, 김구 등 상동청년들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해 어떠한 격렬한 투쟁도 불사할 태세를 가지고 있었다.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研究』, 83

89) 송길섭, 『상동교회 백십일년사』, 93-99

90) 전택부, 『토박이 신앙산맥2』, 137-138

91) 『默菴備忘錄』, 1907년 5월 2일

92) 위의 글, 1907년 8월 25일

하나는 상동파에서 나타났던 포용력의 모습이 비밀결사단체를 하나로 묶은 것이고 연합하여 함께 일하는 단체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신민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지역으로부터 그리고 많은 인사들이 힘을 모아 시작한 신흥무관학교에서도 상동파의 포용과 연합정신을 보여주고 있다. 신흥무관학교의 설립과 운영과정에서 수많은 난관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협력과 조화로 잘 이끌어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신뢰와 믿음을 기초한 언행일치 정신

전덕기는 설교나 말에만 그치는 목회자가 아니라 설교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가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그가 목회하는 상동교회가 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이 모여드는 곳이었기에 전덕기는 구휼과 치료, 나아가 죽은 후에 장례까지도 책임지는 진실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의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전덕기 목사에게 감화를 받고 그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었다. 즉, 말이나 글이 아닌 몸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국운이 기울었을 때 뜻있는 인사들이 구국운동을 위해서 죽음을 무릅 쓰고 전덕기 목사의 상동교회 지하실로 모여들었는데 전덕기 목사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서 그곳에 모여 비밀회합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실천적 삶을 가진 진실한 인격자였기 때문에 그의 활동은 타인들에게 매우 설득력이 있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그의 신앙 실천사상을 찾아보게 된다. 그는 믿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바를 마음에만 두지 아니하고 끝내 삶 속에서 이루어 내었다. 결국 행동하는 신앙을 중요시 했다는 것이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지도부가 와해되고 지도급 인사들이 투옥되거나 해외로 망명한 상황에서 국내 민족운동이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전덕기는 국내에 남아 구국운동에 힘쓰고 있었다.⁹³⁾ 전덕기는 서간도에서 이동녕과 이회영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신흥무관학교 설립에도 직간접으로 간여하고 있었으며⁹⁴⁾ 상동청년학원은 물론이고 이승훈이 투옥된 후 오산학교 뿐 아니라 안창호가 떠난 후의 평양 대성학교 운영까지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또한 신민회 중앙총부 재정 담당으로 여전히 지방에서 올라오는 민족운동

93) 전덕기가 미국에 있던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서 ‘105인사건’ 이후 국내 민족운동계가 힘든 상황을 알려주고 있다. 『每日申報』, 1913년 3월 20일자; 『한국독립운동사 자료총서』 6집(도산 안창호 자료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342-343; 윤춘병, 앞의 책, 168-171

94) 李炫熙, 『臨政과 李東寧 研究』, 119-124

가들의 활동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⁹⁵⁾ 이것은 전덕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인물임을 말해준다. 전덕기는 삶으로 목회하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결국 전덕기와 이회영, 이동녕 등 상동파들은 신민회나 신흥무관학교를 통하여 언행일치의 정신을 구현해 나간 것이다.

6. 나가는 말

지금까지 본 글에서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의 창립과 활동이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다는 점을 밝히려 하였다. 그리고 상동청년회와 상동청년학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독립협회(1896년), 상동청년회(1903년), 상동청년학원(1905년 청년회 해산 이후), 신민회(1906년), 신흥무관학교(1911년)에 이르는 민족운동 흐름을 정리해 보았다. 또한 신민회 창립에 있어서 전덕기의 활동과 위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동교회는 신민회의 산실이요 그 운동의 핵심본부였으며, 신민회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기독교인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상동교회가 신민회 근거지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유는 상동교회나 상동파가 신흥무관학교의 이념적 근거, 인맥 그리고 조직의 토대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과 실천력으로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인 전덕기, 이회영, 이동녕 등은 상동파의 핵심 인물로서 신민회는 물론 신흥무관학교에 깊이 관여하였고, 실제로 학교가 태동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민회의 이념과 목표 활동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상동파와 연결되듯이 상동청년학원의 지도자가 신흥무관학교의 지도자로서 헌신하며 활동하였던 것이다. 특히 상동청년학원에서의 체육이나 기초 군사훈련의 교과 내용은 후일의 신흥무관학교의 교과목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를 태동시킨 상동파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다. 상동파의 정신은 기독교 신앙(하나님사랑, 이웃사랑, 나라사랑 정신)에 입각한 애국정신, 즉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정신이었고, 민중계몽 및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 구국정신, 여러 동지를 규합하여 함께 일하는 포용정신과 연합정신,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기초한 언행일치 정신임을 밝혔다. 이러한 상동의 정신은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의 탄생에 밑거름이 되었고 상동파 인사들은 뜻을 함께하는 여러 애국지사들과 같이 민족운동에 전력을 다할 수 있었다. 이처럼 당시 기존 민족운동세력이

95) 김진호, “全德基 牧師 小傳”

나 단체에 있어서의 활동 내용과 그 사상을 비교해 볼 때 상동파의 정신은 이들의 사상과 정신을 포괄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앞서서 밝혔듯이 상동파의 활동의 근거는 기독교 사상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동파가 지향한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들의 활동에 있어서 포용과 연합정신으로 나타났고 애국 동지들끼리 깊이 신뢰하고 이들의 신념을 구체적으로 행동화하는데 까지 나아갔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의 활약은 당시 가장 강력한 항일 구국운동 세력이었던 신흥무관학교의 기본 사상과 활동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다 할 수 있다.



토론문

토론문

신흥무관학교 주요 간부와 졸업생들의 민족운동

황민호 송실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 논문은 박환선선생님께서 신흥무관학교의 주요 인물 가운데 새로운 연구나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임필동, 김창환, 김경천, 지청천 장군에 대해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3장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의 항배’에서는 이병철, 신형섭, 문상직, 김훈, 양림, 성주식, 김성국 등의 인물에 대한 자료를 소개해 주셔서 궁극적으로 신흥무관학교에 참여했던 인물에 대한 연구의 토대를 제공해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박환선선생님의 논문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며, 다만 제가 선생님의 논문을 읽고 궁금했거나 잘 몰랐던 것에 대해 2~3가지를 간단하게 여쭙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박환선선생님께서서는 잊혀진 신흥무관학교의 중심인물 중의 한 분으로 임필동(임면수)에 대해 새롭게 밝혀 주시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선생님의 논문 3쪽에서 보면, 임면수가 만주에서 교장으로 활동했던 학교가 ‘처음에는 대동중학교라고 칭했으며, 후에 신흥학교로 고쳤다가 다시 양성중학교라고 개칭’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양성중학교가 어떻게 신흥무관학교와 연결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는 초기에는 신흥강습소였고 이후에는 신흥(중)학교였다가 신흥무관학교가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임면수 선생의 학교가 신흥학교에서 다시 양성중학교가 되었다면 신흥무관학교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임필동의 활동과 관련해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선생님께서는 논문 4-5쪽에서 임필동이 만주로 망명해 여관업을 하면서 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도와줬으며, 이 때문에 선생 부인

의 고생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기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임필동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중요 인물이나 활동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논문에서도 밝히고 계시는 바와 같이 김창환의 경우는 이은숙 여사의 회고록에서 이장녕, 이관직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임필동의 경우도 설명이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셋째, 제가 찾아보니까 논문 제3장에서 선생님께서 언급한 신흥무관학교와 관련한 인물들 이외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행한 임시정부 자료집에는 김약산의 고문이었던 성현원(Mr. H. Y. Sung, 成玄園)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고등경찰요사>에는 崔載華 등이 국내서 신흥무관학교에 보낼 청년들을 모집하다 검거된 사건의 내용이 있으며, 최재화의 노력으로 權元河, 金鍾輝 등이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논문에서 이러한 인물이나 사건들의 내용을 보강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또한 제가 찾아보니까 『동아일보』 1947년 10월 17일자에 ‘四十年前을 懷想 新興武官學校 出身先輩들이 十九日 覺皇寺에 모혀’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의 활동이나 명단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 모임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쭙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토론문

신흥무관학교와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 출신 독립운동가들

노영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선임연구원

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국군의 연원을 50년간의 지속적인 무장투쟁으로부터 찾으려는, 특히 신흥무관학교의 주요 구성원들이었던 대한제국 육군무관학교(일본육사) 출신들의 활동으로부터 찾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각 구성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선생님의 문제의식과 내용에 대해 토론자는 크게 이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 국군의 정통성을 단절적이고 경비대 모체론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에 대한 비판이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생님께서 지적하시듯이 대한제국에서 근대적인 군대 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연무공원, 훈련대와 시위대, 그리고 무관학교 등-를 고안하였습니다. 특히 무관학교는 정세변동에 따라 존폐의 곡절을 겪으면서도 500여명의 장교를 배출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항일투쟁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육군무관학교에서 일본육사로 유학 갔던 인물들도 생겨났고, 이후 이들은 한말 군사교육 기관과 대한제국의 군대의 중추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물들은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후 친일의 길을 걸었으나 일부는 항일의 길로 나섰습니다. 한선생님의 이들의 활동을 추적, 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이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및 광복군 등과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토론자는 이러한 한선생님의 문제의식과 발표문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지만, 몇 가지 점에서 궁금한 점을 제기하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대한제국기 일본육사에 유학했다가 돌아온 인물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한선생님은 일본육사 출신 장교들이 일본 군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고 대부분의 일본육사 출신 장교들이 '대세'에 순응했으며, 일부 인물들-대표적으로 노백린, 이갑, 유동열, 김희선 등-이 구국활동에 헌신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토론자가 궁금한 것은 이들이 친일과 반일의 갈림길에서 이렇게 분화된 이유는 무엇이었겠는가입니다. 특히 일제로부터 일정한 지위와 특

혜를 보장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찾기 위한 활동에 헌신한 분들의 독립운동 투신의 배경이 부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득권이 보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역만리로 망명의 길로 접어들어 자신들에게 선진적인 군사기술을 전수해준 일본에 충을 들고 대항했던 분들의 인식이 궁금합니다.

둘째, 위의 문제와 비슷하지만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에 일본으로 국비유학 갔었던 기수-26, 27기-들의 행태와 분화 과정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 기수들이 주목되는 점은, 이들 대다수는 일제 시기의 고급 장교-예를 들어 홍사익은 중장, 그 외는 정령(대령)으로까지 진급-가 되었으며 해방 이후에도 한국군의 최고위급 지휘부-이용준 초대 육군참모총장, 신태영 육군참모총장 대리 및 국방부장관, 그 외 사단장 등-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도 나오듯이 이들은 조국이 강제병합 됐을 당시에는 비분강개하고 울분을 표출했는데, 지청천과 이종혁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왜 반일운동에 합류하지 않았을까가 의문입니다. 오히려 김석원이나 김인욱과 같은 인물들은 침략의 길에 앞장서는 등의 활동을 전개했고, 홍사익은 그 능력(?)을 인정받아 중장까지 진급할 정도였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을 것 같습니다.

셋째, 한선생님께서서는 육군무관학교 출신들과 일본육사 출신들이 이후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가를 규명하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들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는가 좀 더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인맥의 분석 외에도 제도적 면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즉, 과거 육군무관학교와 일본육사에서 받았던 군사교육이 이후 신흥무관학교와 독립군 활동 등에서 어떻게 재생되는가를 살펴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이 광복군 그리고 국군의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101년 전 나라를 되찾기 위해 힘든 길 마다않고 이역만리로 떠나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우국지사들을 되새겨보는 뜻 깊은 자리에 한선생님의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토론자의 부족한 토론과 오독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구하며 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토론문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

박민영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토론자는 신흥무관학교에 대해 학문적 업적을 발표한 적이 없다. 다만, 작년 6월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 기념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주최한 한중 공동학술회의를 주관하면서 특히 ‘고생한’ 인연과, 1990년대 중반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후원으로 중국동북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을 위해 서북간도 독립운동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고산자의 신흥무관학교 유적지를 답사한 경험이 있을 뿐이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안동 출신으로 신흥무관학교, 나아가 이 학교와 유관한 만주독립전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면모와 그 역할과 의의를 구명한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 두 가지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첫째 신흥무관학교의 건립과 유지, 운영에 안동 출신의 독립운동가들이 대거 참여한 실상, 둘째, 안동의 지사들이 서간도 망명 이후 주력한 독립운동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신흥무관학교 경영이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 무엇보다, 백하 김대락과 석주 이상룡 양 宗匠을 필두로 신흥무관학교와 연관된 안동 망명인사들의 규모는 가히 놀랍고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그런 사실 구명이 전년에 국역 간행한, 아마도 발표자가 주관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김대락의 망명일기인 『백하일록』에 크게 힘입었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갖는 의의는 더욱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역으로 『백하일록』이 없었다면, 이 주제의 글을 완성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을 감안하고 몇 가지 의견을 첨언함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다소나마 보탬을 주고자 한다.

1. ‘안동인’의 범주에 대한 견해 ; 이 논문에서는 ‘안동인’의 범주를 오늘날 안동의 행정구역 내의 출신 인사들로 한정하고 있는 듯한데, (퇴계)학맥과 혈연(훈인)을 바탕으로 한 이른바 ‘안동문화권’의 범주에 있는 경북 북부내륙(봉화, 예천, 청송, 의성, 영양 등지) 출신 망명지사들의 참여 실상을 함께 언급해도 ‘안동’이라는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안동문화권’ 출신자들의 참여 면모와 실태를 별개로라도 보완해주면, 신흥

무관학교, 나아가 만주지역 독립전쟁 이해에 더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안동인사들이 망명 적지로 서간도 유하를 선택한 배경과 이유** ; 본문에서는 안동의 혁신 유림이 서간도를 선택한 배경적 요인으로 “내적 요인으로 만주가 우리 민족의 옛 영토라는 민족이었고, 외적 요인으로는 신민회가 추진하는 독립군 기지 건설이 뜻에 맞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더 범위를 좁혀 신흥무관학교가 들어서게 되는 유하로 망명지사들이 집중하게 되고 이곳이 독립운동 근거지가 되는 배경과 이유를 더 구체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국망 이전 서간도에 건너가 백범 김구가 일시 유거한 곳도 이 일대였으며, 유인석 의병이 망명 정착한 곳도 유하(5도구)였다. 이러한 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을지, 이 점에 대해 새로운 의견이 있는지 알고 싶다.

3. **신흥무관학교의 범주에 대한 의견** ; 제3장의 ‘신흥무관학교 설립과정과 안동인’을 기술하면서 추가가와 합니하의 신흥무관학교를 언급하고, 이와 별도로 제4장의 ‘독립전쟁과 안동인의 역할’ 속에 신흥학우(교우)단과 백서농장을 언급하고 있다. 물론 신흥무관학교와 졸업생 기타 유관 단체, 결사는 엄연히 분간되지만, 신흥무관학교의 경우, 양자 상호간의 인적, 물리적으로 유기적인 결합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학우(교우)단과 백서농장도 신흥무관학교의 범주 내에서 이해하고 기술하는 것이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까 한다. 이와 더불어 신흥무관학교의 ‘후신’으로 언급된 교하의 금(검)성중학교의 경우, 이전 신흥무관학교와의 교육과정, 인적, 학적 관련성 등의 면에서 더 구체적인 자료가 보완되어야만 타당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4. **제5장 ‘신흥무관학교와 안동인의 정신사’** 제목은 본문의 내용, 논지상 적절하지 않은 감이 있다. 이 장의 주된 내용, 논지가 안동인들이 만주 망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사지리학적, 사상적 논변과, 나아가 만주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도출된 논리들을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더 합당한 제목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5. **체제, 기술상의 문제** ; 이 논문의 가장 핵심 되는 장은 신흥무관학교 설립, 운영상에서 안동인의 참여 및 역할을 다룬 제3장과, 여기에 신흥무관학교 출신자들 중심으로 활동하는 안동인들의 만주독립전쟁 참여내용을 다룬 제4장으로 생각된다. 전체 목차에서 이들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체제를 수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을 듯하다.

토론문

‘상동파의 구국운동과 신흥무관학교’에 대한 논평

이은선 안양대학교 기독교문화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서영석의 “상동파의 구국운동과 신흥무관학교”는 기독교와 무장독립운동과의 관계를 밝혀주는 소중한 논문이다. 기독교인들은 한말에서 일제시대에 걸쳐 대부분이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론의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실력양성론의 방편으로 신민회같은 비밀결사조직을 택한 경우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무장독립운동은 유림들의 의병운동계열이나 대중교의 북로군정서군 등이 중심이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참여한 경우는 적지 않았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무장독립운동을 준비한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 논문은 상동교회 출신의 상동파의 구국운동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의 근간이 되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2. 논문의 구성

이 논문은 들어가는 말과 나가는 말을 포함하여 6장으로 되어 있다. 들어가는 말에서는 독립전쟁론에 기반하여 세워진 신흥무관학교가 상동교회의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상동파의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론과 강력한 투쟁을 통한 국권회복정신 가운데 후자의 정신에서 탄생하였다는 주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의 4장에 걸쳐서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2장 전덕기의 목회와 상동청년회의 활동에서 상동청년회가 1897년에 조직되었는데, 청년회가 정치적 활동과 연관되면서 스크랜튼에 의해 활동이 금지되었다. 1903년에 전덕기가 상동청년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조직이 재건되면서 많은 애국청년들이 모여들어 상동파를 형성하였다. 전덕기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는 다양한 애국적인 정치활동을 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우려한 스크랜튼은 1905년 11월에 다시 청년회를 해산시켰다. 3장은 상동청년학원과 신민회의 관계를 설명한다. 전덕기를 중심으로 한 상동파는 1904년부터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하여 교육과 계몽을 통해 철저한 민족의식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1905년의 을사늑약 이후에는 새로운 비밀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조직하여 구국을 이루고자 하였다. 신민회는 1907년 안창호가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에 조직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조직된 청년학원조직이 밑바탕이 되었다. 4장에서는 신흥무관학교가 설립되는데 이회영과 이동녕을 중심한 상동파의 인맥과 자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을 설명한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에는 상동파 이외에는 안동지방의 혁신유림계와 강화학파의 혁신유림계도 참여하였으나, 그 조직에서 상동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한다. 신민회는 해외에 독립운동기지를 설립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설립된 것이 신흥무관학교였다. 이상설과 이동녕 등은 을사늑약 이후에 1906년에 서전서숙을 세웠으나, 전덕기와 이회영 등이 추진한 헤이그 밀사로 이상설이 참여하고 일제의 방해로 1907년 9~10월에 문을 닫았다. 1908년부터 신민회는 해외독립운동기지 건설을 논의하였는데, 이회영의 가족들이 재산을 팔아 만주로 이주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동녕도 독립협회 시절부터 전덕기와 알게 되어 그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서전서숙설립에 동참하였다. 5장에서는 이렇게 전덕기 목사의 지도력으로 형성된 상동파의 이회영과 이동녕 등이 중심이 되어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하도록 만든 상동파의 정신으로 1.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애국정신, 2. 민중 계몽 및 인재양성을 통한 교육 구국정신, 3. 여러 동지를 규합하여 함께 일하는 포용과 연합정신, 4. 신뢰와 믿음을 기초한 언행일치 정신 등 4가지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신이 토대가 되어 애국계몽을 넘어 무장독립운동의 기반이 신흥무관학교 설립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6장의 결론에서 신흥무관학교의 설립에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정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3. 이 논문은 기존의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대한 설명에서 하나의 구성요소로 설명되던 상동교회 출신들의 역할을 기독교 정신의 관점에서 설명한 점이 돋보인다고 하겠다. 이 논문은 독립협회 - 상동교회 청년회 - 상동교회 청년학원 - 신민회 - 신흥무관학교 설립이란 독립운동의 흐름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그러한 흐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덕기가 중심이 되어 형성된 상동파라는 것을 설득력있게 논증하고 있다. 특히 전덕기의 구국사상이 애국계몽운동의 실력양성론뿐만 아니라 무장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 양자들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신흥무관학교 설립이 기독교의 독립운동과 연결되는 근거를 밝히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동청년학원의 교육활동의 근거는 이미 그곳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사상이 만주의 신흥무관학교 설립과 박용만의 미주 무장독립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해외의 무장독립운동기지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신민회의 활동인데, 그러한 신민회의 조직에서 상동청년학원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잘 밝혀주고 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회영과 이동녕이 바로 전덕기를 만나 기독교신앙을 받아들이면서 그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흥무관학교 설립에는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4가지로 제시된 상동파 정신이 근간이 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4. 개선되어야 할 점

1) 신흥무관학교 설립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회영과 이동녕은 전덕기를 만나 기독교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상동청년학원에서부터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 설립에까지 참여하고 이후에 일생동안 독립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의 독립운동은 개신유학자로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이들의 독립사상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사상이 기독교와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전환되었는지 아니면 기독교조직을 통해 그들의 사상이 전개된 것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른 연구자들은 이들의 독립운동을 연구하면서 기독교사상의 영향에 대해서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연구자들의 주장을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들의 독립운동의 기독교적인 근거가 좀 더 깊이있게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2) 신흥무관학교 설립 계획이 언제 시작되었느냐에 대해 이 논문은 1908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논하고 있는데, 이관직이 쓴 『우당 이회영 실기』(을유문화사, 1985) p.130에 의하면 신민회가 조직되기 전인 1906년에 이미 이회영은 해외독립운동기지 건설과 무관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설명이 있으니, 참조해서 분석했으면 한다.

3) 상동교회의 청년회의 해체시기와 복원시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 상동교회 청년회는 1900년에 해체되었다가 1903년에 재건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비전문가인 필자에게는 그러한 사실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5. 이 논문이 1910년대에 독립운동과정에서 기독교진영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무장독립운동으로 나아가는데 상동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밝혀준 것은 대단히 중요한 소득이라고 판단된다. 기독교가 민족운동 가운데서 애국계몽운동을 통한 실력양성론을 넘어 무장독립운동을 한 것이 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이 논문의 성과는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박용만의 미주무장독립운동과정도 잘 연구되어 상동파의 무장독립운동으로 연결되는 구국운동의 전개과정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기대해 본다.

